

통계로 본
대전 60년사

발간사

금년은 우리 대전이 市가 된지 60주년이 되고,
광역시로 승격된지 2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IAC 국제우주대회와 90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해로 우리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할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역시는 시제출범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던 발자취를 「통계로 본 대전 60년사」에 담아 과거를
보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계를 책자로 엮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무수히 쓸어내고 있으나 조사와 분석을 통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통계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신개념 분석을 통해 수치로
정리한 것으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편집해 놓았습니다.

특히, 통계는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과 같은 것으로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
함으로써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계로 본 대전 60년사」가 우리시정의 60년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흥미있고 유익한 자료가
되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지표로 활용됨으로써, 대전이 세계적인 모범 도시로 웅비하는 도약
대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책자발간에 협조해주신 관계기관과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09. 9.

대전광역시장 박 성호

이용자를 위하여

가급적 「대전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고,
시 초기 통계 자료는 「대전시사」 및 「대전100년사」를
활용하였습니다.

10년을 주기로 2008년까지 수록

본 통계는 원시자료를 최초 자료로 하여 10년을 주기로 2008년까지 수록하였으나 일부 수록 항목의 자료 작성 기준이 현실여건에 맞지 않아 시계열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 항목에 대하여 발표 기관별 작성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대전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고, 시 초기 통계 자료는 「대전시사」 및 「대전100년사」를 활용하였습니다.

전국통계의 경우는 통계작성 항목마다 기준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에서 작성한 통계와 비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 현실여건이 맞지 않아 작성기준이 상이하거나 불일치로 일부 세목을 생략한 경우가 있어 통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록된 항목은 시계열 조정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최근 통계를 우선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p : 잠정치

- : 해당 숫자 없음

... : 해당 숫자 알 수 없음

대전광역시 상징물



새 까치 / Bird Magpie

한국에서 가장 길조로 여겨지는 까치가 대전의 시조입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속설을 가진 텃새의 일종으로서 만인에게 아름다움과 경쾌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The official bird of Daejeon is the Korean Magpie. According to Korean legend, it is said to bring close friends and good news if it sings in the morning. The Magpie gives beauty and pleasure to people all year round.

꽃 백목련 / Flower White magnolia

대전의 시화는 백목련으로서 꽃말은 우정입니다. 백목련은 화사한 봄날, 잎이 나기 전에 탐스런 순백의 꽃을 피우는 꽃 중의 여왕으로 우아하고 품격 높은 시민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Daejeon's city flower is the white magnolia which represents friendship. Before the leaves come out in spring, a very beautiful white magnolia flower blooms which symbolizes graceful and elegance.

나무 소나무 / Tree Pine

대전의 시목인 소나무는 옛부터 선비정신의 절개를 상징하고 있는 향토수로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며, 추위 · 건조에 강하고 풍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Daejeon's city tree is the pine - known throughout history as a symbol of integrity. It has a beautiful, full appearance and can endure the cold and dry weather.



도표로 본 통계

- 대전의 하루 07
- 대전의 최초 08
- 주요지표
 - 인구 09
 - 재정 · 경제 10
 - 무역 11
 - 교육 · 노동 12
 - 보건 · 환경 13
 - 주택 · 교통 14
 - 안전 15



대전의 하루



출생 41명



사망 17명



혼인 26명



이혼 9쌍



인구이동 1,459명



지방세징수 28억원



차량증가 10대



건축허가 11동



인당급수량 347ℓ



전력사용량 22,158MWh



유류사용량 4,610㎘



가스사용량 2,110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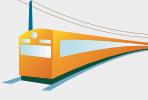
생활폐기물 1,281ton



운전면허발급 184명



여권발급 251명



지하철이용인구 95천명



시내버스이용인구 356천명



교통사고발생 15건



화재발생 3건



119구급활동 148건

※ 지하철 이용인구 기준 : 2009. 1. 1 ~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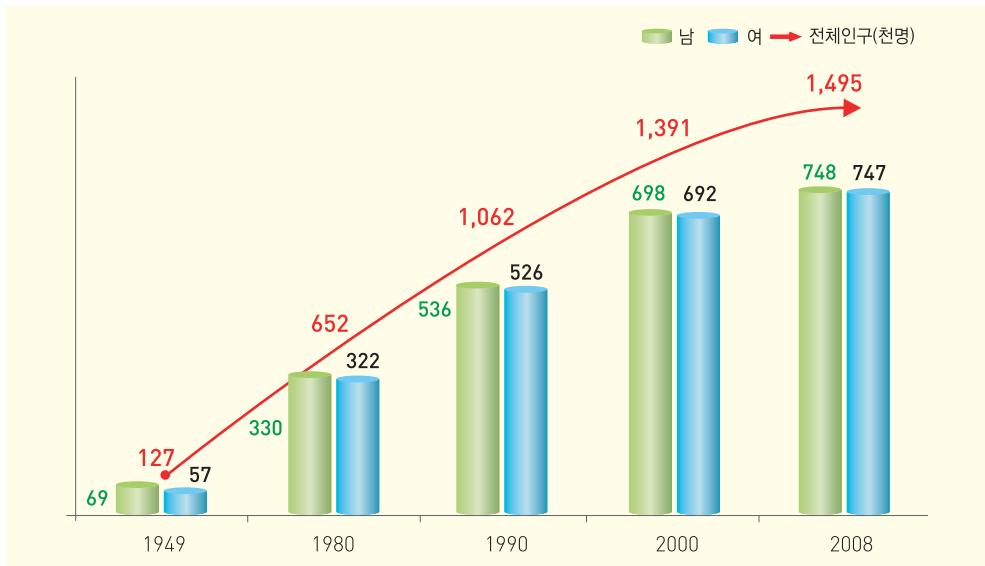
대전의 최초

철도개통	1905. 1. 1	서울 ▶ 대전
도로개설	1905. 3	대전시장(인동) ▶ 대전역까지(폭 72m, 길이 1,100m)
대전소학교(한국인 학교)	1906. 4	현 대전원동초등학교 / 외국인(1911. 8 : 현 대전삼성초등학교)
우체국	1906. 12. 1	회덕우체국
전화개설	1908. 6. 1	대전우체국 전신취급소
인쇄소	1910. 11	대전인쇄소
다리	1912. 2	목척교 (공사비 4,600원, 폭 3칸(5.45m), 길이 38관5분(70m))
도서관	1913. 7	대전교육회 (대전문고가 설립)
직업교육	1914. 3	대전전습소(수강생 36명)
체육도장	1915. 6	대전무덕관(검도 및 유도)
만세운동 지역	1919. 3. 3	인동나무장터 ▶ 나무꾼들이 만세외침
천주교	1919. 11. 12	대전본당 (현 대흥동성당)
의료기관(병원)	1922. 11	대전자혜병원
인구조사	1925.	인구 8,613명 (세대 2,063)
방송국	1927. 2. 16	경성방송 (1943. 7 : 대전방송)
은행	1930.	식산은행 대전지점
지역사회 운동단체	1932. 6. 18	대전상공회의소
영화관	1933.	경심관 (전 대전극장)
출판사	1933.	이문사
대전도시계획	1938. 5. 12	총독부고시 제411호(면적34.4㎢)
사립학원	1946. 8. 19	보문중학원 (현 보문중학교)
라디오방송	1950. 4	대전방송 (출력 500W, 주파수 880kc)
시내버스	1952. 2. 17	계룡버스 (종업원 351명 / 시외버스(충남여객 1944. 4. 5))
유치원	1952. 5. 18	철도유치원 (교원4, 학생36)
택시회사	1962. 5. 10	신광택시 (면허대수 86대)
호텔	1967. 12. 30	유성호텔
증권사	1973. 8. 9	삼보증권
백화점	1973. 9. 13	홍명상가 1973. 9. 13 ~ 2009. 9. 10 (철거)
정부출연 연구기관	1978.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92천 m ² , 443명)
생명보험	1988. 3. 7	대전생명보험 (민간보험)
국제행사	1993. 8. 7	대전 '93EXPO 개막 (1993. 8. 7 ~ 1993. 11. 7)
동물원	2002. 5. 5	대전동물원 개장 (동구 사정동 582천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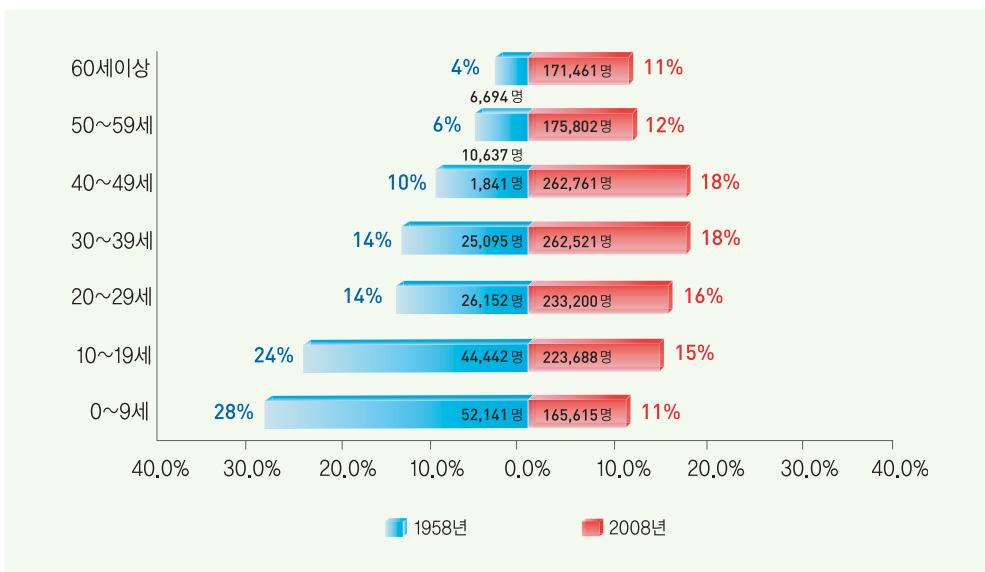
주요지표

인구

【 성별 인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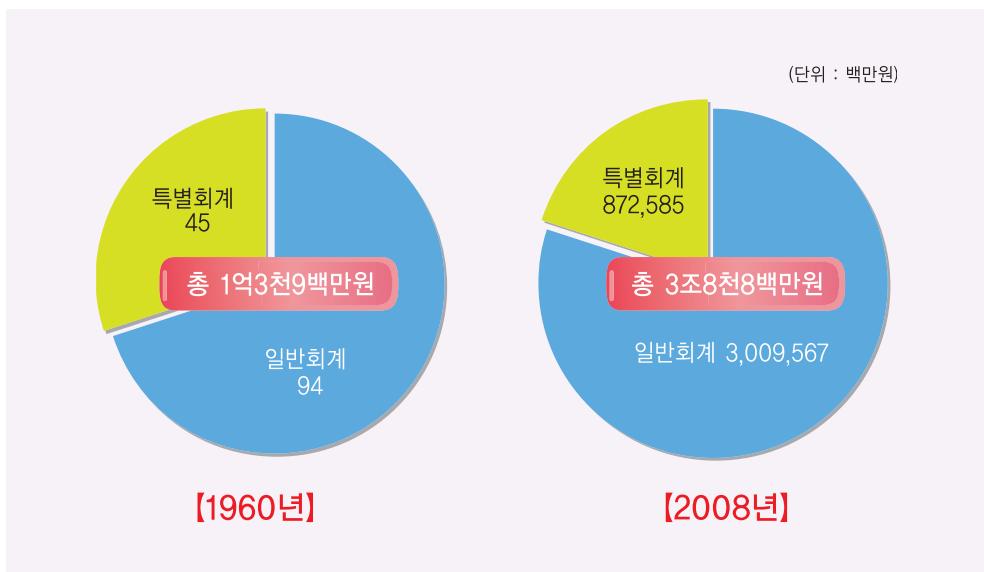


【 연령별 인구구조 】



• 재정 · 경제 •

【 예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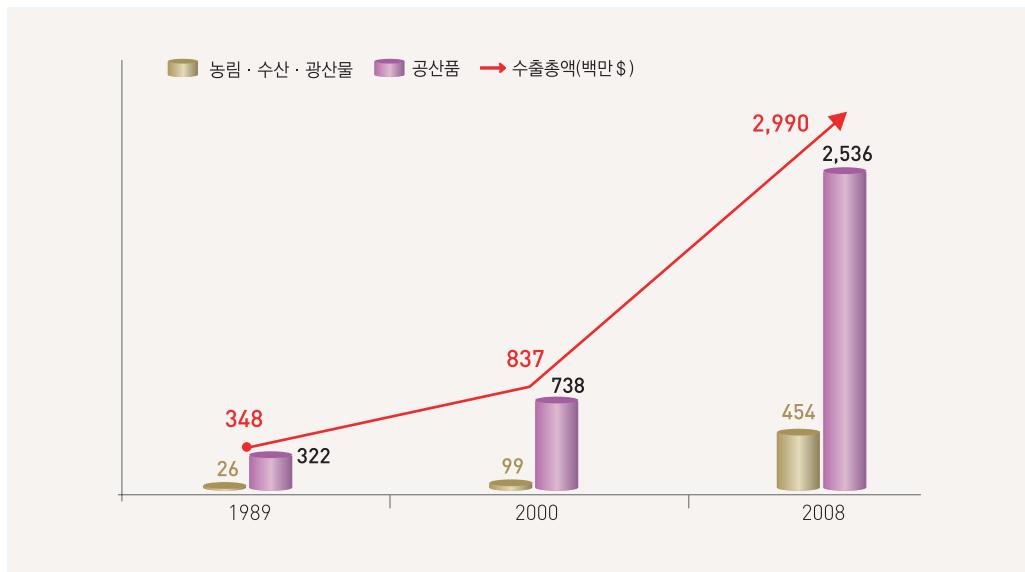


【 지역내총생산(GRD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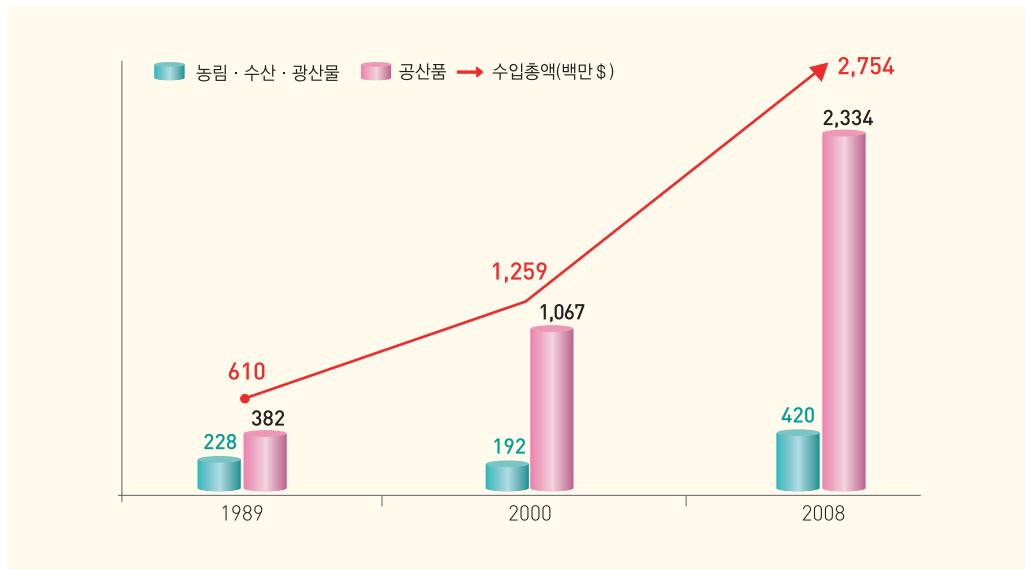


• 무 역 •

【 수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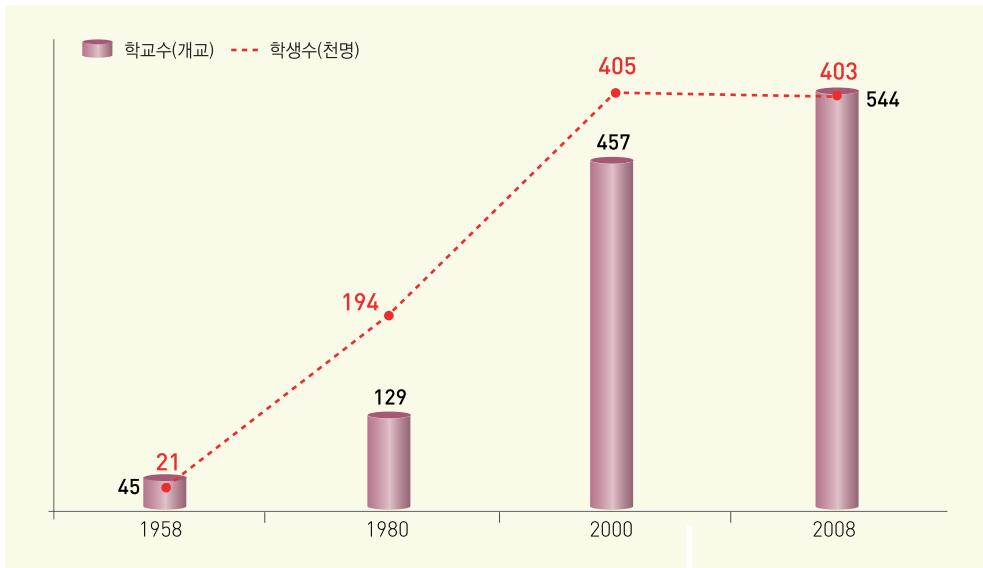


【 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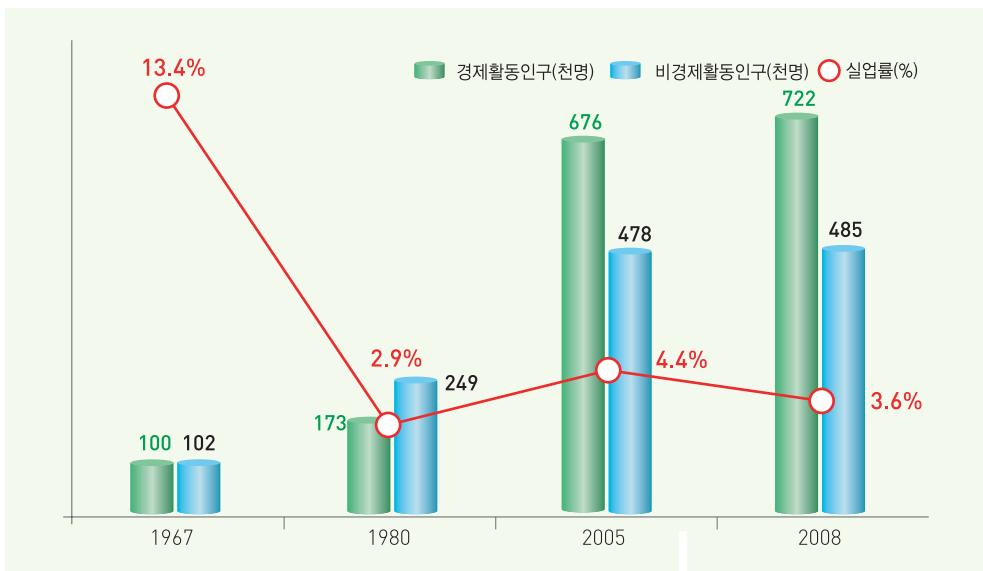


• 교육 · 노동 •

【 학교 및 학생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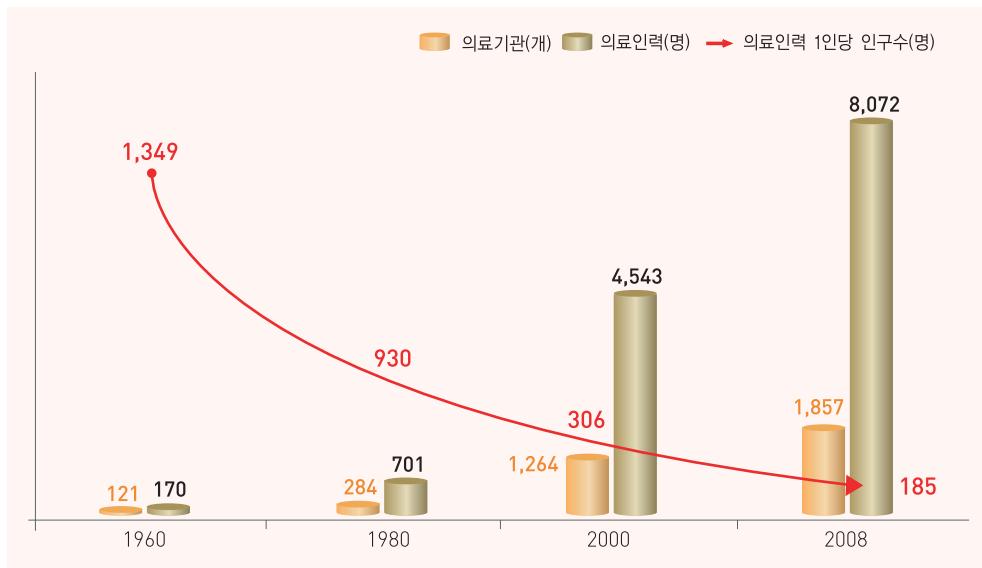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



• 보건 · 환경 •

【 의료기관 및 인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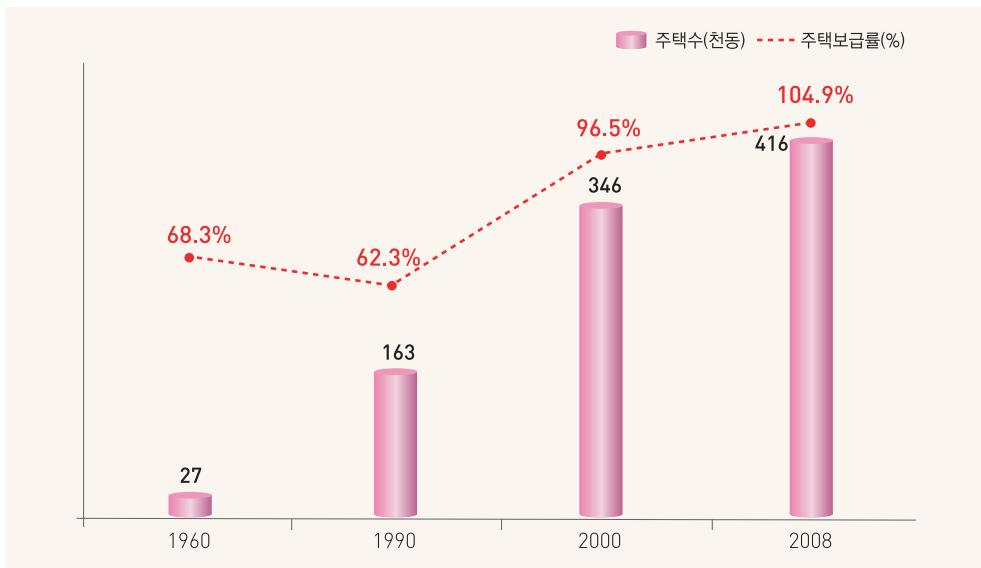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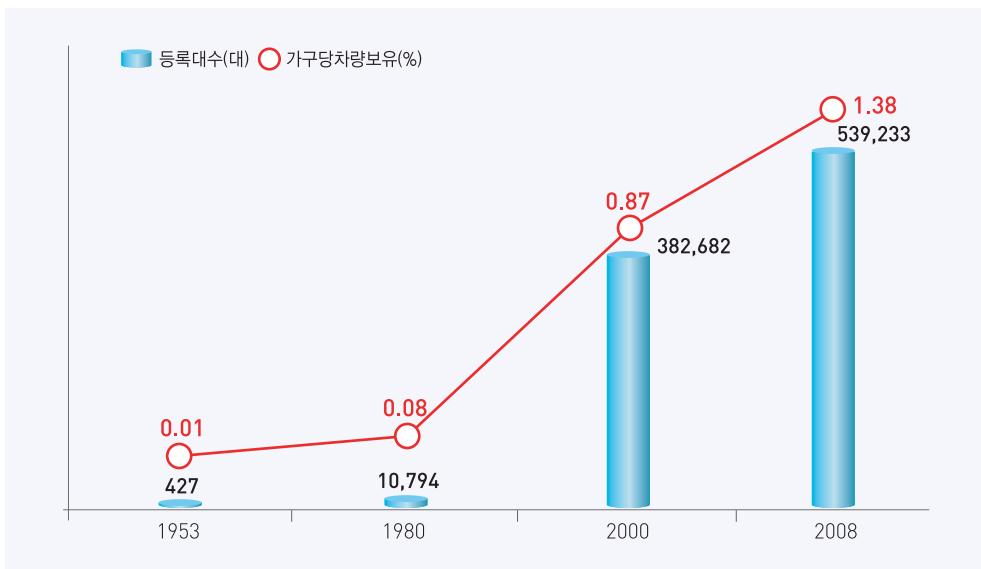


• 주택 · 교통 •

【 주택보급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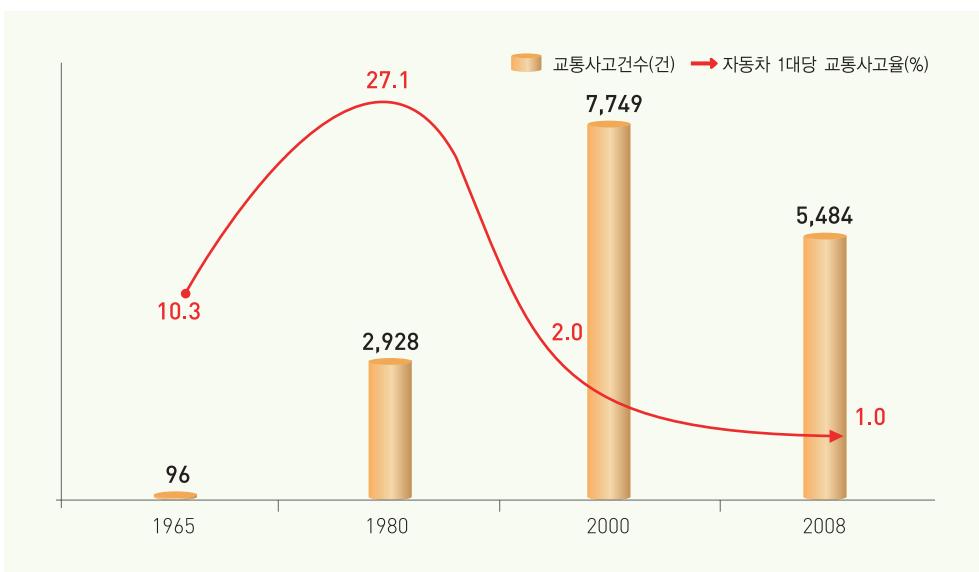


【 자동차등록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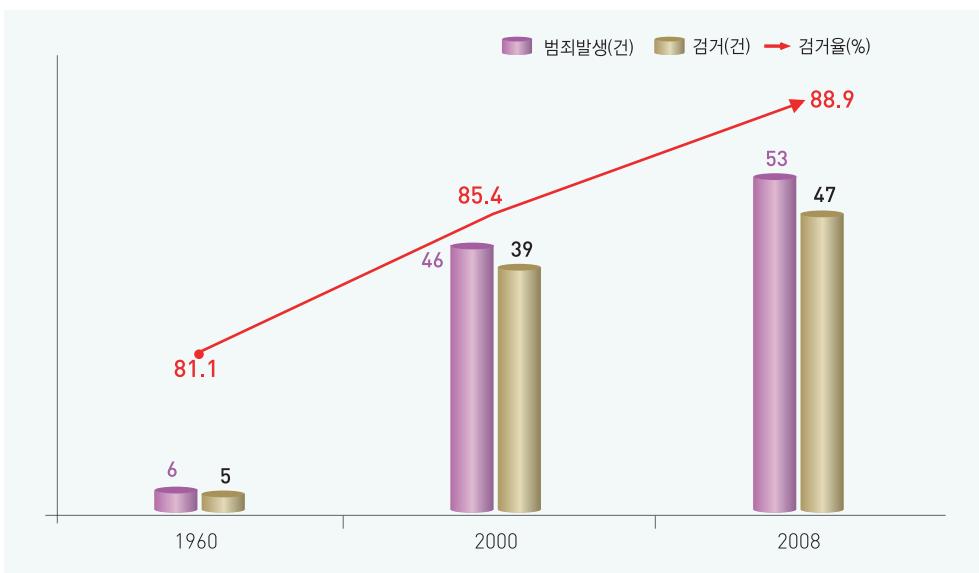


• 안전 •

【 교통사고 】



【 범죄검거율 】



목 차

【 통계로 본 대전 60년사 】



일반현황

- 20 연혁
- 22 자연 조건
- 25 인구 · 세대



지방자치

- 30 공공행정
- 35 의회
- 38 교육
- 42 통신



지역경제

- 46 지역내총생산
- 50 사업체
- 54 대덕특구
- 57 노동
- 60 에너지
- 64 무역
- 65 농업
- 71 유통 ·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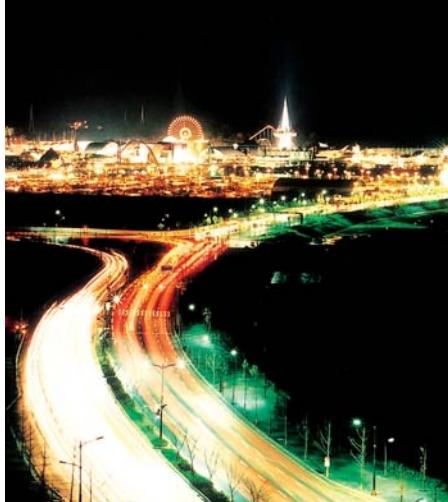
재정 · 금융

- 74 재정
- 77 금융



문화 · 체육

- 84 문화
- 87 체육
- 89 관광

**복지**

- 92** 사회복지
97 의료보건
101 기타

**환경·녹지**

- 106** 환경
113 폐기물
116 공원

**교통**

- 118** 교통수단
125 친환경수단

**도시건설**

- 130** 도시개발
131 주택관리
133 토지관리

**재난·안전**

- 136** 재난안전
139 교통안전
142 사회안전

**부록**

- 146** 전국통계
165 우리나라
발전과정
172 용어해설





【 일반현황 】



20 연 혁

22 자연 조건

25 인구 · 세대

01 일반현황

대전광역시 연혁



년 / 월 / 일	변 천 내 용
백제시대	우술군(우술군, 노사지현, 소비포현), 황등야군(진현현)
신라시대	비풍군(유성현, 적조현), 황산군(진령현), 웅진
고려시대	공주목, 회덕군, 유성현, 진잠현, 덕진현, 충순현
조선시대	태종13년(1413) 공주목(회덕현, 진잠현), 고종32년(1896) 회덕군, 진잠군
1931. 4. 1	총독부령 제103호(1931. 3. 1 공포)로 대전면이 대전읍으로 승격
1935. 10. 1	총독부령 제112호(1935. 9. 28 공포)로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
1949. 8. 15	법률 제32호(1949. 7. 4 공포)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대전부를 대전시로 개칭
1963. 1. 1	법률 제115호(1962. 11. 21 공포)로 대덕군의 유천면 전역과 회덕면의 대화·오정·용전리, 산내면의 옥계·삼정·호동·가오리를 편입
1971. 7. 1	시 조례 제461호(1971. 6. 2 공포)로 4개 출장소를 설치
1977. 9. 1	대통령령 제8667호(1977. 8. 27 공포)로 출장소를 폐지하고 동구, 중구의 2개구 설치
1983. 2. 15	대통령령 제11027호(1983. 1. 10 공포)로 대덕군 유성읍, 회덕면 전역과 구즉면 탄동면, 기성면, 진잠면 일부 편입
1983. 10. 1	대전시 조례 제1303호(1983. 9. 8 공포)에 의거 동구 오정동을 오정동, 대화동으로 중구 태평동을 태평1동, 태평2동으로 각각 분동, 동구 25개동 중구 1개 출장소(유성출장소 설치) 35개동으로 조정
1984. 9. 1	시 조례 제1404호(1984. 9. 1 공포)에 의거 유성출장소를 시 직할출장소로 승격
1987. 1. 1	대통령령 제12007호(1986. 12. 23 공포)로 대덕군 진잠면 계산리 일원이 중구 계산동으로 편입
1988. 1. 1	대통령령 제 12367호(1987. 12. 31 공포)로 서구청 설치
1989. 1. 1	법률 제4049호(1988. 12. 31 공포)로 대덕군 편입(진잠면 남선리 제외)과 함께 대전시를 대전직할시로 승격, 5개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설치
1990. 1. 1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 제207호(1989. 12. 7 공포)로 회덕2동을 회덕2동과 중리동으로 분동
1991. 9. 1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 제171호(1991. 8. 29 공포)로 중리동을 중리동과 법동으로 분동
1991. 12. 1	대전직할시 서구 조례 제188호(1991. 11. 29 공포)로 용문동을 용문동과 삼천동으로 분동
1992. 9. 1	대전직할시 동구 조례 제207호(1992. 8. 31 공포)로 판암동을 판암1동과 판암2동으로 대전직할시 서구 조례 제214호(1992. 9. 1 공포)로 도마2동을 도마2동과 정립동으로 분동

년 / 월 / 일	변천 내용
1993. 11. 1	대전직할시 서구 조례 제249호(1993. 11. 1 공포)로 용문동을 용문동과 탄방동으로, 삼천동을 삼천동과 둔산동으로, 갈마동을 갈마동과 월평동으로 분동
1994. 7. 1	대전직할시 서구 조례 제274호(1994. 6. 30 공포)로 월평동을 월평1동과 월평2동으로 분동
1995. 1. 1	법률 제 4789호(94. 12. 20 공포)에 의거 대전직할시 명칭을 대전광역시로 변경
1996. 1. 1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341호(1995. 12. 22 공포)로 둔산동을 둔산1동과 둔산2동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296호(1995. 12. 29 공포)로 법동을 법1동과 법2동으로 분동
1996. 8. 20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385호 (1996. 8. 20 공포)로 가장동과 내동으로 분동
1997. 12.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371호, 제372호 (1997. 12. 26 공포)로 석봉동을 신탄진동으로 변경
1998. 1. 1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405호(1997. 11. 4 공포)로 선화1·2·3동을 선화동으로, 대흥1·2·3동을 대흥동으로, 문창1·2동을 문창동으로 통합,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451호(1997. 12. 4 공포)로 갈마동을 갈마·2동으로 분동, 월평1동을 분동 월평3동 신설, 월평2동을 분동 만년동 신설(5구 85동)
1998. 10.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422, 423호(1998. 10. 26 공포)로 진잠1·2동을 진잠동으로, 탄동을 온천2동으로 통합(5구 83동)
1998. 11. 23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449호(1998. 11. 23 공포)로 은행·선화동을 은행선화동으로, 용두1·2동을 용두동으로, 산성·산서동을 산성동으로 통합(5구 80동)
1998. 12. 14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394, 395, 396호(1998. 10. 13 공포)로 원·정·중동을 중앙동으로, 대1·신안동을 대신동으로 추·세천동을 대청동으로 통합(5구 76동)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3호(1999. 8. 6 공포)로 동구 용전동 일부를 대덕구 중리동으로 편입
1999. 12. 31	대전광역시 조례 제2917호(1999. 12. 31 공포)로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를 중구 대흥동 499의 1번지에서 서구 둔산동 1420번지로 변경
2003. 1. 28	유성구 조례 제593호(2003. 1. 28 공포)로 온천2동이 온천2동과 노은동으로 분동
2003. 2. 1	서구 조례 제675호(2003. 1. 28 공포)로 가수원동이 가수원동과 관저동으로 분동
2005. 2. 4	서구 조례 제755호(2005. 1. 31 공포)로 관저동이 관저1·2동으로 분동
2007. 2. 5	유성구 조례 제738호(2007. 1. 5 공포)로 노은동이 노은 1·2동으로 분동
2009. 9. 1	동구 조례 제 785호(2009. 8. 11 공포)로 중앙동과 소제동이 중앙동으로 인동과 신흥동이 신인동으로, 대동과 대신동이 대동으로, 성남동, 성남2동이 성남동으로, 삼성1동, 삼성2동이 삼성동으로 각각 통합

01 일반현황

자연 조건



위치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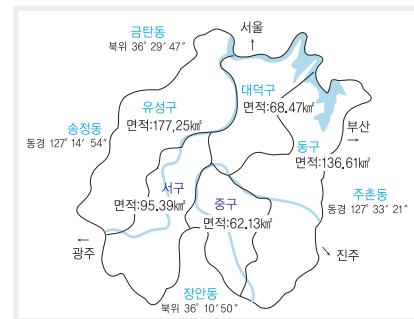
【 교통요충지 대전, 면적이 1949년 35.71㎢에서 2008년 539.84㎢으로 15배 늘어나 】

대전은 북위 36° 동경 127°의 중서부지역에 위치하여 남한의 중앙부인 중도라고도 일컬으며, 영남과 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으로서, 수도 서울에서 남으로 167.3km, 부산에서 북으로 238km, 광주로 부터는 169km의 거리에 있다. 이러한 대전은 경부·호남고속도로, 국도가 분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교통 요충지로서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분담한다.

대전부가 1949년 대전시로 개칭 당시 면적은 35.71㎢이었고, 1963년 대덕군 유천면 전 지역과 산내면·회덕면 일부가 편입되어 88.2㎢이었으며, 1983년에는 대덕군 회덕면·유성을 전역과 구즉면·탄동면·기성면·진잠면 일부가 편입되어 204.35㎢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현재는 539.84㎢로 60년간 약 15배 증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

대전은 우리나라 6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중 면적으로는 5번째 도시가 되며, 대전시 구별 면적을 보면 유성구가 제일 넓고, 다음이 동구, 그 다음이 서구, 대덕구, 중구의 순이다.



연도별	변천사	인구(명)	면적(㎢)
1949. 8. 15	대전부 ▶ 대전시 개칭	126,704	35.71
1963. 1. 1	대덕군 유천면, 회덕면, 산내면 일부편입	289,511	88.20
1971. 7. 1	4개 출장소 설치(동부, 서부, 중부, 북부)	414,598	88.10
1983. 10. 1	유성출장소 설치	800,397	204.35
1988. 1. 1	서구청 설치	937,119	208.35
1989. 1. 1	대전직할시 승격(5개구 설치)	1,020,613	539.90
1995. 1. 1	대전광역시 명칭 변경	1,268,432	539.87
2008. 12. 31	동 구 : 248,983명 / 136.61㎢		
	중 구 : 266,167명 / 62.13㎢		
	서 구 : 502,868명 / 95.38㎢	1,495,048	539.84
	유성구 : 263,782명 / 177.25㎢		
	대덕구 : 213,248명 / 6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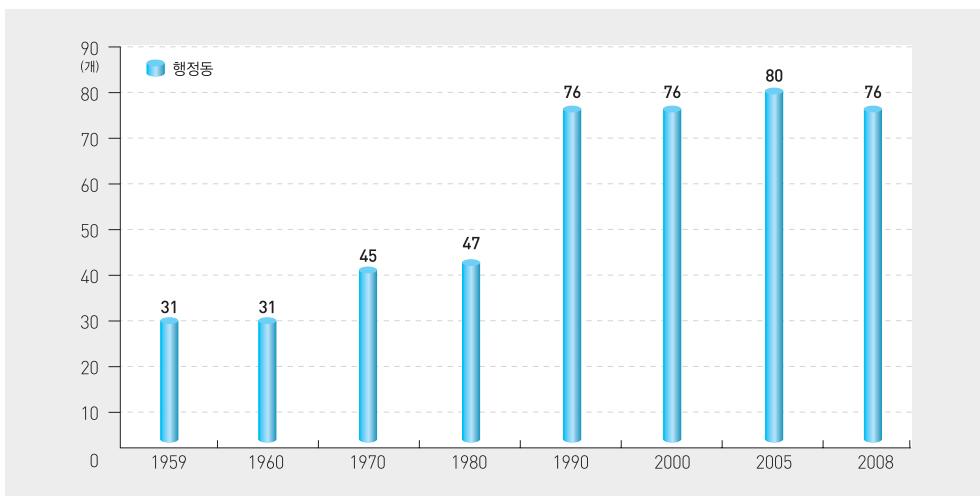
※ 시청 대전 서구 항촌길 70번지

행정구역

【 1959년 31개 동에서 2008년 76개 동으로 확대된 광역 행정망의 중심지역으로 발전 】

행정구역은 1959년 31개 행정동, 310개 통, 1,298개 반에서 1977년 출장소가 폐지되고 동구, 중구 2개구가 설치되며, 1989년 대덕군의 편입과 함께 대전직할시로 승격, 5개 자치구(동, 중, 서, 유성, 대덕)가 설치됨에 따라 76개 행정동, 2,343개 통, 12,914개 반으로 구성된 광역 행정망으로 부상되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23개동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중구 17개동, 동구 16개동, 대덕구 12개동, 유성구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도	자치구	행정동	통	반	구별 행정구역 (2008. 12. 31 현재)				
					구별	행정동	법정동	통	반
1959	-	31	310	1,298	동구	16	45	366	1,939
1960	-	31	310	1,323	중구	17	26	398	2,279
1970	-	45	447	2,124	서구	23	28	774	4,455
1980	2	47	800	4,100	유성구	8	53	463	2,452
1990	5	76	1,620	7,700	대덕구	12	26	342	1,789
2000	5	76	2,666	12,438					
2005	5	80	2,726	13,502					
2008	5	76	2,343	12,914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01 일반현황

기후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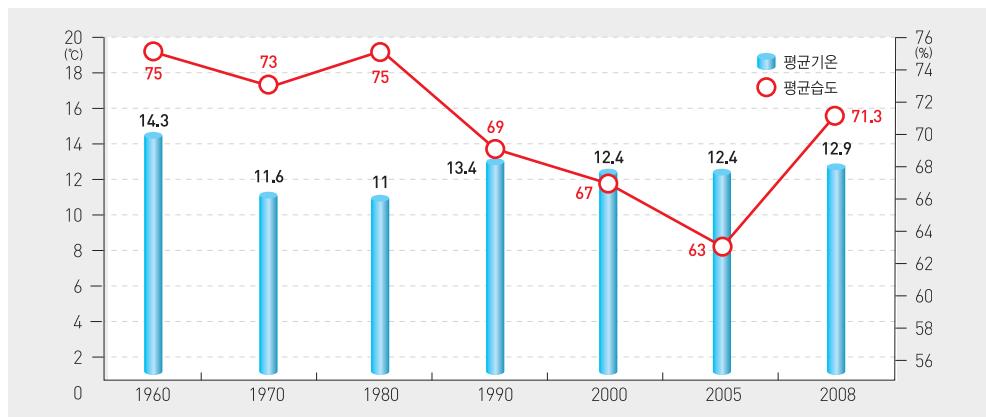
【 한반도의 중부지방, 분지형태의 도시로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추운 대륙성 기후】

대전은 지리적으로 북반구의 극동지역, 한반도의 중부지방에 위치하였으며, 공주와의 경계에 계룡산, 청원군과의 경계에 대청댐이 있으며, 시 중심으로 동쪽에는 식장산, 서쪽에는 구봉산, 남쪽에는 보문산, 북쪽에는 계족산의 연봉에 둘러 쌓여있는 분지형태의 도시이다.

기온은 연평균기온이 12.3°C 이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의 월평균기온은 25.5°C ,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월평균기온 -1.9°C , 연교차는 27.4°C 로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추운 대륙성 기후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극값으로는 최고기온이 1994년 37.7°C , 최저기온이 1969년 -19.0°C 를 나타내었다.

강수량의 연평년 값은 1,353.8mm이며 계절적으로 연강수량의 50~60%가 여름에 내리고, 5~10%는 겨울에 내리며, 일강수량의 최대값은 1987년 303.3mm이다.

※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 유성구 대학로 387(구성동 22)에 위치(북위 36도 22분, 동경 127도 22분, 해발 68.3)



연도	연평균 해면 기압 (hPa)	기온 ($^{\circ}\text{C}$)			평균 습도(%)	강수량 (mm)	대전지방의 극값	
		최고	최저	평균			최고기온	최저기온
1960	-	31.9	-5.6	14.3	75	779.9	최고기온	37.7°C (1994. 7.24.)
1970	1,017.4	30.5	-9.4	11.6	73	1,520.5	최저기온	-19.0°C (1969. 2. 6.)
1980	1,016.6	32.3	-15.8	11.0	75	1,598.7	일강수량	303.3mm(1987. 7.22.)
1990	1,017.3	36.7	-16.2	13.4	69	1,496.4	1시간강수량	79.1m/s(1969. 7.31.)
2000	1,016.2	33.9	-12.4	12.4	67	1,707.5	일최대풍향풍속	NE 20.0m/s(1970. 8.30.)
2005	1,016.5	34.3	-15.7	12.4	63	1,656.1	일최대순간풍향풍속	N 29.3m/s(2000. 9.16.)
2008	1,015.4	33.4	-13.3	12.9	71.3	1,037.6	일최심신적설(최고) ¹⁾	49.0cm(2004. 3.5.)
							최소습도	6%(2001. 4.17.)

주1) 최심신적설량 : 하루동안 온 눈이 최대로 깊었던 적설량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대전지방기상청

인구·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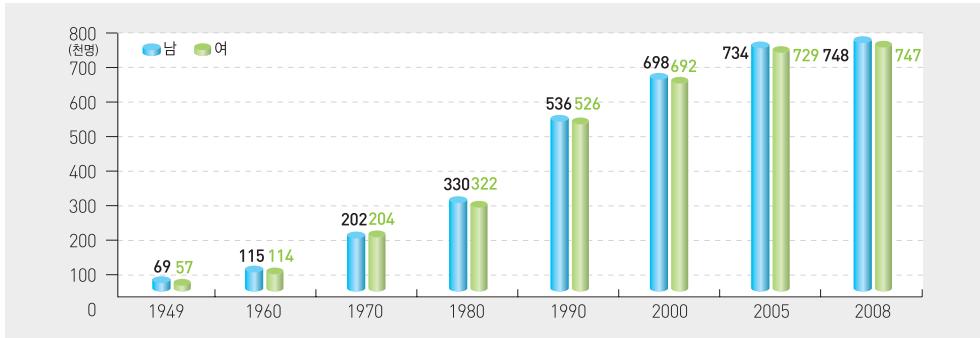
인구 및 세대

【 1949년 126,704명에서 2008년 1,495,048명으로 12배 늘고, 세대당 인구는 1/2로 감소 】

1949년 22,338세대에 인구는 126,704명이었으나, 2008년 현재 세대는 23배 증가한 531,681세대, 인구는 12배 증가한 1,495,048명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1949년 남자가 69,407명, 여자가 57,297명으로 성비가 121.1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08년 현재는 남자 748,235명, 여자 746,813명으로 성비(100.2)가 거의 균형을 이룬다.

인구밀도는 1949년 $\text{㎢}^{\text{당}}$ 3,548명이었으나, 인구증가와 더불어 행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2008년에는 22% 감소한 $\text{㎢}^{\text{당}}$ 2,769명으로 감소하였다.

세대당 인구는 1949년 5.7명이었으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2008년 2.8명으로 51% 감소하였다.

(단위 : 명, %, 명/ $\text{㎢}^{\text{당}}$, 세대)

연도	인구				인구증가율 ¹⁾ (%)	인구밀도 (명/ $\text{㎢}^{\text{당}}$)	세대	
	계	남	여	성비			세대	세대당인구
1949	126,704	69,407	57,297	121.1	-	3,548	22,338	5.7
1960	229,393	115,254	114,139	101.0	32.5	6,424	39,824	5.8
1965	307,412	152,561	154,851	98.5	34.0	3,882	51,866	5.9
1970	406,488	202,271	204,217	102.7	32.2	4,706	73,412	5.6
1975	506,703	255,053	251,650	101.4	24.7	5,744	94,107	5.4
1980	651,642	329,745	321,897	102.4	28.6	7,459	127,431	5.1
1985	866,695	434,049	432,646	100.3	33.0	4,241	190,270	4.6
1990	1,062,084	536,276	525,808	102.0	22.5	1,977	262,224	4.1
1995	1,268,432	638,471	629,961	101.4	19.4	2,350	379,121	3.3
2000	1,390,510	698,499	692,011	100.9	9.6	2,576	439,312	3.2
2005	1,462,535	733,817	728,718	100.6	5.2	2,710	505,650	2.9
2008	1,495,048	748,235	746,813	100.2	2.2	2,769	531,68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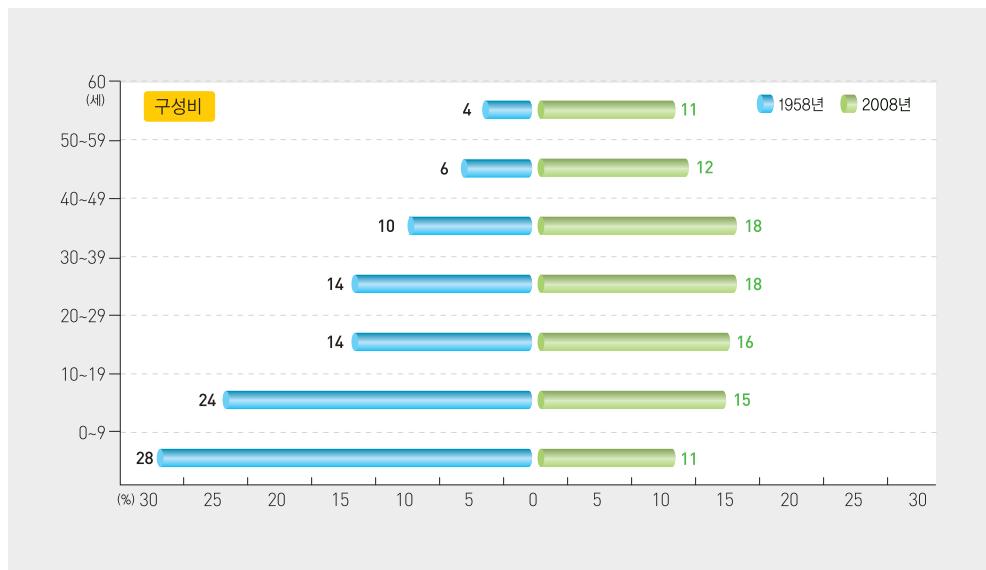
주1) 5년전대비(단, 2008년은 2005년대비) 주2) 1980년 이전 외국인 제외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01 일반현황

연령계급별 인구 구조

【 1958년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 2008년 방추형 인구구조로 변화 】

1958년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유형으로 다산다사형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 유·소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큰 것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출산기피에 따라 출생률이 낮아 인구 정체 및 감소의 형태를 띠는 방추형 인구구조를 보인다. 이는 유·소년층의 인구비율이 낮고, 청·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 경제활동인구 부족 및 노령화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단위 : 명, %)

연도	0~9세	구성비	10~19세	구성비	20~29세	구성비	30~39세	구성비	40~49세	구성비	50~59세	구성비	60세이상	구성비
1958	52,141	28	44,442	24	26,152	14	25,095	14	18,410	10	10,637	6	6,694	4
1970	107,783	27	112,031	28	64,288	16	53,318	13	34,845	9	23,338	6	13,885	3
1980	187,059	29	208,314	32	163,198	25	101,543	16	50,187	8	22,060	3	19,655	3
1990	178,220	17	217,634	20	208,471	20	178,758	17	112,198	11	75,153	7	91,650	9
2000	212,286	15	217,328	16	253,038	18	263,440	19	212,983	15	114,548	8	116,887	8
2008	165,615	11	223,688	15	233,200	16	262,521	18	262,761	18	175,802	12	171,461	11

※ 주 1980년 이전 외국인 제외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인구동태(출생,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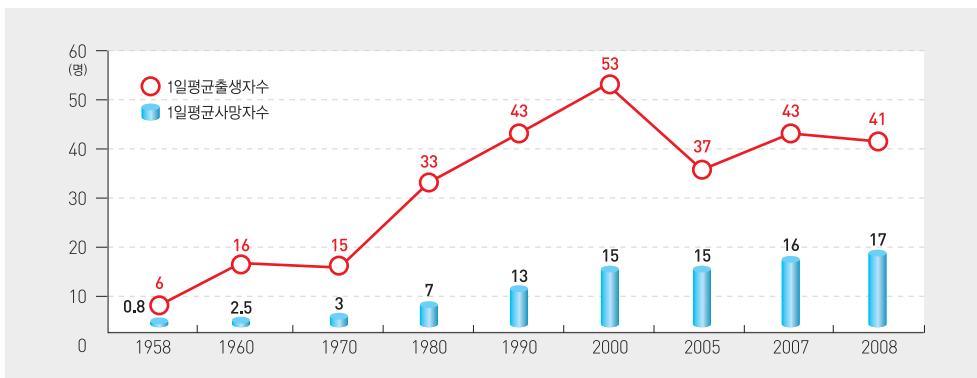
【 2008년 현재 1일 41명 출생, 출생성비 106.8로 성비균형 개선 】

1958년에 비해 출생은 2,338명에서 14,856명으로 6.7배 증가하였으며, 1일평균출생아수도 6명에서 41명으로 증가하였다.

1989년 직할시 승격 이후의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아 출산시의 모(母) 평균나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 빈도증가와 비례하여 25.7세에서 29.3세로 3.6세 높아졌으며, 출생성비의 경우는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수가 1989년에는 122.8명임에 반해 현재는 106.8명으로 20여년 전에 비해 출생아 성비균형이 이루어 졌음을 볼 수 있다.

1958년에 비해 사망은 290명에서 6,105명으로 20.5배 증가하였으며, 1일평균사망자수도 0.8명에서 1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9년 이후 평균사망연령을 남여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989년 54.8세에서 63.9로 9.1세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1989년 63.4세에서 71.9세로 8.5세 증가하였다.



연도	출생(명)			연도	사망(명)		
	연간	1일	직할시 이후 출생 현황		연간	1일	2000년 이후 기대 수명 ³⁾
1958	2,338	6		1958	290	0.8	
1960	5,973	16	연도	1960	899	2.5	연도
1970	5,568	15	평균 출산연령 (세) ¹⁾	1970	1,233	3	남(세)
1980	12,817	33	출생성비 각	1980	2,672	7	여(세)
1990	15,817	43	1995	1995	4,711	13	
2000	19,402	53	2000	2000	5,751	15	
2005	13,861	37	2005	2005	5,742	15	
2007	15,705	43	2007	2007	5,949	16	
2008	14,856	41	2008	2008	6,105	17	

주1) 첫째아 출산시 주2)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수

주3) 추계자료임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통계청『인구동향조사』

01 일반현황

인구동태(결혼,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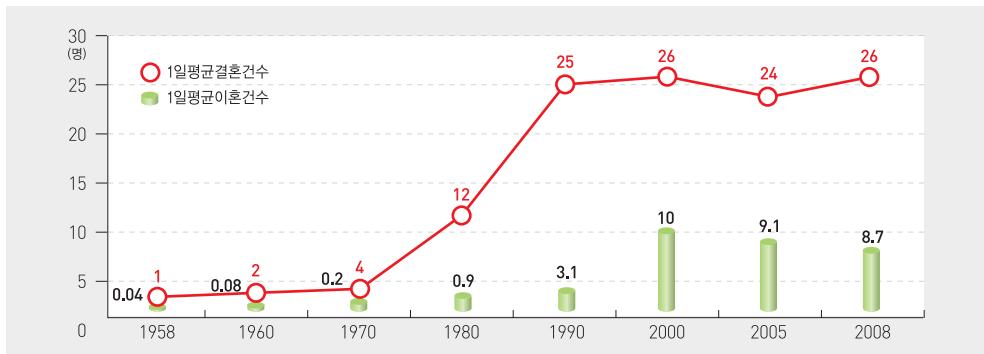
【 1958년에 비해 결혼 28배 증가, 이혼 216배 증가】

1958년에 비해 결혼은 335쌍에서 2008년 9,499쌍으로 28.4배 증가하였고, 1일평균 결혼건수도 1958년 1쌍에서 26쌍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남자 27.7세, 여자 24.9세로 25세 전후반에서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취업난에 따른 늦깎이 사회 초년생 증가와 여성 사회 진출에 따른 골드미스라는 사회적 현상 등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평균적으로 남자 31.1세, 여자 28.4세로 각각 3.4세, 3.5세 증가하였다.

1958년에 비해 이혼은 15쌍에서 2008년 3,236쌍으로 216배 증가하였고, 1일평균 이혼건수도 1958년 0.04쌍에서 8.7쌍으로 크게 증가했다.

동거기간별 이혼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동거기간 10년 미만의 이혼건수가 전체 이혼의 64%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황혼 이혼 등 사회적 현상과 같이 20년 이상의 부부 이혼이 전체 이혼의 23%를 차지한다.



연도	결혼(건)			연도	이혼(건)		
	연간	1일	평균 초혼 연령		연간	1일	동거기간별 구성비(%)
1958	335	1	연도 남(세) 예(세)	1958	15	0.04	연도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1960	690	2	1990 27.7 24.9	1960	30	0.08	1990 64 31 5
1970	1,490	4	1995 28.1 25.4	1970	91	0.2	1995 57 34 9
1980	4,470	12	2000 29.9 26.3	1980	315	0.9	2000 51 35 14
1990	9,025	25	2005 30.5 27.7	1990	1,127	3.1	2005 47 35 19
2000	9,664	26	2008 31.1 28.4	2000	3,653	10.0	2008 45 32 23
2005	9,035	24		2005	3,328	9.1	
2008	9,499	26		2008	3,236	8.7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통계청『인구동향조사』

888 【 지방자치 】



30 공공행정

35 의회

38 교육

42 통신

02 지방자치

공공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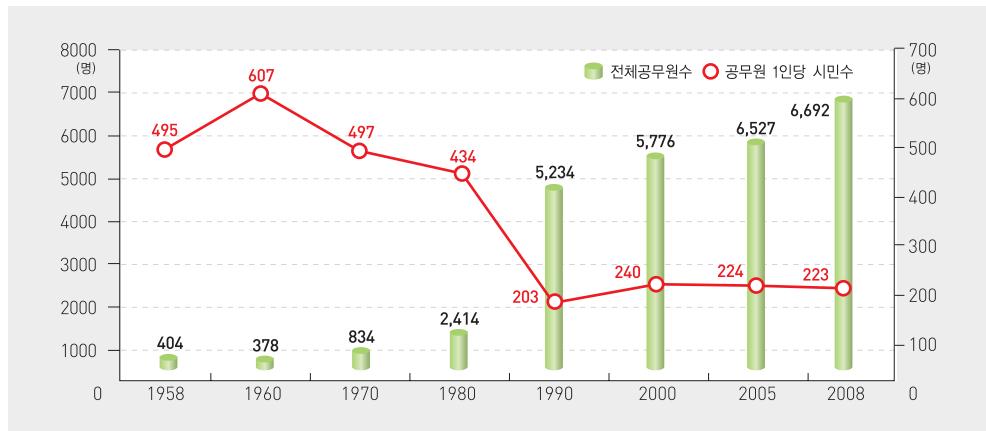


공무원

【 공무원 수는 1959년 404명에서 2008년 6,692명으로 17배 증가 】

대전시의 공무원 총수는 1959년 404명에서 2008년 6,692명으로 16.6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소방공무원은 1958년 당시 43명에서 2008년 991명으로 21.2배 증가하였다.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1959년 495명에서 2008년 223명으로 감소하여 대 시민 공공서비스 공급기반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합계	본청	의회, 시업소 직속기관	구(출장소)	동	소방서	공무원 1인당시민수
1958	404	144	-	-	217	43	495
1960	378	150	-	-	179	49	607
1970	834	355	60	-	331	88	497
1983	2,414	596	321	525	832	140	434
1990	5,234	737	1,136	1,801	1,199	361	203
2000	5,776	864	1,024	2,491	718	679	240
2005	6,527	980	1,142	2,770	872	763	224
2008	6,692	1,082	1,039	2,746	834	991	223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시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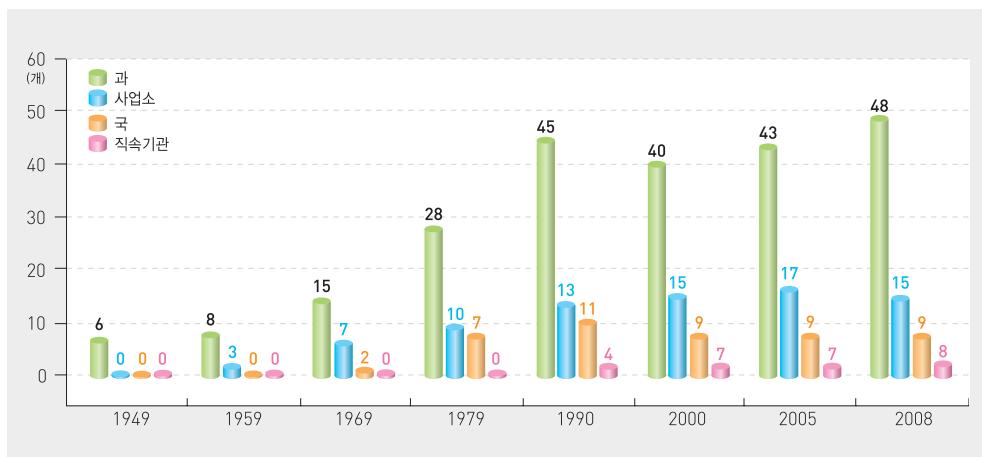
조직

【 1949년도 대전시 출범 당시 조직은 6과로 출발 】

조직은 1949년 6과에서 직할시 승격 직후인 1990년의 11개국, 45개과, 13개 사업소로 조직의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1992년도의 작은정부 이후로 조직규모가 다소 축소되어 2008년 현재는 9개국, 48개과, 15개 사업소 구성되었다.

2008년기준 9개국은 1실, 1본부, 7개국으로 구성되며, 직속기관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및 소방서(5)을 포함하여 8개로 구성된다.

사업소의 경우 1959년 3개 사업소에서 2005년 17개로 확대되었으나, 지하철건설본부 등이 없어지고 2008년 15개로 축소되었다.



연도	국	과	직속기관	사업소
1949	-	6	-	-
1959	-	8	-	3
1969	2	15	-	7
1979	7	28	-	10
1990	11	45	4	13
2000	9	40	7	15
2005	9	43	7	17
2008	9	48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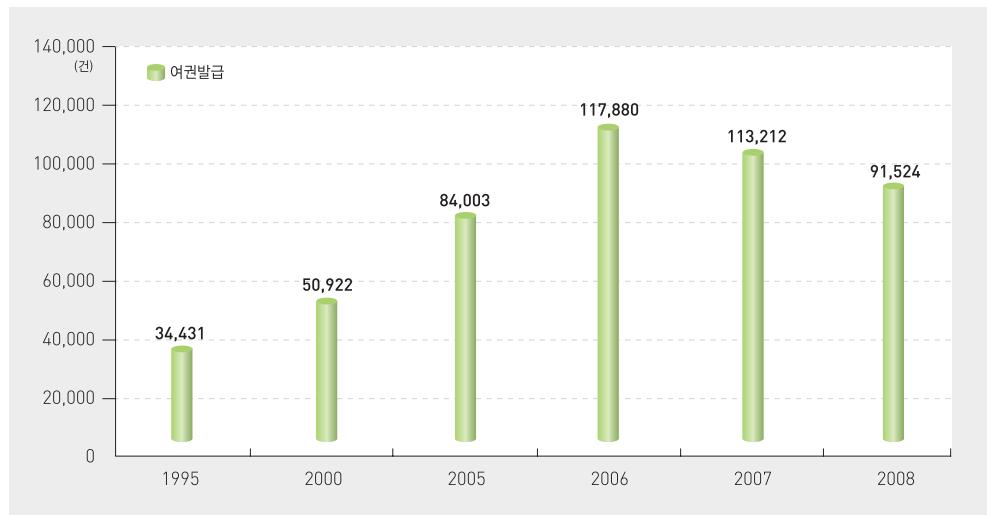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시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02 지방자치

여권발급

【 1990년도부터 외교통상부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시 여권발급업무 시작 】

여권 발급은 1995년 34,431건 이었으나, 해외여행 및 학생 어학연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여권발급이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3배 증가한 117,880건으로 최대 정점을 이루었고, 이후 여권발급은 기발급자(5년, 10년)들의 누적 및 최근의 경기침체 등에 따른 해외여행 감소 등으로 여권발급 건수가 감소하여 2008년 91,524건을 기록하였다.



연도	합계	거주	목적별일반	여행증명	1년다수	기간별 ¹⁾	
						5년복수	10년복수
1995	34,431	1	34,427	3	-	-	-
2000	50,922	61	50,855	6	13,974	32,784	4,164
2005	84,003	83	83,918	2	23,778	47,347	12,878
2006	117,880	87	117,793	-	17,369	45,155	55,356
2007	113,212	109	113,096	7	13,231	39,349	60,632
2008 ²⁾	91,524	132	90,843	4	10,361	25,519	55,644

주1) 일반여권의 기간별 여권발급건수

주2) 전체합계는 관용 545건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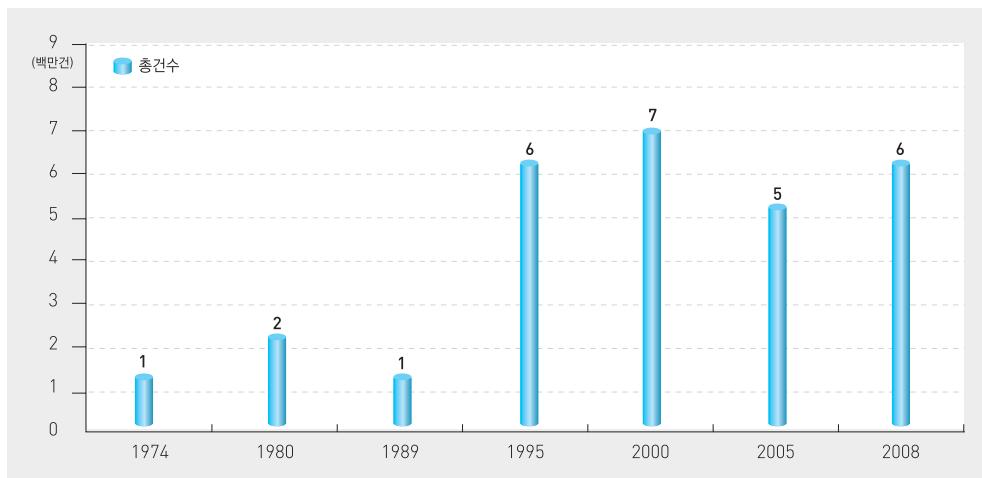
민원서류처리

【민원서류처리건수는 1974년 76만 건에서 2008년 552만 건으로 7배 증가】

시민의 행정서비스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원서류처리 총건수는 1974년 76,047건에서 2008년 7.3배 증가한 5,515,872건을 처리하였고,

가장 많은 민원은 증명발급으로 1974년 708,837건에서 2008년 4,995,191건으로 7배 증가하였으며, 인·허가는 28,615건에서 22,300건으로 1.2배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 통제에서 자율신고체제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총건수가 7,475천 건에서 2008년 5,516천 건으로 26%가 감소된 것은 민원서류 처리시 인터넷 및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 건)

연도	총건수	인·허가	증명발급	각종신고	기타민원
1974	760,467	28,615	708,837	0	23,015
1980	1,755,525	25,231	1,515,843	30,422	184,029
1989	1,417,054	31,455	1,369,778	1,343	14,478
1995	6,003,621	88,895	5,206,119	643,843	64,773
2000	7,474,654	32,004	6,466,707	918,156	57,787
2005	5,428,006	24,831	5,046,853	333,331	22,991
2008	5,515,872	22,300	4,995,191	415,075	83,306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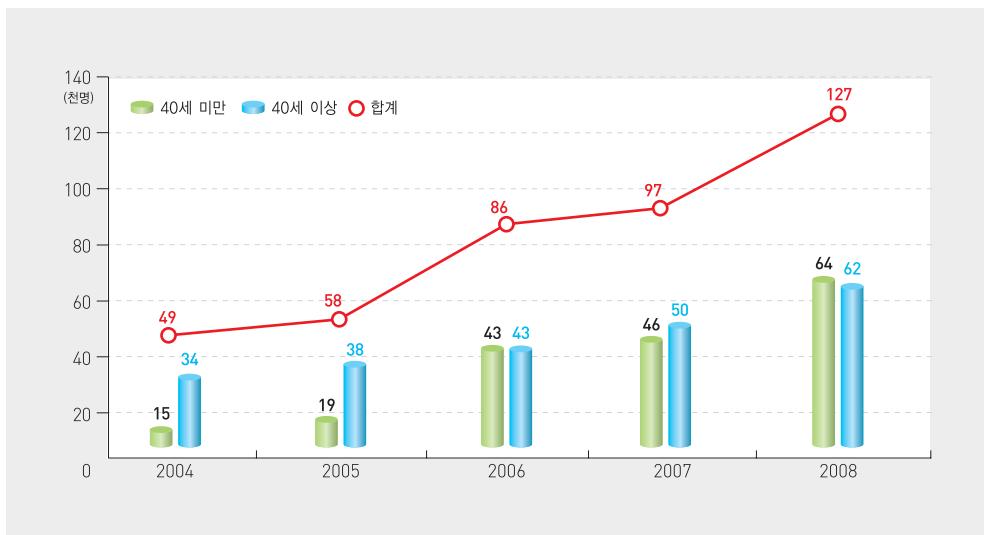
02 | 지방자치

자원봉사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2004. 8. 13) 제정 및 자원봉사센터 설립으로 자원봉사자 효율적 관리】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우수자원봉사자를 확보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를 보면 2008년 기준 40~49세가 2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9세 이하가 22.4%, 50~59세가 15.0%, 30~39세가 14.5%, 20~29세가 14.1%,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11.2%를 이룬다.

19세 이하 자원봉사자의 경우 2004년 367명에서 2008년 28,374명으로 77배에 달하는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데, 이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학생부에 반영되는 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	계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2004	48,599	367	9,383	5,105	12,209	11,288	10,247
2005	57,524	533	12,495	6,378	14,360	12,586	11,172
2006	85,916	11,582	19,870	11,811	19,096	13,361	10,196
2007	96,520	17,299	13,316	15,871	23,459	15,569	11,006
2008	126,657	28,374	17,707	18,393	29,020	19,005	14,158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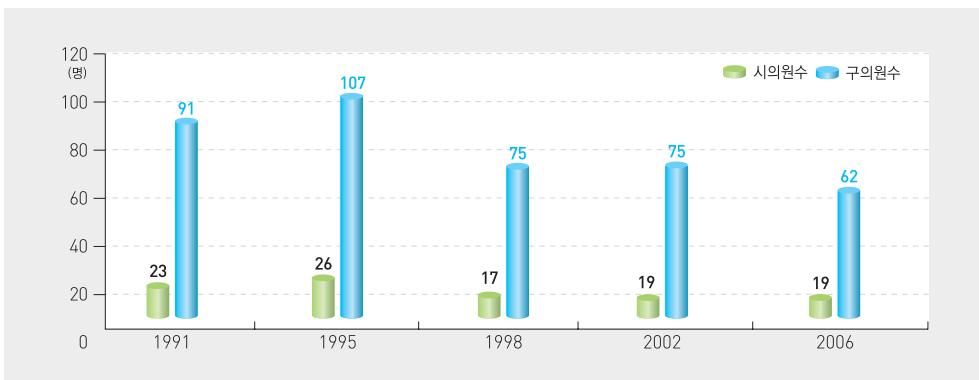
의원수

【 1952년 6개 선거구에서 현재 16개 선거구 4배 증가】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3대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1961년 지방자치가 중단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전면적으로 해산하였고,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1991년 6월 20일 광역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해방 후 최초 지방자치가 실시된 1952년에는 6개 선거구, 22명의 의원으로 출발하였고, 1991년 지방자치가 재실시 될 때에는 선거구가 23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의원수는 23명으로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

1991년 제1대에는 광역자치단체 선거구는 23개, 기초 자치단체 선거구는 78개로 출범하였고, 2006년 제5대부터 선거구 조정에 의하여 광역선거구 16개, 기초선거구 43개로 조정되었다.



연도	시		구									
	선거구	의원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선거구	의원수								
1991(1대)	23	23	24	28	25	27	10	15	8	8	11	13
1995(2대)	23	26	25	29	25	27	16	27	8	9	11	15
1998(3대)	14	17	21	19	17	17	21	21	7	7	11	11
2002(4대)	16	19	21	18	16	17	21	21	6	7	12	12
2006(5대)	16	19	9	13	4	11	20	20	7	8	3	10

※ 최초지방자치 1대(52년) 22명, 2대(56년) 18명, 3대(60년) 18명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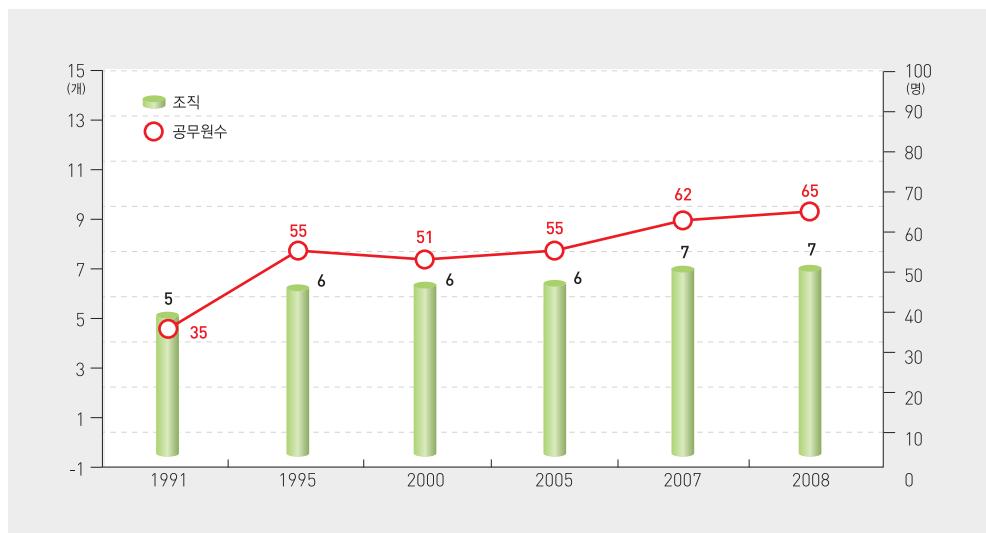
02 지방자치

의회조직 및 공무원

【 의회사무처 조직은 1991년도 5개 조직, 35명으로 출범 】

의회는 1991년 2담당관, 3전문위원실로 출범하여, 2008년 2담당관, 4전문위원실, 1입법정책실로 확대되었고, 특히, 의원입법활동 증가에 따른 입법정책실 신설로 의원 발의 법률개정이 점차 증가하였다.

사무처직원도 1991년 35명(5급이상 6, 6급이하 29)에서 2008년에는 85%증가한 65명(5급이상 14, 6급이하 51)이 의정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단위 : 개, 명)

연도	조직	공무원수		
		계	5급이상	6급이하
1991	5	35	6	29
1995	6	55	8	47
2000	6	51	7	44
2005	6	55[8]	13[6]	42[2]
2007	7	62[9]	13[7]	49[2]
2008	7	65[9]	14[7]	51[2]

주1) 2005년부터 별정직 구분()

자료 대전광역시「의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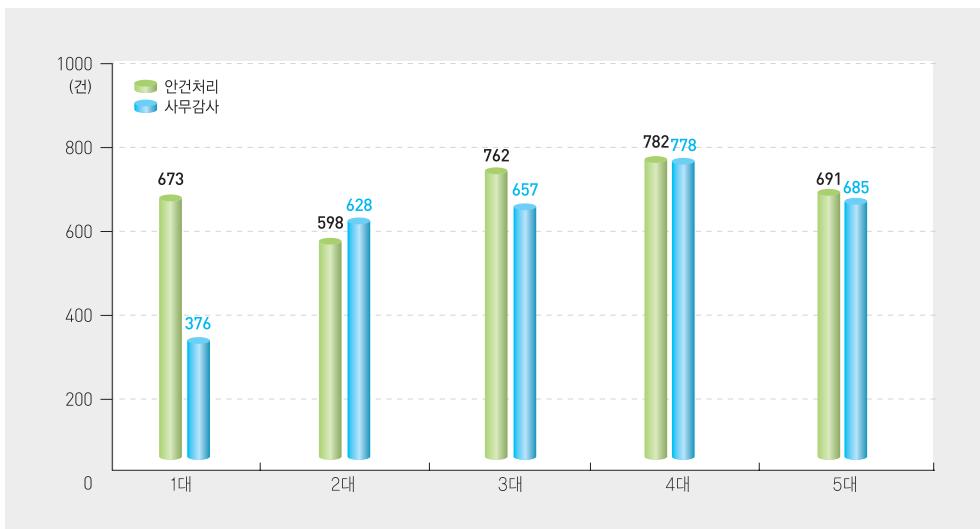
의정활동

【 안건처리는 1대 673건에서 5대 691건으로 2.7% 증가】

초대에는 의회 운영절차 등의 정착단계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폭넓은 의정 활동 증가로 안건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가 증가하였다.

안건처리는 1대에 673건에서 5대 691건으로 2.7% 증가되었고, 사무감사 지적건수도 1대 376건에서 5대 685건으로 82% 증가되었다.

회의운영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처리가 39%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졌으며, 그 외의 운영위원회에서도 회기일수 증가에 따라 의정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단위 : 일, 건)

연도	회기일수	안건처리	사무감사	회의 운영							
				계	본회위	운영위	행정자치	교육사회	산업건설	예결특위	
1991(1대)	430	673	376	574	108	40	108	104	114	100	
1995(2대)	339	598	628	426	73	26	95	89	95	48	
1998(3대)	489	762	657	680	101	31	159	155	161	73	
2002(4대)	468	782	778	567	97	28	128	114	130	70	
2006(5대)	345	691	685	485	34	23	114	105	111	68	

※5대임기 2006. 7. 1 ~ 2010. 6. 30까지

자료 대전광역시『의정통계』

02 지방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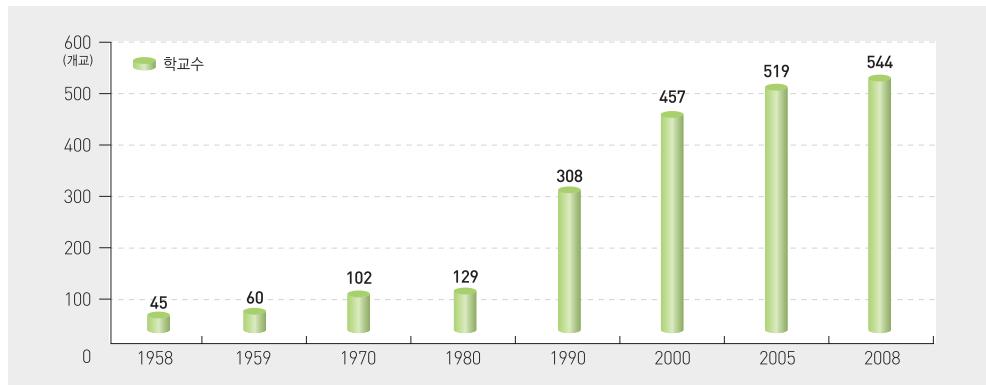
교육



학교수

【 1958년 대비 각각 초등학교 10배, 중·고등학교 6배, 대학교 3배 증가 】

1960년 이전 학교수는 유치원 8개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3개교,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 6개교, 기타학교 6개교에 불과하였으나,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발전으로 1958년 대비 2008년에는 유치원이 237개교, 초등학교가 9.9배 증가한 138개교, 중학교는 6.6배 증가한 86개교, 고등학교는 5배 증가한 60개교, 전문대학 포함 대학교는 3.2배 증가한 19개교로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교)

연도	합계 ¹⁾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기타
1958	45	-	14	13	12	2	4	-
1959	60	8	14	13	13	2	4	6
1970	102	14	29	23	15	5	4	12
1980	129	22	33	26	26	5	6	11
1990	308	123	80	47	40	5	8	5
2000	457	216	114	72	51	5	10	7
2005	519	224	129	84	59	6	13	4
2008	544	237	138	86	60	6	13	4

주1) 대학원수는 합계에 포함 안됨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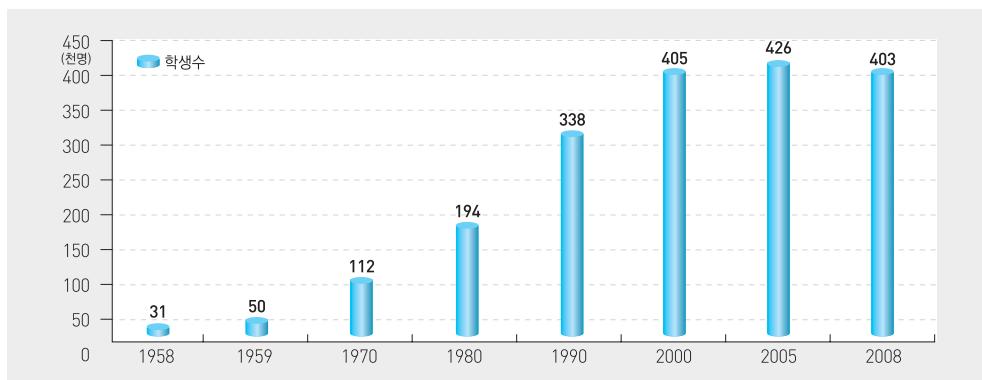
학생수

【 전체 학생수는 1958년 대비 12.9배 증가한 40만명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시행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더불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유치원생은 1959년 332명에서 2008년 21,491명으로 64.7배, 초등학생은 1958년 17,798명에서 2008년 120,881명으로 6.8배, 중학생은 6,118명에서 67,431명으로 11배, 고등학생은 5,749명에서 63,038명으로 10.9배, 대학생(전문대포함)은 1959년 1,863명에서 2008년 129,085명으로 69배 증가하여 명실상부 교육의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기록상 대전시의 가장 오래된 학교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당시 소학교)로는 대전원동초등학교(1906. 4월 설립)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는 1899. 12. 19일 호수돈여자중학교가 27개 학급, 1,454명의 학생으로 설립하였으며, 고등학교는 1937. 3. 31일 현재 위치(동구 대동) 그대로 대전여고가 36개 학급, 1,979명의 학생으로 설립되었고, 1952. 5. 20일 문리과학, 농과대학, 공과대학 등에 7개 학과를 설치한 충남대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대전시 교육의 기틀이 본격적으로 다져지게 된다.



연도	학생수 (명)							
1958	31,228	...	17,798	6,118	5,749	...	1,563	...
1959	49,927	332	31,368	8,742	7,313	70	1,793	309
1970	111,579	489	66,375	24,119	14,442	2,734	2,161	1,259
1980	193,515	1,397	86,441	37,490	40,202	6,963	18,313	2,709
1990	337,561	10,049	122,642	58,627	57,928	20,086	66,350	1,879
2000	404,538	20,081	128,927	59,423	61,636	40,378	92,273	1,820
2005	426,405	21,346	127,601	67,542	58,618	35,373	115,133	792
2008	402,711	21,491	120,881	67,431	63,038	23,069	106,016	785

주1) 대학원 학생수는 합계에 포함 안됨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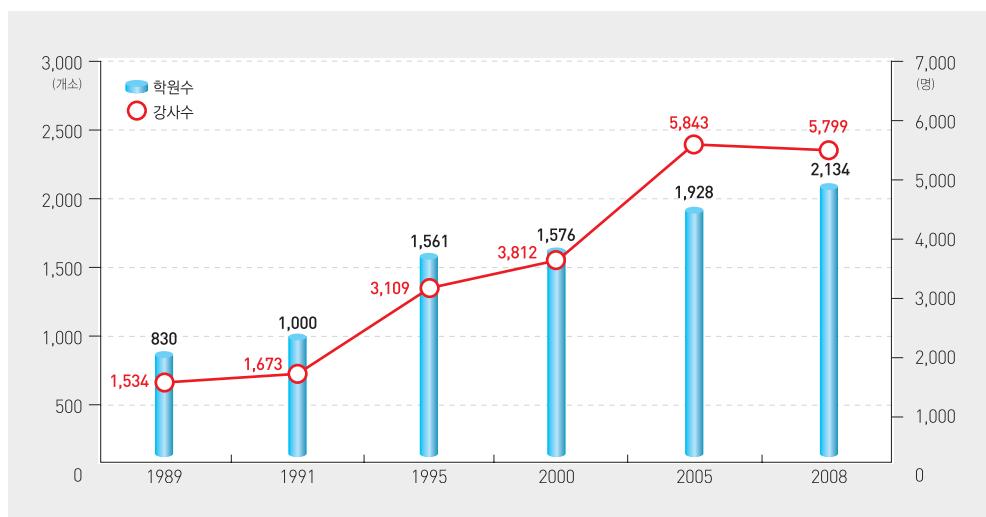
02 지방자치

사설학원

【 사설학원수 1991년 대비 2배 증가한 2,134 개소 】

1961년 사설강습소에 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무계획적, 무조직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설강습소에 대한 사회교육행정이 정상화 되었고, 이에 청소년 및 성인들은 직업기술 습득 및 외국어 교습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전 최초 1954. 5. 24에 「창신타이프」라는 최초 사설학원이 설립되었다.

1980년 교육개혁이후, 재학생의 사설학원 출입이 규제되면서 사설강습기관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후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다시 완화되어 매년 급증하고 있어, 1989년 830개소, 44,966명 학원 현황이 2008년에 들어서는 3배 증가한 2,134개소, 132,349명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 건)

연도	학원수 ¹⁾						수강자수	강사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989	830	226	285	183	30	106	44,966	1,534
1991	1,000	272	289	251	32	156	49,981	1,673
1995	1,561	336	442	449	71	263	77,005	3,109
2000	1,576	100,757	3,812
2005	1,928	278	384	691	248	327	127,003	5,843
2008	2,134	259	384	809	367	315	132,349	5,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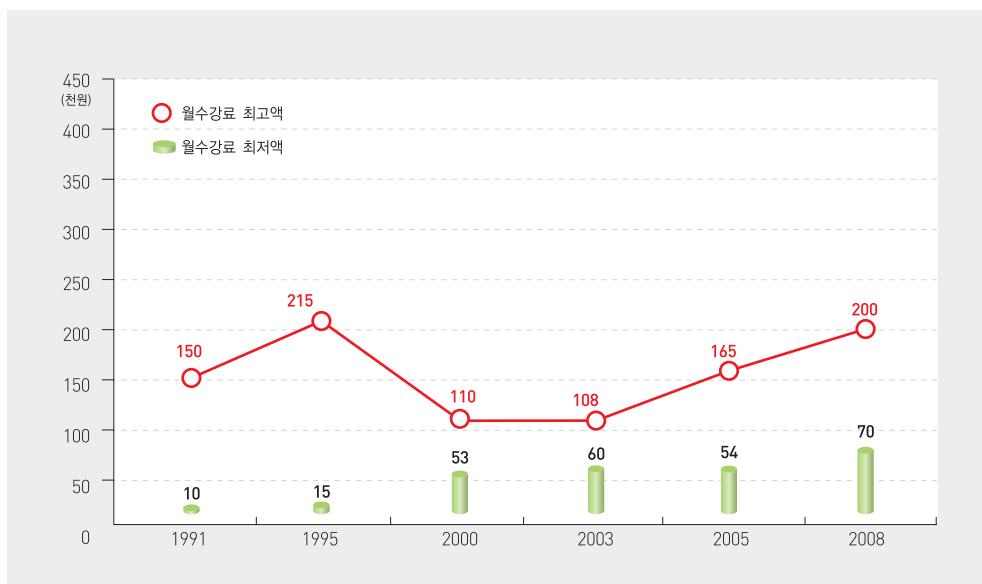
주1) 2000년기준 구별 학원수 통계는 미 발표로 데이터 없음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교육통계연보』

사교육비

【 사설학원 월수강료 최고액기준 1.3배 증가 】

사설학원 월수강료는 1991년 최고 15만원, 최저 1만원에서 2008년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7만원으로 최고액기준 1.3배 증가하였고, 최저액기준 7배 증가하였다.

최고액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 학원분야는 인문사회계열로 1991년 대비 2.9배 증가하였으며, 최소액기준으로도 인문사회계열 학원의 월 수강료가 1991년 대비 9배 증가한 135천원을 기록하였다.



연도	월수강료		인문사회		예체능		직업기술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1991	150	10	70	15	100	10	150	20
1995	215	15	210	15	215	20	200	20
2000	110	53	107	86	67	58	110	61
2003	108	60	96	79	73	61	108	66
2005	165	54	197	135	77	61	150	93
2008	200	70	200	135	97	70	140	93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대전광역시교육청」

02 지방자치

통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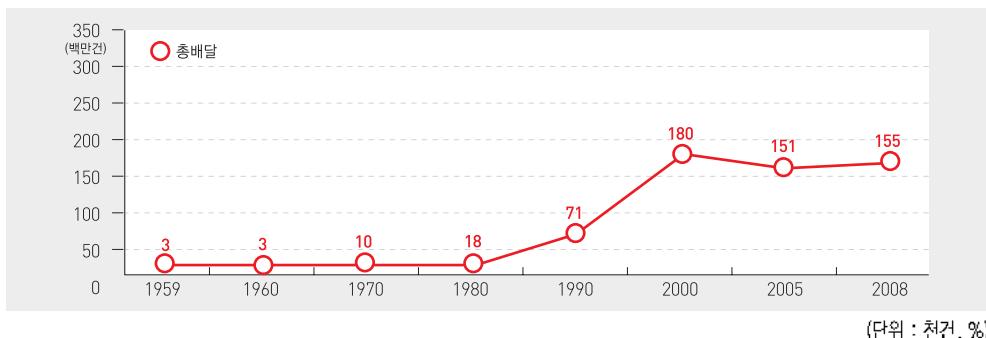
우편물 취급

【 1910년대비 접수는 306배, 배달은 282배 증가】

대전지역에는 1904. 6. 1. 대전역 구내에 일본우편수취소가 설치되었으며, 1905. 5. 31. 회덕에 임시우체소가 설치되었다가 1906. 12. 1. 회덕우체국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06. 12. 31. 태전우편수취소가 폐지되고 태전우편국으로 개칭되었으며, 1908. 4. 1. 대전우체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때는 평균적으로 하루 한건이하의 접수가 이루어 졌다.

이후 대전우체국이 1950. 10. 25.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중동으로 이전하였다 다시 현재의 원동 청사로 신축후 대전의 우편업무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1959년 하루 평균 9건 접수와 배달하던 수준에서 2000년에서는 하루 304건 접수, 492건 배달을 기록하였다.

e-mail 발달과 기타 소포업의 발달 등으로 2000년 이후 우편접수 및 배달건수가 차츰 줄어들었으며, 접수보다는 타 지역으로부터 접수된 우편물을 배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예전과 다르게 개인간의 우편이용 보다는 기업의 DM 발송 및 물류택배 이용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총계				국내우편			국제우편			국제우편 비중
	접수	1일평균접수	배달	1일평균배달	합계	접수	배달	합계	접수	배달	
1910	315	0.9	549	1.5	864	315	549	-	-	-	-
1916	186	0.5	872	2.4	1,059	186	872	-	-	-	-
1959	3,288	9	3,307	9	6,578	3,276	3,302	17	12	5	0.25
1960	2,073	6	2,630	7	4,686	2,066	2,620	16	6	10	0.33
1970	9,859	27	9,892	27	19,541	9,778	9,763	210	81	129	1.06
1980	19,666	54	18,390	50	37,717	19,472	18,245	339	194	145	0.89
1990	55,864	153	70,999	195	125,446	55,236	70,210	1,417	628	789	1.12
2000	111,028	304	179,630	492	289,588	110,721	178,867	1,071	307	763	0.36
2005	98,871	270	151,043	413	249,426	98,595	150,831	488	276	212	0.19
2008	96,274	264	155,055	425	250,873	96,010	154,863	456	264	192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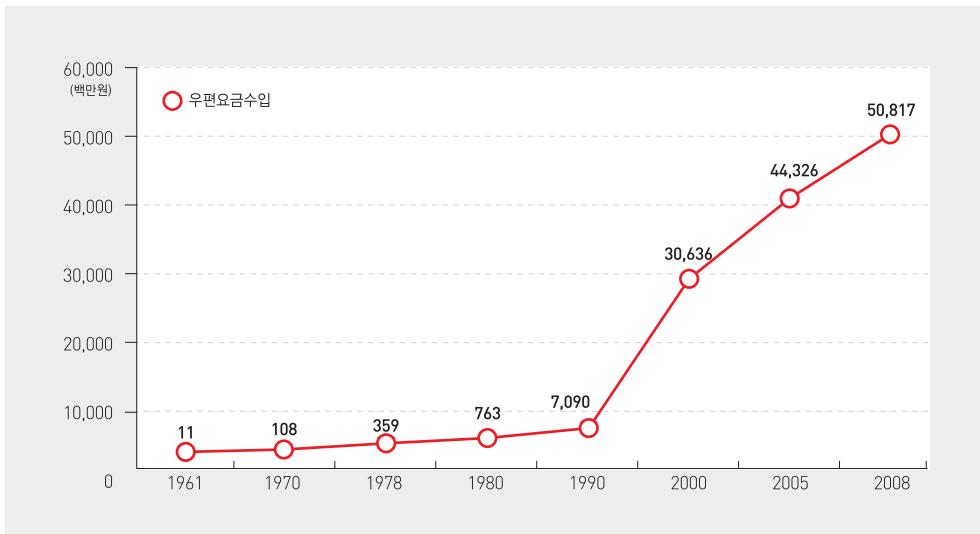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우편요금수입

【 우편요금 총수입은 1961년 11,316천원에서 2008년 508억원으로 4,491배 증가】

연간 국내우편요금 수입은 1978년 47,442천원에서 2008년 46,527,777천원으로 980배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으로는 130천원에서 127,473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제우편요금수입은 1978년 6,253천원에서 2008년 4,289,691천원으로 686배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17천원에서 11,752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 천원)

연도	합계	국내		국제		1일평균
		1일평균	1일평균	1일평균	1일평균	
1961	11,316	31	-	-	-	-
1970	107,566	295	-	-	-	-
1978	358,994	984	47,442	130	6,253	17
1980	762,623	2,089	130,227	357	11,780	32
1990	7,090,126	19,425	6,217,181	17,033	855,912	2,345
2000	30,635,840	83,933	28,657,428	78,513	1,978,412	5,420
2005	44,325,683	121,440	40,649,084	111,367	3,676,599	10,072
2008	50,817,468	139,225	46,527,777	127,473	4,289,691	11,752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충청체신청』

02 지방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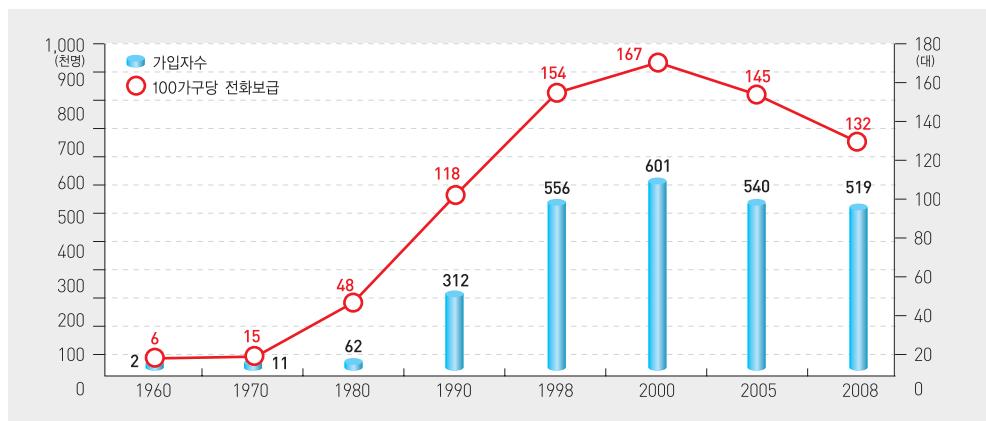
전화가입자수

【 1959년 대비 전화가입자수 123배 증가 】

1908. 6. 1. 경성-대전간 전선이 개통되어 1910. 5. 6. 대전우체국에서 최초로 전신업무를 취급하였고, 이때, 전화기수는 111대며 통화도수는 30,143건, 호출청구는 278건이었다.

전화가입수는 1959년 총 4,222대로 업무용이 2,783대 가정용이 1,439대였으며, 이후 전신전화시설 및 업무가 1982. 1. 1.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으로 이관된 후 크게 증가하여 1989년 대전, 서대전, 신탄진 전화국의 자동식전화기 시설수는 308,400대로 당시 가입자가 268,463대였으며 수용률이 87%를 웃돌았다.

전화가입자수는 직할시 승격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0년 가입자가 60만명을 돌파하였으나, 이후 휴대폰 보급 확대에 따라 일반전화가입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단위 : 명, 대)

연도	가입자수			공중용	100인당 전화보급	100가구당 전화보급
	계	업무용	가정용			
1959	4,222	2,783	1,439	3
1970	11,270	6,108	5,162	125	3	15
1980	61,961	23,197	38,764	1,397	10	48
1990	311,575	53,618	257,957	5,737	29	118
1998	555,568	163,894	391,674	14,145	41	154
2000	601,203	184,542	410,170	15,747	43	167
2005	540,498	138,302	395,143	7,676	37	145
2008	519,473	173,768	345,705	4,655	35	132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KT충남본부』

【 지역경제 】



46	지역내총생산
50	사업체
54	대덕특구
57	노동
60	에너지
64	무역
65	농업
71	유통·물가

지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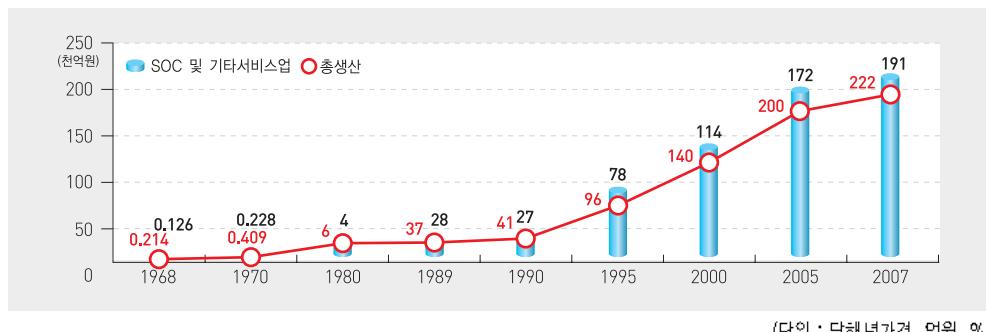
지역내총생산(GRDP)

【 지역내총생산규모는 22조원으로 1968년 214억원에 비해 1,037배 증가 】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정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생산물의 합계(부가가치의 합)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당시의 지역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GRDP를 통해 살펴보면 대전은 생산도시 보다는 소비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1970년 55.5%에서 2007년 85%로 제조업의 비중이 큰 인근의 충남, 충북에 비해 서비스업에 산업이 집중됨을 볼 수 있다.

1968년 대비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농림업 9억원, 광공업 79억원, SOC 및 기타서비스업 126억원을 합해 214억원이었으나, 이 후 성장을 거듭하여 2007년에는 농림업이 56.4배 증가한 508억원, 광공업이 383배 증가한 3조 258억원, SOC 및 기타 서비스업이 1,517배 증가한 19조 1,092억원으로 총 생산액은 1,037배 증가한 22조 1,858억원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전국대비 대전 총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1968년은 1.3% 수준이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2.3%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도	대전				전국 총생산	전국대비 차지비중
	총생산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II}		
1968	214	9	79	126	15,980	1.3
1970	409	12	169	228	25,892	1.6
1980	5,939	88	1,941	3,910	343,216	1.7
1989	37,419	642	8,890	27,889	1,616,926	2.3
1990	40,779	656	12,907	27,216	1,771,143	2.4
1995	95,595	591	17,187	77,818	1,011,300	2.3
2000	140,083	659	25,343	114,081	6,037,331	2.3
2005	200,299	569	28,213	171,517	8,693,046	2.3
2007	221,858	508	30,258	191,092	9,830,303	2.3

주1) 순생산물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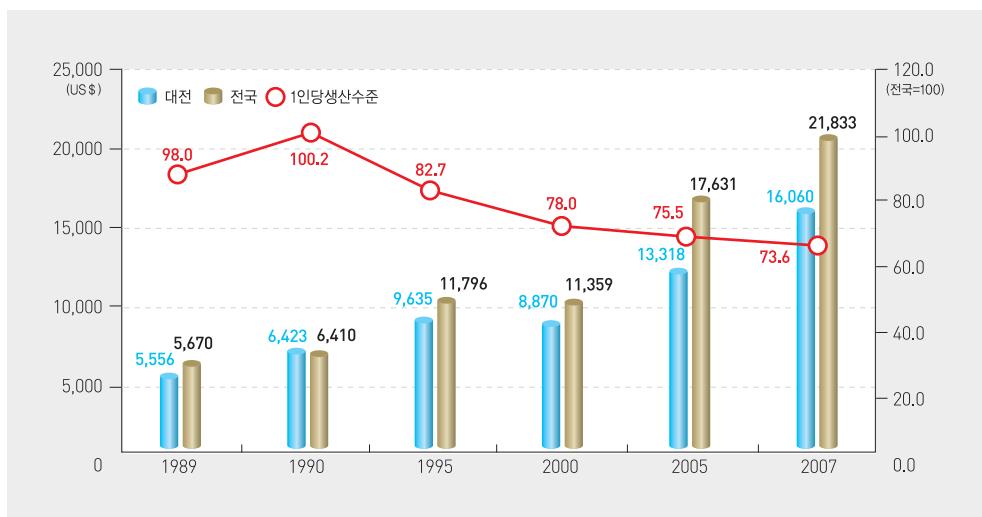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1인당 생산수준

【 1인당 GRDP는 1989년 373만원에서 2007년 1,492만원으로 300% 증가】

지역내총생산을 대전지역 추계인구로 나눈 지표인 대전시의 1인당 GRDP는 1989년 373만원 수준에서 300% 증가한 2007년 1,492만원으로 큰 증가폭을 보이며, 1인당 생산수준(전국=100)은 1989년도 98.0에서 25% 감소한 2007년 73.6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달러기준으로 1995년 1인당 생산수준 1만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었으나, 1997년말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2000년 1인당 생산수준이 소폭 감소하여 1인당 생산수준이 8천 달러로 하락하였으나, 위기 극복 후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2007년 1인당 GRDP가 1만 달러가 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연도	대전(A)		전국(B)		전국과의 차이 (천원) (A-B)	생산수준 (전국=100)
	천원	달러	천원	달러		
1989	3,730	5,556	3,807	5,670	-77	98.0
1990	4,547	6,423	4,538	6,410	9	100.2
1995	7,429	9,635	9,095	11,796	-1,666	82.7
2000	10,028	8,870	12,843	11,359	-2,815	78.0
2005	13,641	13,318	18,059	17,631	-4,418	75.5
2007	14,923	16,060	20,287	21,833	-5,364	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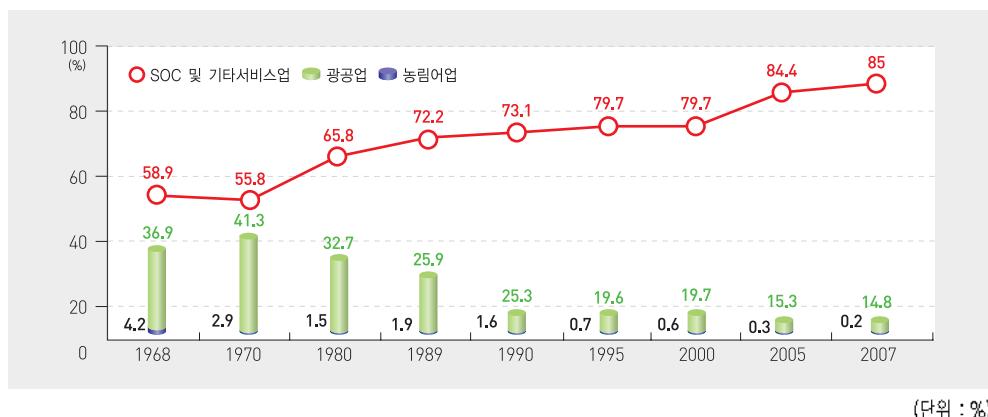
주) 환율은 연평균 기준환율 적용
인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이용
자료 통계청『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산업구조

【 SOC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룸 】

농림어업의 구성비는 1968년 4.2%에서 2007년 0.2%로 4.0%p 하락했으며, 광공업도 36.9%에서 14.8%로 22.1%p 크게 하락한 반면, SOC 및 기타 서비스업의 구성비는 1968년 58.9%에서 2007년 85.0%로 크게 증가하여 대전은 1·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업 중심도시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오늘날 대전의 가장 중심 산업활동이 되는 「SOC 및 기타 서비스업」이 100일 경우 경제활동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13.0%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사업서비스업 1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11.8% 순으로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대전의 주요 경제활동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단위 : %)

연도	SOC 및 기타 서비스업(100) 경제활동별 구성비 ²⁾			
	전산업 ¹⁾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 서비스업
1968	100.0	4.2	36.9	58.9
1970	100.0	2.9	41.3	55.8
1980	100.0	1.5	32.7	65.8
1989	100.0	1.9	25.9	72.2
1990	100.0	1.6	25.3	73.1
1995	100.0	0.7	19.6	79.7
2000	100.0	0.6	19.7	79.7
2005	100.0	0.3	15.3	84.4
2007	100.0	0.2	14.8	85.0

주1) 1989년 이후 기초가격기준 산업구성비

주2) 2007년 기준

자료 통계청『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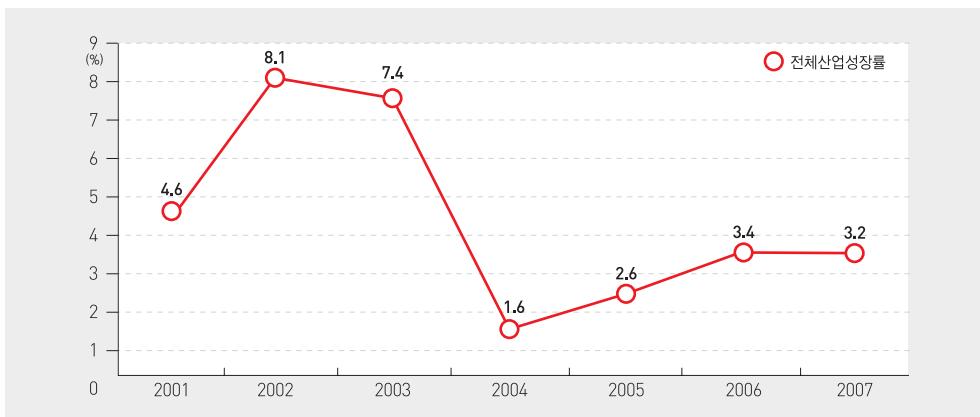
경제성장률

【 서비스업 분야의 꾸준한 경제 활동이 대전의 전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함 】

1989년까지 직할시 승격직후 건설업 및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같은 사회기반시설관련 분야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10여년 이후인 2001년에는 전체 4% 이상의 산업성장을 기록하였고, 2002년에는 도심개발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산업 경제 활성화로 당시 경제성장률이 8% 이상이 되었다.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농업은 전체적으로 성장 감소 추세에 놓여 있으며, 서비스업은 증가 폭에 만 차이가 있을 뿐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대전의 경제활동 균간을 이룬다.

2007년 기준 전년대비 경제성장을 살펴보면, 건설업(-15.4%), 농림어업(-2.2%) 등은 감소하였으나, 광공업(3.5%)과 전기·가스·수도사업(4.0%), 서비스업(4.8%)이 각각 3% 이상 성장하였기에, 대전의 전체 산업에 있어 3.2% 성장을 이루었다.



(단위 : 2005=100, %)

연도	산업전체 ¹⁾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및 기타
2001	4.6	4.6	6.8	12.8	-4.1	3.3
2002	8.1	-1.3	4.1	5.1	3.7	6.6
2003	7.4	-11.0	4.4	-4.0	20.2	6.7
2004	1.6	-0.5	2.0	15.0	-2.4	1.4
2005	2.6	-0.5	-1.9	-6.2	-2.6	5.4
2006	3.4	-11.7	5.6	2.0	-3.8	4.1
2007	3.2	-2.2	3.5	4.0	-15.4	4.8

주1) 2001년~2007년 산업전체 성장률은 연쇄지수 방식 적용, 산업별은 고정지수 적용
2001년 이전 자료는 기준년 개편작업(2009년말 예정) 미완료로 2001년 자료부터 사용
자료 통계청『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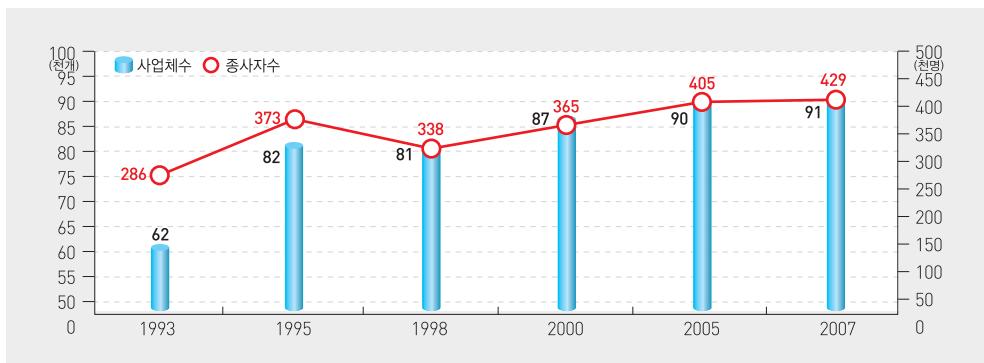
사업체 현황

【 1993년대비 개인사업체 37.5% 증가, 회사법인사업체 182.4% 증가 】

2007년말 대전의 사업체수는 91,097개로 1993년 대비 47.2%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429,296명으로 1993년 대비 50.0% 증가하였다. IMF 구제금융 위기로 인한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사업체수가 1998년에 8만개 수준으로 전년대비 -4.9%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부터 경기호전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2005년 9만개 이상의 사업체 기록을 달성하였다.

조직형태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90% 이상을 개인사업체에 의존하는 1993년도에 비해 2007년에는 회사법인사업체의 비중도 크게 늘어 현재는 8천개 가량의 회사법인사업체가 존재하며, 재단 및 사단법인과 같은 회사이외법인 및 후원단체와 같은 비법인단체의 규모도 5천개 이상의 사업체 규모를 이룬다.

업종별 사업체수 비율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7.6%로 가장 우위를 차지하며,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이 18.8%로 그 뒤를 이룬다. 이와 같이 대전은 도·소매업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1989년 직할시 승격 당시에도 전체 사업체수는 18,564개, 종사자수는 47,788명 이었는데, 이 중 도매업이 9.8%, 소매업이 90.2%로 사업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단위 : 개, 명, %)

연도	사업체수	증가율	종사자수	개인사업체	구성비	회사법인	구성비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1993	61,881	-	286,109	56,638	91.5	2,801	4.5	1,700	742
1995	82,490	33.3	372,754	74,463	90.3	4,359	5.3	2,126	1,542
1998	81,181	-1.6	338,025	72,936	89.8	4,215	5.2	1,839	2,191
2000	86,832	7.0	365,389	77,300	89.0	5,207	6.0	1,991	2,334
2005	90,366	4.1	405,311	78,236	86.6	7,158	7.9	2,411	2,561
2007	91,097	0.8	429,296	77,864	85.5	7,911	8.7	2,471	2,851

자료 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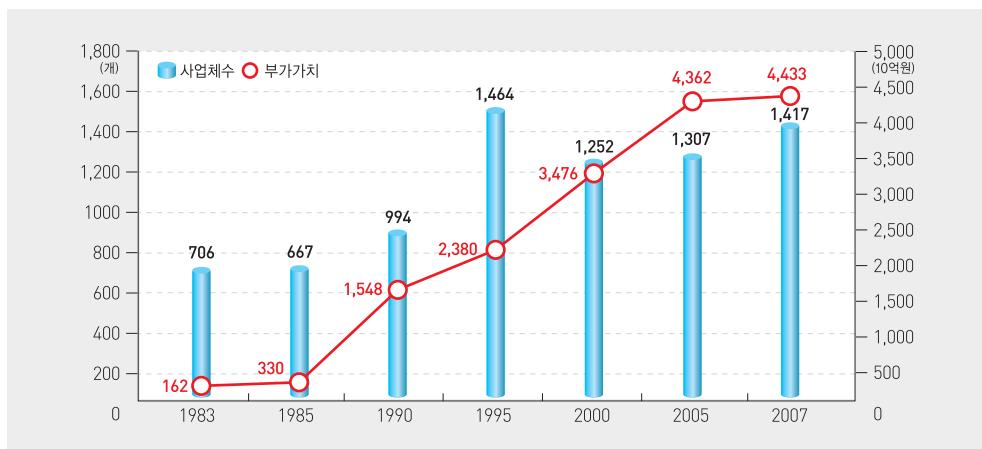
제조업생산

【 제조업생산에 따른 부가가치는 1983년에 비해 27배 증가 】

제조업부문은 1983년 사업체수 706개, 종사자수 21,048명, 생산액 4,639억원에서 2007년 사업체수 1,417개, 종사자수 36,875명, 생산액 78,033억원으로 제조업 생산규모가 크게 증가 하였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대전시 제조업의 산업분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타이어등과 같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18.3%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13.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12.0%, 「담배제조업」이 10.3%를 이루며 나머지 제조업 분류는 10% 이하의 규모를 가진다.

구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 대덕구 702개(49.5%), 유성구 315개(22.2%), 동구 202개(14.3%), 서구 119개(8.4%), 중구 79개(5.6%)로 구성되며,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덕구가 78.4%, 유성구가 16.1%로 제조업 산업의 경우 전체 중 95% 정도가 대덕구와 유성구에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개, 명, 백만 원)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액	출하액	생산비	부가가치
1983	706	21,048	43,616	463,992	459,909	302,435	161,557
1985	667	41,098	104,540	983,311	970,530	653,046	330,265
1990	994	49,540	279,928	3,135,892	3,108,685	1,558,198	1,547,594
1995	1,464	45,205	519,048	4,653,997	4,625,891	2,274,221	2,379,776
2000	1,252	37,555	643,879	7,273,589	7,199,604	3,792,320	3,476,482
2005	1,307	34,787	858,310	9,276,218	91,545,26	4,827,734	4,362,417
2007	1,417	36,875	1,026,826	7,803,389	10,013,163	5,625,462	4,432,887

주 5인 이상 제조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제조업활동 동향

【 1990년 대비 제조업생산 61.3%, 출하 79.4%, 재고 47.8% 증가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종에서 1990년 대비 1,367% 증가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종이 252% 증가로 그 다음을 이룬다. 1990년 대비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업종은 가죽·가방 및 일반제조업과 목제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이 각각 90% 이상의 감소를 보이며, 이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종이 89% 생산 감소를 보인다.

생산자 제품출하에서도 생산과 동일한 업종에서 1990년 대비 가장 큰 증가와 감소가 있었으며, 생산자 제품제고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에서 545% 증가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며, 다음으로는 전기장비와 담배제조업종에서 각각 30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단위 : 2005=100, %)

연도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지수		재고지수	증감률*
			출하지수	증감률*		
1990	64.4	-	59.2	-	88.9	-
1995	68.2	-1.7	66.3	0.6	117.8	-3.4
2000	80.1	12.8	79.0	14.8	93.6	3.0
2005	100.0	-0.5	100.0	-0.7	95.7	-11.2
2006	104.6	4.6	104.8	4.8	106.5	11.3
2007	109.2	4.4	111.6	6.5	117.4	10.2
2008	103.9	-4.9	106.1	-4.9	131.4	11.9

*주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산업생산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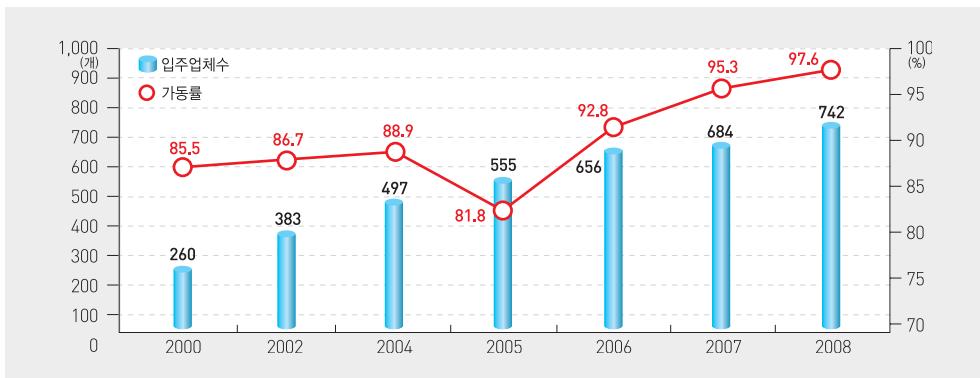
산업단지

【 산업단지수 5개, 입주업체수는 2004년 497개에서 2008년 742개로, 49% 증가 】

제1단지는 1969년 4월 ~ 73년 4월 대화동에 총 145천평 규모로 조성하였고, 단지의 특성은 시내 공해업소를 우선적으로 입주시켰으며, 입주업체는 기계 16, 화학 9, 섬유 2, 전기제품 4, 기타 10개 업체로 총 41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제2단지는 1975년 총 235천평 규모로 시내 공해업소 및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이전희망업체를 중심으로 입주하였고, 당시 섬유 4, 기계 12, 화학 13, 전기제품 3, 기타 6개 업체로 총 38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제3·4단지는 기존의 대화지역 이외에 신단진 지역 부근의 3·4단지를 조성하여, 대전시의 취약한 2차 산업의 구성비율을 높이고자 제조업 계통을 유치하였다. 규모는 제3단지, 4단지 각각 375천평, 551천평으로 조성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단지(대덕테크노밸리) 조성(1,205평 규모)으로 유치업종이 생명공학, 정밀화학, 컴퓨터, 전자통신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 중심으로 기존의 생산 공장들과는 달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우리시의 전체 산업단지는 총 742개 업체, 22,408명 종업원의 규모를 이루며, 97% 이상의 가동률을 보인다.



(단위 : 개, 천㎡, 명, %)

연도	단지수	총면적	입주업체수	가동률	종업원수	생산액(억원)	수출액(천불)
2000	4	4,390	260	85.5	13,775	20,159	1,160,000
2002	4	4,390	383	86.7	15,838	42,712	1,233,900
2004	5	8,655	497	88.9	13,363	48,357	1,436,659
2005	5	8,655	555	81.8	15,050	52,269	1,643,363
2006	5	8,655	656	92.8	18,800	59,344	1,994,112
2007	5	8,655	684	95.3	19,148	68,262	2,367,000
2008	5	8,660	742	97.6	22,408	79,433	3,387,000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대덕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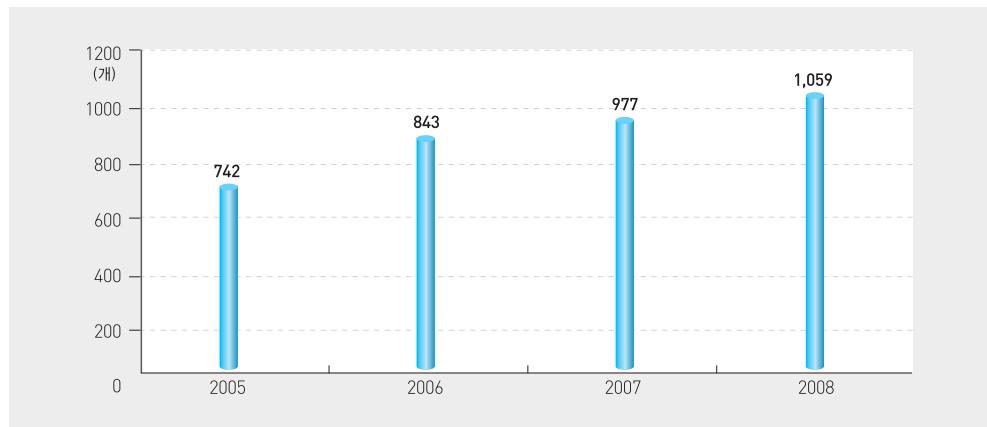
입주현황

【 특구 내 출연기관 등 기업체 수 43% 증가 】

대덕특구는 최초 1973년 대덕연구단지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서, 843만평 가량의 자연녹지 공간을 최대한 보존함과 동시에 '연구·교육·산업·문화'가 조화된 과학문화도시로 육성되었다.

단지 조성 이후 입주업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정부출연기관은 1978.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부지 492천㎡에 인원 443명으로 입주하였고, 이후 1978. 4. 한국원자력연구소가 1,096천㎡내 1,545명으로 입주하였다. 민간연구기관으로는 1979. 3. 쌍용중앙연구소(164명)가 입주하고, 교육기관으로는 충남대학교가 1978. 8.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990. 3.에 각각 터를 잡았다.

연구단지는 2005. 7. 28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출범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더욱 진전되고, 산·학·연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입주업체수는 2005년 742개에서 2008년 1,059개로 42.7% 크게 증가하였다.



(단위 : 개, kmt)

연도	계	출연기관	공공기관	국공립기관	교육기관	기타비영리	기업체	면적
2005	742	21	10	12	6	6	687	27.8
2006	843	21	9	13	6	8	786	27.8
2007	977	28	7	15	6	23	898	27.8
2008	1,059	28	7	15	6	23	980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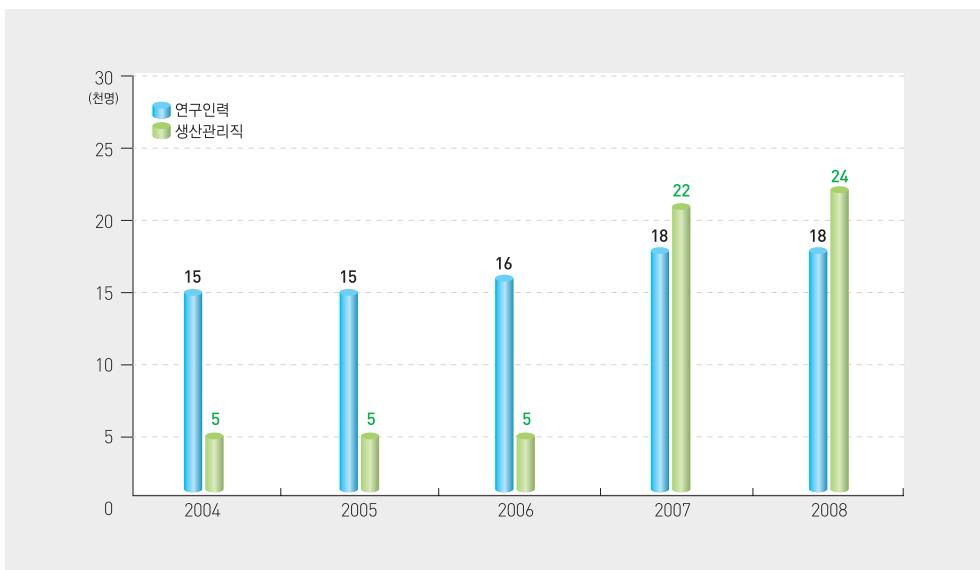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연구인력

【 특구 내 연구인력 2004년 22,395명에서 2008년 41,638명으로 2배 증가 】

특구 내 연구인력은 박사급이 2004년 5,806명에서 2008년 6,783명으로 17% 증가하였고, 석사급이 2004년 6,593명에서 2008년 7,253명으로 16% 증가하였다.

생산관리직은 2004년 4,797명에서 2008년 23,954명으로 5배 크게 증가하였다.



(단위 : 명)

연도	계	연구 인력				생산관리직
		소계	박사	석사	학사이하	
2004	22,395	15,277	5,806	6,593	2,828	4,797
2005	23,558	15,278	6,236	6,594	2,962	4,798
2006	36,366	16,217	6,375	6,595	3,247	4,799
2007	40,338	18,258	6,800	7,669	3,789	22,080
2008	41,638	18,209	6,783	7,253	4,173	23,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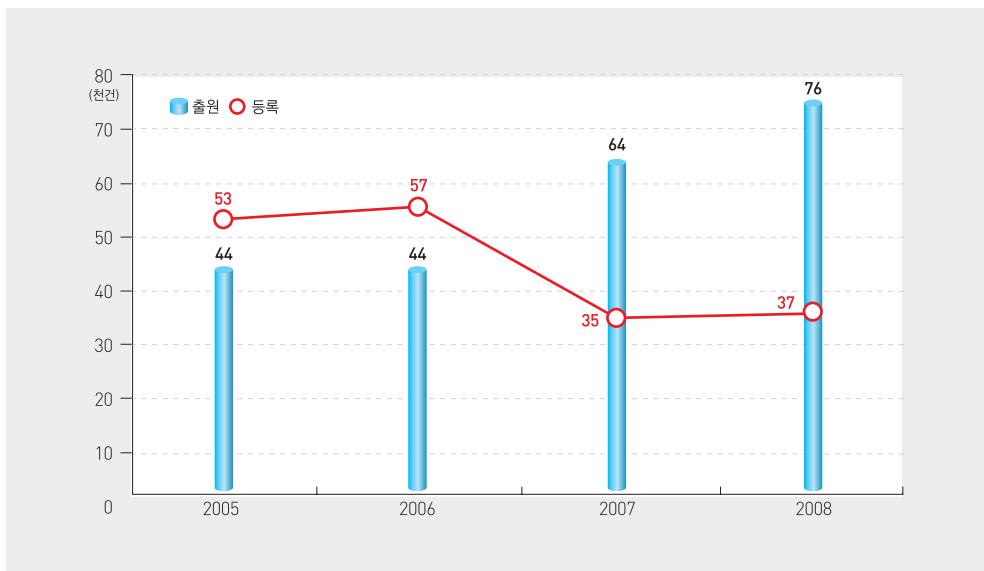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연구성과

【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건수 크게 증가 】

국내특허출원을 보면 2005년 41,368건에서 2008년 55,154건으로 12% 증가하였고, 해외특허출원은 2005년 15,872건에서 2008년 20,492건으로 13% 증가하였다.

기술이전건수는 2005년 577건에서 2008년 974건으로 41%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이전료도 2005년 507억원에서 2008년 957억원으로 88% 증가하여 기술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특허현황						기술이전	
	계		국내특허(누계)		해외특허(누계)		건수	이전료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05	43,736	53,075	41,368	22,625	15,872	5,935	577	50,751
2006	44,324	57,017	41,961	24,712	17,281	6,450	716	59,521
2007	64,248	35,171	46,355	29,193	17,893	5,978	815	77,798
2008	75,646	37,281	55,154	30,737	20,492	6,544	974	95,723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노동



경제활동인구

【 1967년에 비해 노동가능인구(15세이상)는 6배, 경제활동인구는 7배 증가 】

1967년 노동가능인구(15세이상) 202천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100천명(49.5%)이었으나, 2008년에는 노동가능인구 1,207천명 중 경제활동인구가 722천명(59.8%)로 1967년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10.3p%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1967년 13.0% 이었으나, 1990년대는 평균 3.0%수준을 기록하였고, 이후 4%대로 유지하던 실업률은 대전의 취업자 증가로 실업률 3.6%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7대 광역시 평균(3.7%)보다 낮은 실업율을 기록하였다.



연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1967	202	100	87	13	102	87.0	13.0
1970	139	120	118	2	119	98.3	1.7
1980	422	173	168	5	249	97.1	2.9
1990	736	413	400	13	323	96.9	3.1
2000	1,056	608	579	29	448	95.2	4.8
2005	1,154	676	646	30	478	95.6	4.4
2007	1,195	709	680	29	486	95.9	4.1
2008	1,207	722	696	26	485	96.4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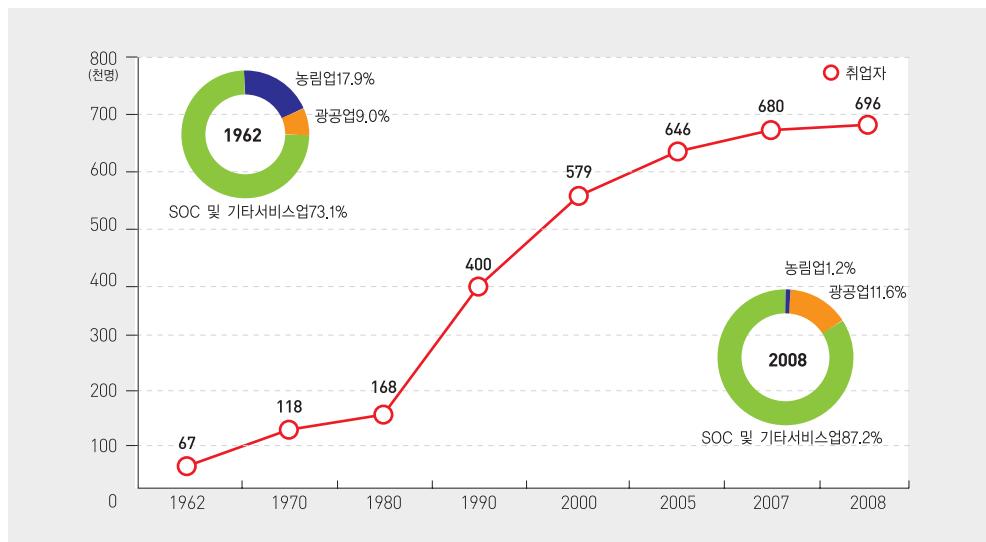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산업별 취업자

【 농림업부문 취업자는 1962년 대비 16.7%p 감소, 서비스업취업자는 14.1%p 증가 】

1962년 당시 17.9%를 차지했던 농림업부문 취업자 구성비는 2008년 1.2%로 크게 감소하였고, 광공업 취업자 구성비도 1970년 28.0%에서 2008년 11.6%에 이르기 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1962년 73.1%에서 2008년 87.2%로 크게 증가하여 농림업 및 광공업 구성비는 감소하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구성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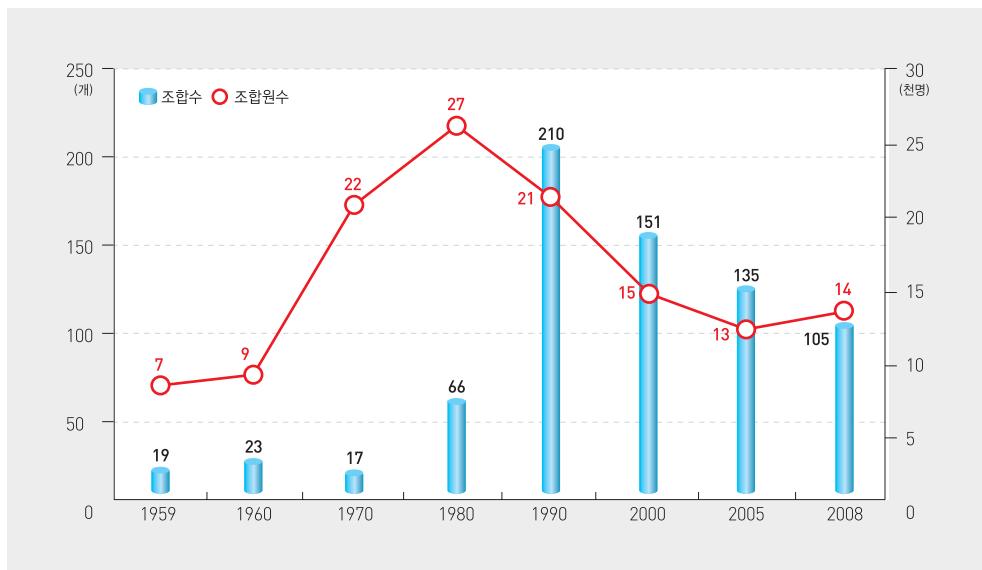
연도	취업자	농림업		광공업		SOC 및 기타 서비스업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62	67	12	17.9	6	9.0	49	73.1
1970	118	2	1.7	33	28.0	83	70.3
1980	168	3	1.8	44	26.2	121	72.0
1990	400	28	7.0	93	23.3	179	69.7
2000	579	15	2.6	79	13.6	484	83.6
2005	646	11	1.7	81	12.5	554	85.8
2007	680	11	1.5	80	11.3	590	87.2
2008	696	8	1.2	81	11.6	607	87.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1959년 19개 조합에서 2008년 105개 조합으로 증가 】

1959년 19개 사업장에 7,235명의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이후 1980년대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조합 및 조합원 모두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105개 사업장에 13,600명의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다.



(단위 : 명)

연도	조합수(개)	조합원수(명)		
		계	남	여
1959	19	7,235	5,084	2,151
1960	23	8,505	5,984	2,521
1970	17	22,474	15,070	7,404
1980	66	27,253	17,513	9,740
1990	210	20,735	15,220	5,515
2000	151	15,037	11,400	3,637
2005	135	12,513	10,151	2,362
2008	105	13,600	11,575	2,025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기업지원과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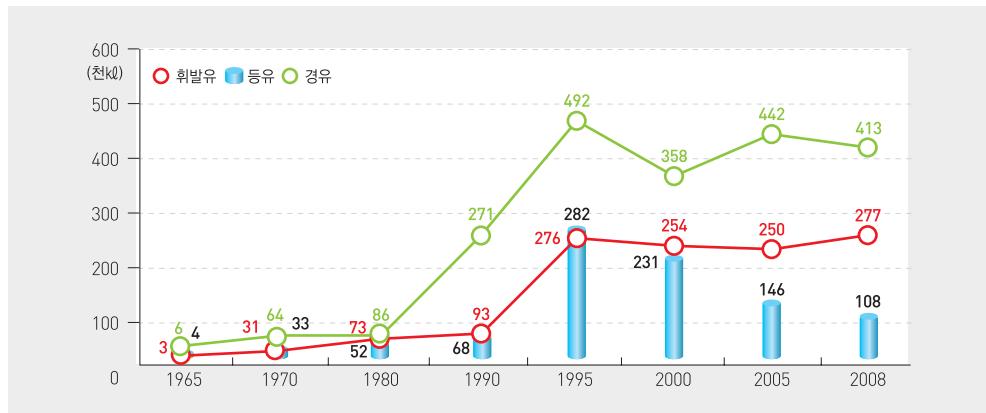


유류사용량

【 1965년에 비해 유류사용량 75배 증가 】

1차 에너지가 주로 석탄에서 석유로 대체되면서 유류사용량은 1965년 18,311㎘에서 2008년 1,345,696㎘로 74.7배나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자동차 보유의 증가, 공장의 신규설립 및 가동률 증가, 가정용 취사 및 난방의 증가 등으로 유류사용은 꾸준히 상승하여 1995년 최고 정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IMF 구제금융 등과 같은 경제침체로 인해 소비량이 주춤해 졌으나, 이후 점차증가하여 2008년에는 휘발유는 276,905㎘로 1965년 대비 90배 증가, 등유는 108,413㎘로 30배, 경유는 413,319㎘로 72배 증가하였다.



(단위 :㎘)

연도	총사용량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기타
1965	18,311	3,061	3,623	5,770	1,230	4,647
1970	197,904	30,885	33,449	64,256	67,903	1,411
1980	317,887	72,912	52,480	85,909	104,180	2,406
1990	591,418	93,348	67,666	270,523	157,618	2,263
1995	1,193,787	275,865	282,425	491,883	143,021	593
2000	931,372	253,629	231,444	357,979	61,097	27,223
2005	1,387,085	249,751	146,309	442,333	216,377	332,315
2008	1,345,696	276,905	108,413	413,319	189,343	357,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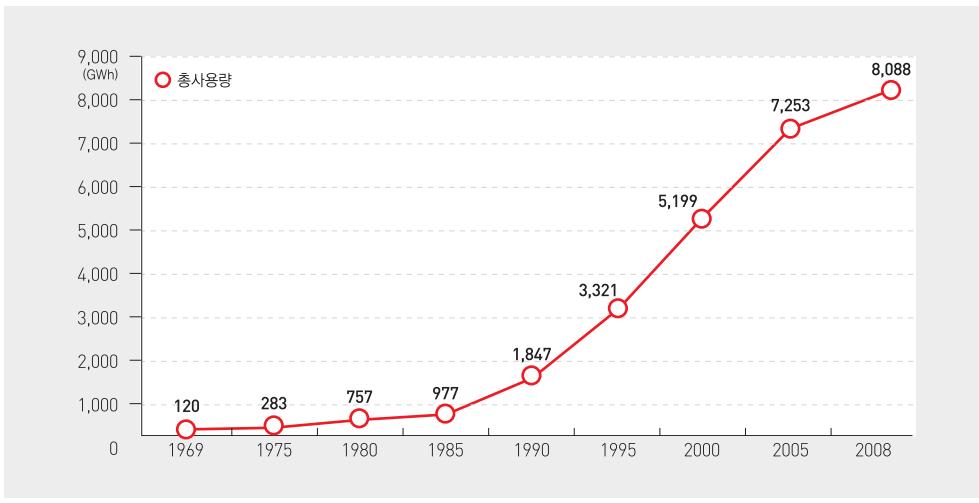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

전력 사용량

【 전력 사용은 1969년에 비해 67배 증가】

전력 사용량은 1969년 120,424MWh에서 2008년 8,087,626MWh로 67배 증가하였다. 이 중 서비스 업용은 대전지역의 서비스업 성장으로 207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용도 100배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수 증가 및 가정의 각종 가전제품과 난방시설이 석탄이나 석유에서 전력 및 도시가스로 대체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전력소비가 급증한 것은 둔산 신도시와 같은 도시개발과 대덕특구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판단된다.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성장통계』, 한국전력공사(충남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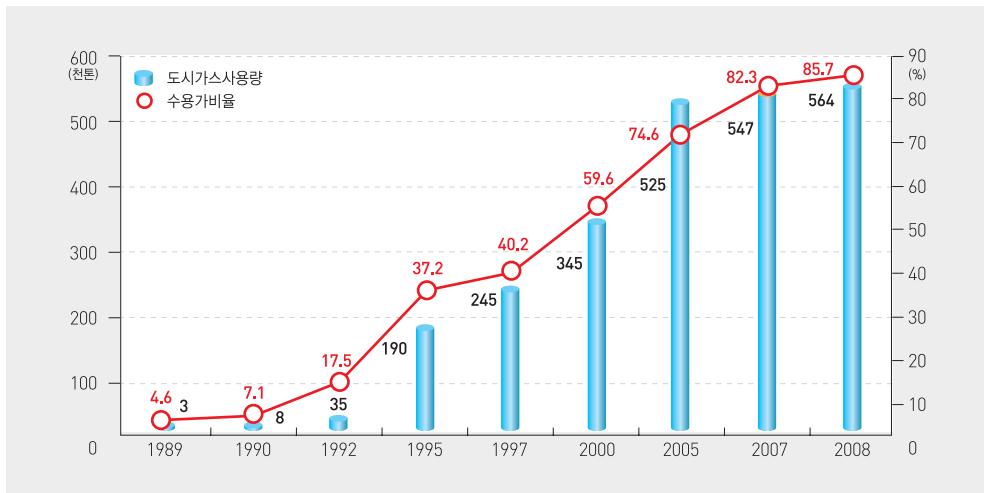
가스 사용량

【 도시가스 수용가구 비율은 1989년 4.6%에서 2008년 85.7%로 증가 】

1989년 직할시 승격 이후 도시가스 보급세대는 10,681세대에서 2008년 455,135세대로 43배 증가하였고, 도시가스 사용량도 2,915톤에서 2008년 564,330톤으로 194배 증가하였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비율도 1989년 전체의 4.6%에서 2008년 85.7%로 81.1%p 크게 증가하였다.

프로판 가스의 경우는 1989년 35,633톤에서 2008년 54,320톤으로 1.5배 증가하였고, 부탄가스는 1989년 31,989톤에서 2008년 151,322톤으로 4.7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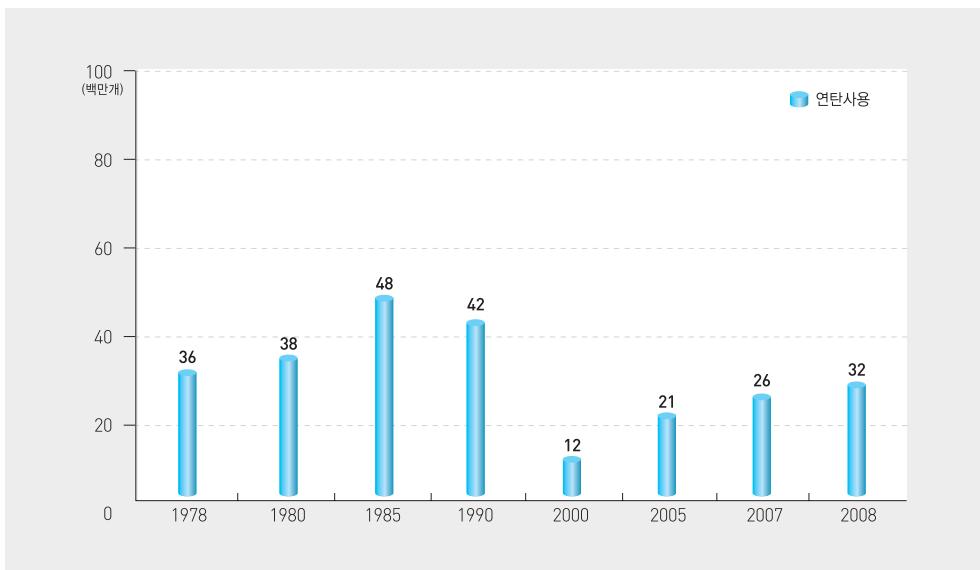
연도	도시가스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보급세대	사용량(톤)	수용가구 비율(%)	사용량(톤)	사용량(톤)
1989	10,681	2,915	4.6	35,633	31,989
1990	23,054	8,106	7.1	46,304	33,958
1992	57,107	34,951	17.5	58,503	41,971
1995	140,282	189,812	37.2	67,139	57,808
1997	164,049	244,573	40.2	71,561	64,513
2000	262,967	345,076	59.6	64,976	105,866
2005	377,177	525,263	74.6	64,406	114,100
2007	432,345	547,157	82.3	58,040	150,912
2008	455,135	564,330	85.7	54,320	151,322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연탄 사용량

【 아파트 보급률 및 석유·가스보일러 증가에 따른 연탄 사용량 크게 감소 】

1970~1980년대 주요 난방원이 되었던 연탄 사용량은 1978년 36,069천개에서 2000년 11,795천개로 67% 감소하였으나, 이렇게 크게 감소하던 연탄 사용량도 최근의 경제위기 및 고유가로 인해 연탄보일러를 다시 사용하는 공장 및 농가가 늘고 있어 최근 연탄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	공장수	생산 규모별(천개)			(단위 : 개소)
		계	3.6kg	7.5kg	
1978	2	36,096	35,903	166	
1980	2	37,593	37,497	96	
1985	2	48,424	48,316	108	
1990	3	41,826	41,764	62	
2000	3	11,795	11,793	2	
2005	3	20,505	20,505	-	
2007	3	26,042	26,042	-	
2008	3	32,143	32,143	-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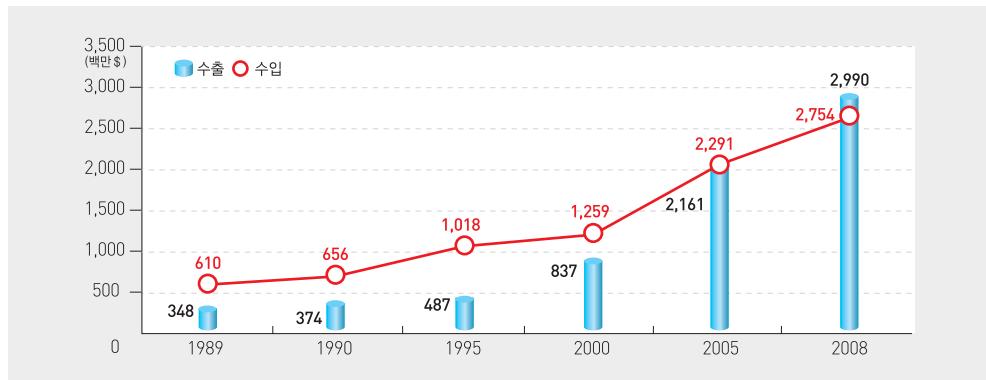
수출입 총괄

【 수출입규모 1989년에 비해 수출 9배, 수입 5배 확대 】

1965~1975년간 대전의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1965년 전체 수출액 6,365천 달러 중 섬유공업이 64.1%, 기계공업이 1.6%, 화학공업이 1.4%, 기타가 32.9%로 구성되었고, 1975년에는 전체 109,920천 달러 중 섬유공업이 48.0%, 기계공업이 3.3%, 화학공업이 1.7%, 기타가 47.0%를 구성하였다. 당시 수출업체수는 1965년에 25개 업체, 1970년에 39개 업체, 1975년에 60개 업체로 크게 증가하였다.

직할시 승격이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총액은 1989년 348백만 달러에서 2008년 2,990백만 달러로 759% 증가하였으며, 수입총액은 1989년 610백만 달러에서 2008년 2,754백만 달러로 352% 증가하였다.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제일 비중이 큰 품목은 공산품으로 2008년 기준 수출 및 수입에서 각각 85%를 차지한다.



(단위 : 천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합계	농림수산물	광산물	공산품	합계	농림수산물	광산물	공산품	
1965	6,365
1970	27,527
1975	109,920
1989	348,000	26,000	-	322,000	610,000	219,000	9,000	382,000	-262,000
1990	373,545	34,033	35	339,477	656,448	202,042	8,704	445,702	-282,903
1995	487,225	102,418	220	384,563	1,018,160	157,368	13,742	847,050	-530,935
2000	837,138	97,977	1,061	738,100	1,258,996	178,250	13,940	1,066,806	-421,858
2005	2,161,353	313,547	143	1,847,663	2,291,302	182,026	21,558	2,087,718	-129,949
2008	2,989,513	453,475	302	2,535,736	2,754,306	385,300	34,653	2,334,353	235,207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대전충남 무역동향』

농업



농가 및 농가인구

【 농가수 및 농가인구 비율은 1958년 7.1%와 6.8%에서 2008년 모두 1.5%로 감소 】

대전의 농가인구는 1958년 전 시민의 6.8%에 해당하는 12,538명이었던 것이 1964년 시세확충으로 농업인구가 편입되어 31,43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대전직할시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1983. 1. 15. 과 1989. 1. 1.에 광대한 농촌지역이 편입됨으로써 1990년 농업입구 41,467명, 농가구 9,317가구로 크게 증가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3차 산업위주로 산업 주축이 이루어져 1990년 이후로 농가인구 및 농가비율은 점차 감소하였고, 이에 2008년 농가비율 및 농가인구비율이 각각 1.5%까지 낮아졌다.

농가당 인구수에 있어서도 대가족 중심의 농업인구 구조가 변모하여 1960~1970년대 농가당 인구수는 최대 7.3명에서 2008년 농가당 인구수는 3명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연도	농가수	농가비율	농가인구	농가인구비율	농가당 인구수
1958	2,290	7.1	12,538	6.8	5.5
1964	4,307	8.5	31,430	10.4	7.3
1970	3,524	4.8	23,131	5.6	6.6
1980	2,289	1.8	13,443	2.1	5.9
1990	9,317	3.6	41,467	3.9	4.5
2000	7,075	1.6	25,141	1.8	2.8
2005	8,657	1.7	28,095	1.9	3.0
2007	7,801	1.5	22,326	1.5	3.4
2008	7,975	1.5	23,709	1.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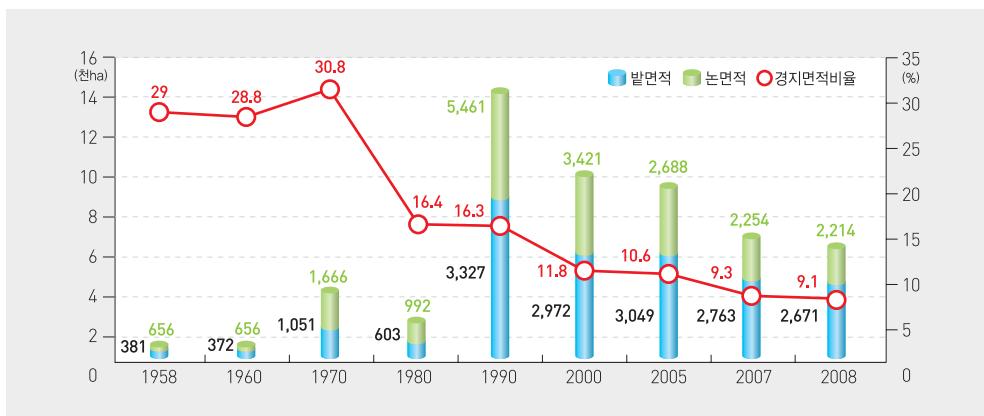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경지면적

【 경지면적비율은 1958년 29.0%에서 08년 9.1%로 절반 이상 줄어 】

대전의 경지면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농경지가 점차 택지와 공장부지화 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경지면적이 1958년 1,037ha에서 1980년에는 1,595ha로 축소되었다. 이후 행정 구역의 확대와 함께 1990년 8,788ha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는 4,885ha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경지면적비율은 1958년 29.0%에서 개발구역의 확대로 2008년에는 9.1%로 크게 감소하였다.

농가의 도시가구로의 이동에 의해 농가당 경지면적은 1958년 0.45ha에서 2008년 0.61ha로 35% 증가하였다. 특히 논과 밭의 구성비는 1997년까지 논의 구성비가 높았으나 1998년부터는 밭의 구성비가 높아졌는데, 이는 특용작물 및 채소류 등의 공급확대 등 도시근교농업의 발달 때문이다.



(단위 : ha, %)

연도	경지면적					농가당 경지면적	경지면적 비율
	합계	밭	구성비	논	구성비		
1958	1,037	381	36.7	656	63.3	0.45	29.0
1960	1,028	372	36.2	656	63.8	0.45	28.8
1970	2,717	1,051	38.7	1,666	61.3	0.77	30.8
1980	1,595	603	37.8	992	62.2	0.94	16.4
1990	8,788	3,327	37.9	5,461	62.1	0.94	16.3
2000	6,393	2,972	46.4	3,421	53.6	0.90	11.8
2005	5,737	3,049	53.1	2,688	46.9	0.66	10.6
2007	5,017	2,763	55.1	2,254	44.9	0.64	9.3
2008	4,885	2,671	55.1	2,214	44.9	0.61	9.1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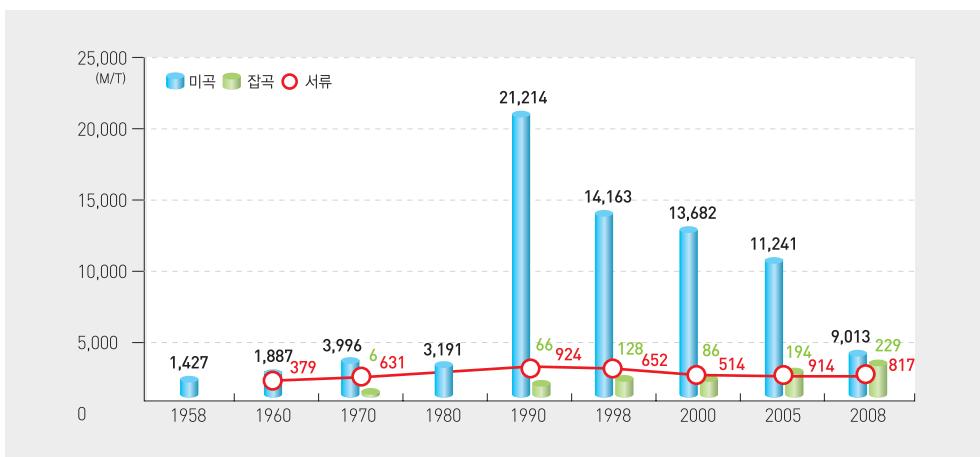
식량작물 생산량

【 쌀 생산량은 1958년에 비해 10배 증가 】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은 미곡생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1953년에는 1,432M/T를 생산하였고, 행정구역 확대 직후인 1990년에는 22,865M/T를 생산하였다. 이후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여, 2008년 10,506M/T를 생산하였다.

미곡생산성은 신기술의 보급과 함께 1958년 ha당 2.2톤에서 2008년 4.7톤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농업신기술 보급 및 다수확품종에만 집착하던 것을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대체하게 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식량작물 중 미곡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8년 100%에 가까운 구성비를 보였으나, 점차 밭작물생산이 증가하여 2008년 미곡생산 비중은 85.7%로 낮아졌다.



단위 : M/T, %

연도	합계	미곡	구성비		맥류	잡곡	두류	서류
			구성비	생산성				
1958	1,432	1,427	99.7	2.2	5	-	-	-
1960	2,270	1,887	1,887	2.9	4	-	-	379
1970	6,198	3,996	64.5	2.4	1,439	6	126	631
1980	3,251	3,191	98.2	3.2	60	-	-	-
1990	22,865	21,214	92.8	3.9	56	66	605	924
1998	15,337	14,163	92.3	4.5	0	128	394	652
2000	14,524	13,682	94.2	4.1	8	86	234	514
2005	12,823	11,241	87.6	4.8	9	194	465	914
2008	10,506	9,013	85.7	4.7	7	229	386	871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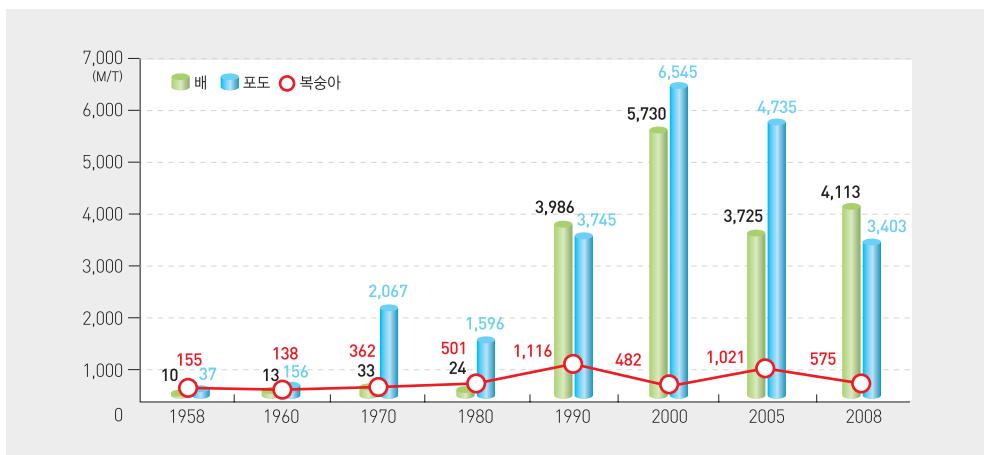
과실수확량

【 대전의 주요 산물인 포도 수확량은 1958년에 비해 213배 증가】

대전에서 영리목적으로 과수가 시작된 것은 1910년 후반기 부터이며, 당시 29개 농가가 과수조합을 만들어 생산된 과실을 대전시가 공급하였다. 당시 대전 관내 과수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백석농장으로 사과, 배, 복숭아를 생산하였다.

1970년대 과수재배의 큰 특징은 포도생산으로 당시 포도는 총면적의 40% 이상으로 주종을 이루며, 주요 생산지역은 흥도, 판암, 용운, 가양동이 주산지를 이루었다. 이러한 포도수확량은 1958년 37톤에서 2008년 3,403톤으로 92배 증가하였다.

배 수확량은 1958년 10톤에서 2008년 4,113톤으로 411배 증가하였다. 특히 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재배농가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유성·둔산지역 개발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로 수확량이 줄었다.



(단위 : M/T)

연도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기타
1958	2	10	-	37	155	-
1960	2	13	24	156	138	-
1970	29	33	-	2,067	362	17
1980	104	24	56	1,596	501	15
1990	2,900	3,986	366	3,745	1,116	621
2000	485	5,730	482	6,545	482	399
2005	385	3,725	557	4,735	1,021	1,110
2008	427	4,113	477	3,403	575	364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가축 사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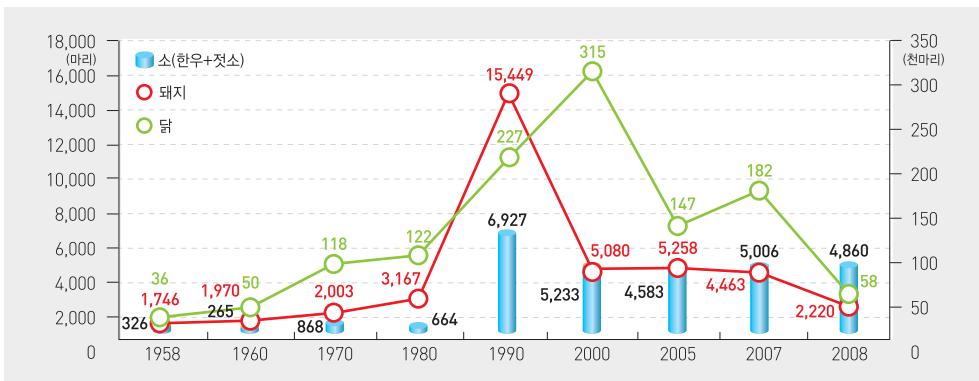
【 1954년에 비해 한우는 16배, 돼지는 1배, 닭은 2배 증가 】

한우는 1954년 305마리에서 1960년 262마리로 감소되었다가 이후 시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1990년 5,540마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4,850마리로 1954년에 비해 15.9배 증가하였다. 1958년 당시 한우는 유천동, 산서동(59마리)과 판암동(43마리)에서 주요 사육되었다.

유우는 8.15 광복전 지금의 흥도동에 5~6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유우목장이 있어 우유를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0년에 1,387마리로 크게 증가하였다.

돼지는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사육되어 왔으며, 1954년 2,288마리에서 1958년 1,746마리를 사육한 바, 이때 효동, 천동이 238마리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으며, 대동, 자양동이 132마리, 중촌동, 목동이 130마리 순이었다.

닭은 농촌과 가정에서 몇 마리씩 사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육규모가 확대되고 도시근교에서 대규모로 사육하는 양계농가가 증가하여 차츰 규모를 성장해 나갔다. 1958년 기준 닭의 수는 36,181마리로 효동, 천동이 3,005마리로 가장 많았다. 최근의 닭 사육은 2000년에 314,901마리로 정점을 이루나 이후 조류독감 및 찾은 폐사 등의 어려움으로 양계농가가 감소하여 사육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연도	한우	젖소	돼지	닭
1954	305	...	2,288	29,195
1958	318	8	1,746	36,181
1960	262	3	1,970	50,313
1970	763	105	2,003	117,928
1980	517	147	3,167	122,295
1990	5,540	1,387	15,449	226,814
2000	4,911	322	5,080	314,901
2005	4,412	171	5,258	147,241
2007	4,948	58	4,463	182,385
2008	4,850	10	2,220	57,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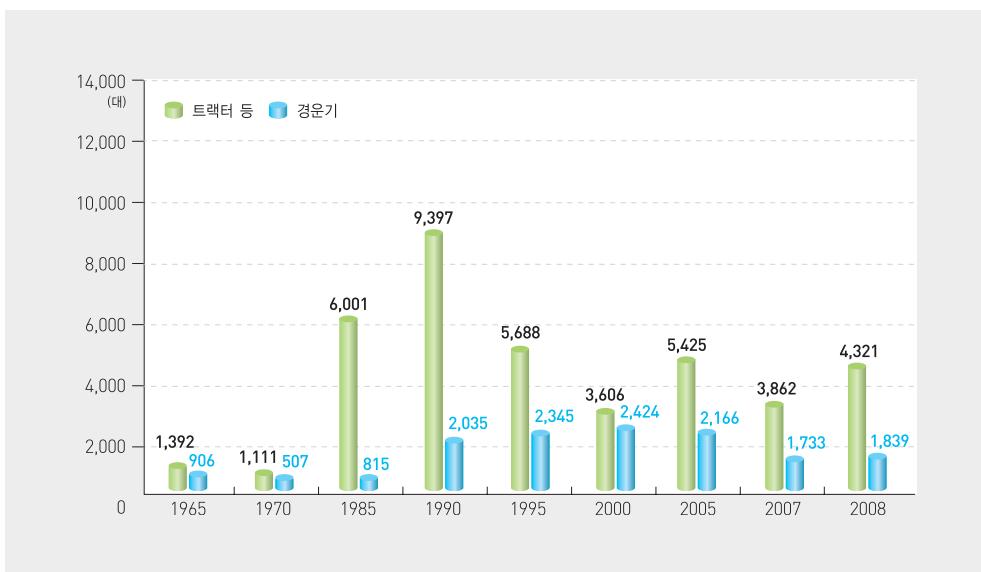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농기계보유

【 1980년 ~ 1990년에 농촌지역의 운반수단인 경운기가 큰 폭 증가 】

경운기는 1965년도 906대에서 2000년까지 크게 증가 하다가 2008년에는 24% 감소되었는데 이는 트렉터와 이앙기, 콤바인 등 대체수단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트렉터는 2000년 306대에서 2008년 456대로 49% 증가되었다.



연도	합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콤비인	탈곡기·분무기·양수기 등 기타
1965	2,298	906	-	-	-	-	1,392
1970	1,618	507	-	-	-	-	1,111
1985	6,816	815	29	662	-	7	5,303
1990	11,240	2,035	96	266	-	101	8,934
1995	8,033	2,345	183	579	-	191	4,735
2000	6,030	2,424	306	861	2,175	-	264
2005	7,591	2,166	474	868	1,954	226	1,903
2007	5,595	1,733	402	774	1,634	196	856
2008	6,160	1,839	456	829	1,883	217	936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통계청 KOSIS

유통·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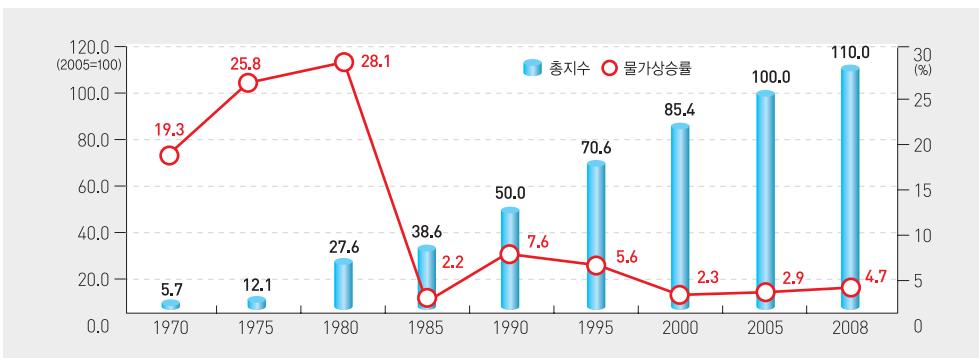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1965년 3.1에서 08년 110.0으로 3,448%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965년 3.1(2005=100)에서 2008년 110.0로 3,448% 상승하였고, 물가상승률은 196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년 큰 폭 상승하여 1980년대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의 최고 정점을 기록한 후 차츰 상승세가 안정화 되었다.

1985년부터 2008년까지 분류별로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교육비가 422.1%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교육비 중에서도 유치원·초등교육비가 568.9%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외식 및 숙박비가 270.6%로 크게 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외식비가 1985년도 대비 269.9%로 큰 증가를 보였다. 유일하게 물가상승률 감소를 기록한 분류는 통신비로 1985년 대비 -30.5% 감소하였다.

2008년도 물가상승률은 전국평균 4.9%로 대전(4.7%)의 경우 서울(4.1%)을 제외한 6개 광역도시 중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단위 : 2005=100, %)

연도	총지수	물가상승률(%)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의복 신발	주거 및 수도·경열	가구잡이 가시용품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양 도학	교육	외식 숙박	기타 잡비
1965	3.1	-	-	-	-	-	-	-	-	-	-	-	-	-
1970	5.7	19.3	-	-	-	-	-	-	-	-	-	-	-	-
1975	12.1	25.8	-	-	-	-	-	-	-	-	-	-	-	-
1980	27.6	28.1	-	-	-	-	-	-	-	-	-	-	-	-
1985	38.6	2.2	32.7	34.8	40.9	42.9	50.7	41.1	35.4	137.8	62.1	22.3	29.9	53.4
1990	50.0	7.6	43.0	41.4	61.9	50.7	62.4	54.9	41.1	141.0	72.0	33.9	46.2	61.8
1995	70.6	5.6	63.6	54.6	81.7	67.9	86.4	69.4	58.3	125.7	90.6	60.0	77.7	77.6
2000	85.4	2.3	77.1	72.7	90.6	84.8	93.4	85.4	85.0	118.0	99.6	80.2	84.9	88.3
2005	100.0	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8	110.0	4.7	108.6	101.3	108.3	108.8	112.3	105.3	118.7	95.8	98.5	116.4	110.7	120.3

주)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자료 통계청 물가통계과, KOSIS



【 재정 · 금융 】



74 재정

77 금융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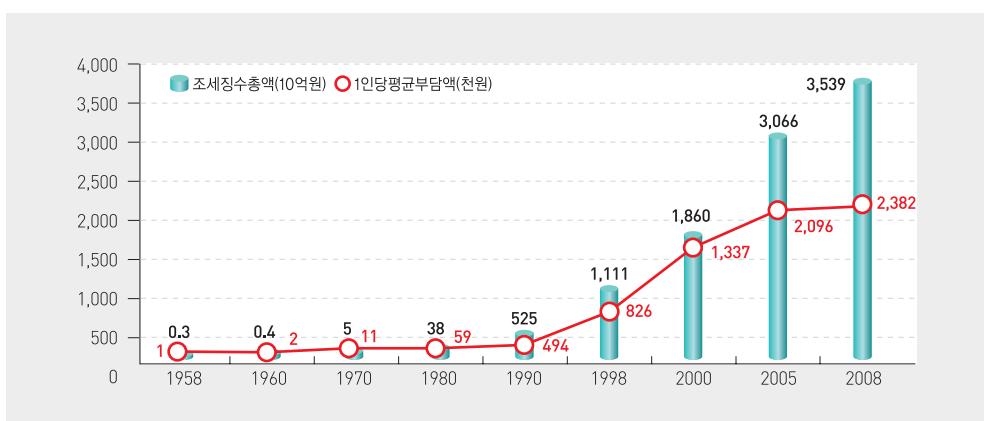
조세

【 조세징수액은 1958년 2억 6천 만원에서 2008년 3조 5,389억원으로 증가 】

1958년 국세 2억3,200만원과 지방세 2,600만원을 합한 2억 5,800만원이었던 조세부담액은 2008년 국세 2조 4,770억원과 지방세 1조 619억을 합한 3조 5,38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도 조세총액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1989년 직할시 승격으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 및 둔산지역 개발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의 조세수입이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인당평균부담액은 1958년 1천원에서 2008년 2,382천원으로 약 1,698배 증가하였다.



연도	조세징수액(백만원)			1인당 평균부담액(원)		
	총액	국세	지방세	총액	국세	지방세
1958	258	232	26	1,403	1,264	139
1960	355	315	40	1,548	1,375	173
1970	4,794	4,336	458	11,410	10,304	1,106
1980	38,280	25,995	12,285	58,744	39,891	18,853
1990	525,080	358,728	166,352	494,386	337,758	156,628
1998	1,111,135	667,392	443,743	825,703	495,950	329,753
2000	1,859,636	1,303,962	555,674	1,337,377	937,758	399,619
2005	3,065,749	2,146,002	919,761	2,096,198	1,467,317	628,881
2008	3,538,929	2,476,995	1,061,934	2,381,920	1,664,831	717,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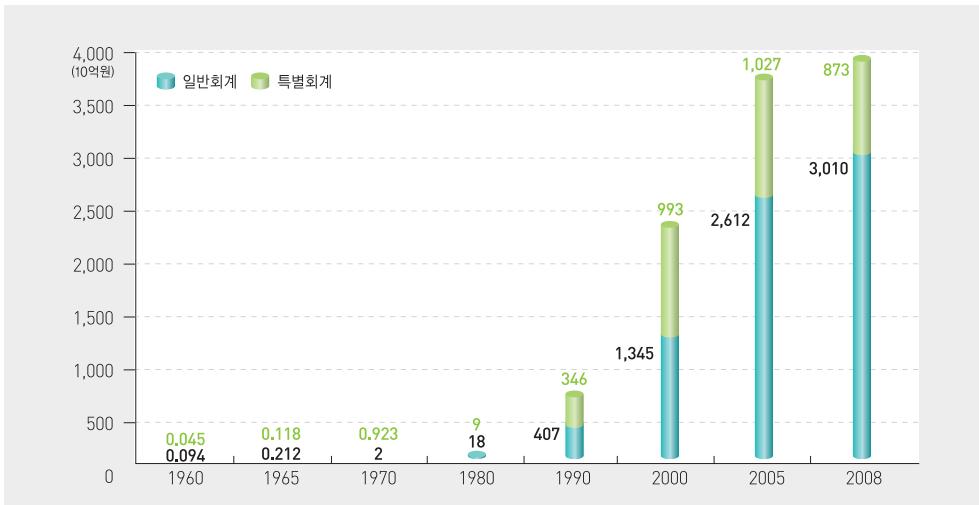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국세통계연보(2008년도 자료는 잠정치)

예산현황

【 1960년도 예산현액 1억 4천 만원에서 2008년도 3조 8,821억원으로 27,929배 증가 】

일반회계는 대부분 공공행정, 교육, 관광, 환경, 복지, 보건 등의 사회개발비와 중소기업 육성, 지역개발, 과학기술 지원 등의 경제개발비, 공공안전 및 치안에 주로 책정되며, 이러한 일반회계의 경우 1960년 9천 4백만원에서 2008년도 3조 95억원으로 32,017배 증가하였다.

특별회계는 1960~1970년대의 경우 대부분 상수도건설, 취락지구개선, 낙후지역개발 등의 특별회계가 많았으나, 2000년대에는 교통사업, 도시철도, 학교용지,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산업 조성비가 증가하여 1960년 4천 5백만원 이었던 특별회계의 경우 2008년에는 8천 726억원으로 19,390배 증가하였다.



(단위 : 백만 원)

연도	예산규모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960	139	94	45
1965	330	212	118
1970	2,427	1,504	923
1980	27,159	18,449	8,710
1990	752,780	406,506	346,272
2000	2,337,994	1,345,384	992,610
2005	3,639,043	2,612,275	1,026,768
2008	3,882,152	3,009,567	872,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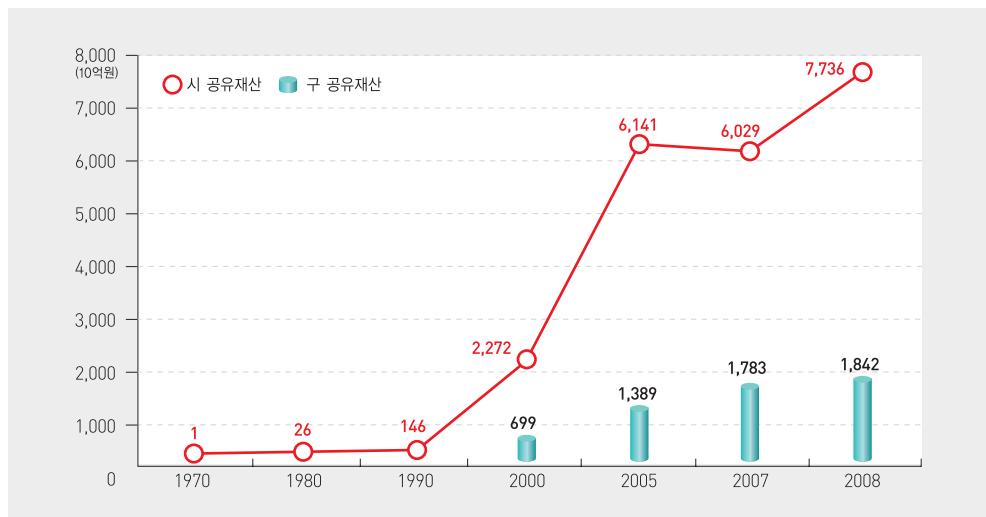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공유재산

【 시 유지 공유재산 가격은 1970년 17억에서 2008년 7조 7,357억으로 큰 폭 상승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써 시 공유재산의 경우 토지는 1970년 15억원에서 2008년 5조112억원으로 3,384배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1970년대 2억원에서 2008년 6,701억원으로 3,131배 증가되었다.

구 공유재산의 경우는 2000년 6,992억원에서 2008년 1조8,422억원으로 2.6배 증가하였고, 이중 토지의 경우는 2000년 6,292억원에서 2008년 1조6,012억원으로 2.5배 증가하였고, 건물의 경우는 2000년 696억원에서 2008년 2,342억백만원으로 3.4배 증가하였다.



단위 : 백만 원

연도	계	시 공유재산			계	구 공유재산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970	1,713	1,481	214	18	0	-	-	-
1980	25,758	9,690	7,420	8,648	0	-	-	-
1990	146,162	120,070	20,937	5,155	0	-	-	-
2000	2,272,051	1,511,882	316,583	443,586	699,242	629,232	69,567	443
2005	6,141,465	4,511,425	1,141,454	488,586	1,389,325	1,223,150	162,326	3,849
2007	6,028,716	4,921,324	619,946	487,446	1,782,805	1,574,871	202,473	5,461
2008	7,735,682	5,011,163	670,051	2,054,468	1,842,191	1,601,209	234,235	6,747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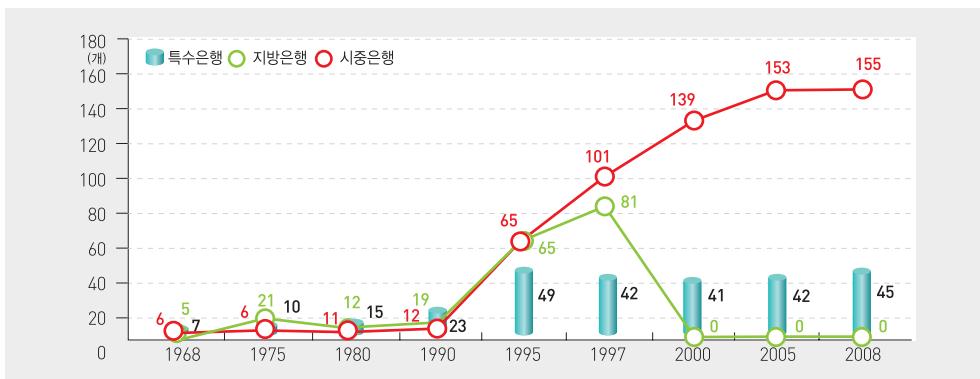
금융



금융기관 점포 수

【 금융기관은 1968년 18개 점포에서 2008년 200개 점포망으로 확대 】

금융기관 점포수는 1968년 모두 18개에서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시중은행 101개, 지방은행 81개, 특수은행 42개로 총 224개소로 큰 증가를 이루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오랫동안 대전·충남지역의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이 1998년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의해 퇴출되었고, 이후 점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중은행의 증가와 더불어 다시 금융기관 점포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1968년 6개 점포에서 2008년 155개 점포로 증가하였고,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이 1997년 81개 점포였으나 1998년 퇴출되어 시중은행인 하나은행으로 편입 되었고, 특수은행은 7개 점포에서 45개 점포로 증가하였다.



연도	합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1968	18	6	5	7
1975	37	6	21	10
1980	38	11	12	15
1990	54	12	19	23
1995	179	65	65	49
1997	224	101	81	42
2000	180	139	0	41
2005	197	153	0	42
2008	200	155	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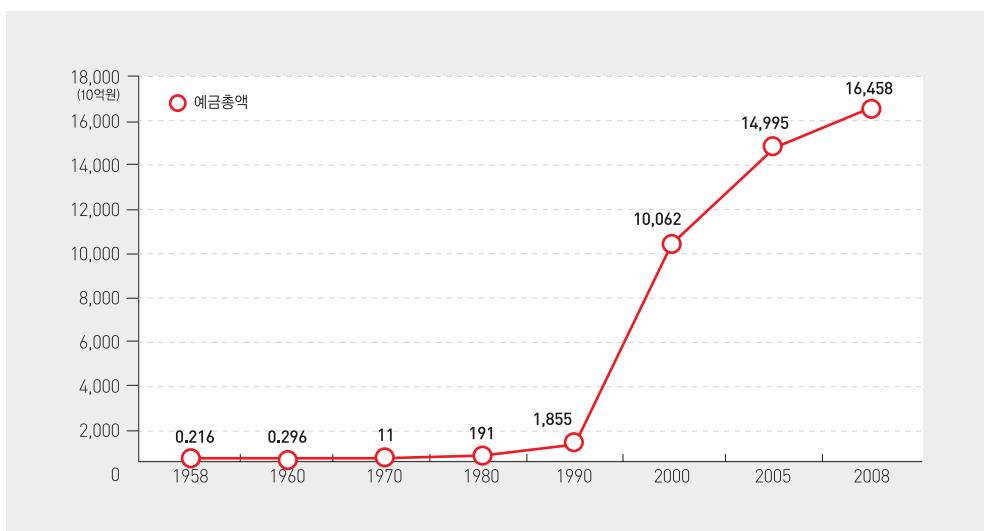
주 1) 충청은행(1968. 4. 22. ~ 1998) : 하나은행으로 합병
자료 한국은행 대전지점『대전충남지역경제연보』,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은행 예금

【 예금액은 1958년 2억원에서 2008년 16조 4,580억원으로 8만 배 정도 증가 】

은행 예금액은 1958년 2억1,600만원에서 2008년 16조 4,580억원으로 무려 7만 6천배 정도 증가하였다. 1인당예금액으로는 1958년 1,174원에서 2008년 10,052,469원으로 8,562배 증가하였다.

요구불예금은 1970년 39억원에서 2008년 1조 6,994억원으로 425배 증가하였고, 저축성예금은 1970년 67억원에서 2008년 14조 7,588억원으로 무려 2,202배 증가하였다.



연도	은행 예금(백만원)			1인당 예금액 (원)
	예금총액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1958	216	-	-	1,174
1960	296	-	-	1,290
1970	10,697	3,995	6,702	25,801
1980	190,566	60,975	129,591	292,440
1990	1,855,401	812,534	1,042,867	1,746,944
2000	10,062,000	1,001,000	9,061,000	7,236,194
2005	14,995,000	1,833,000	13,162,000	10,252,746
2008	16,458,000	1,699,451	14,758,762	10,052,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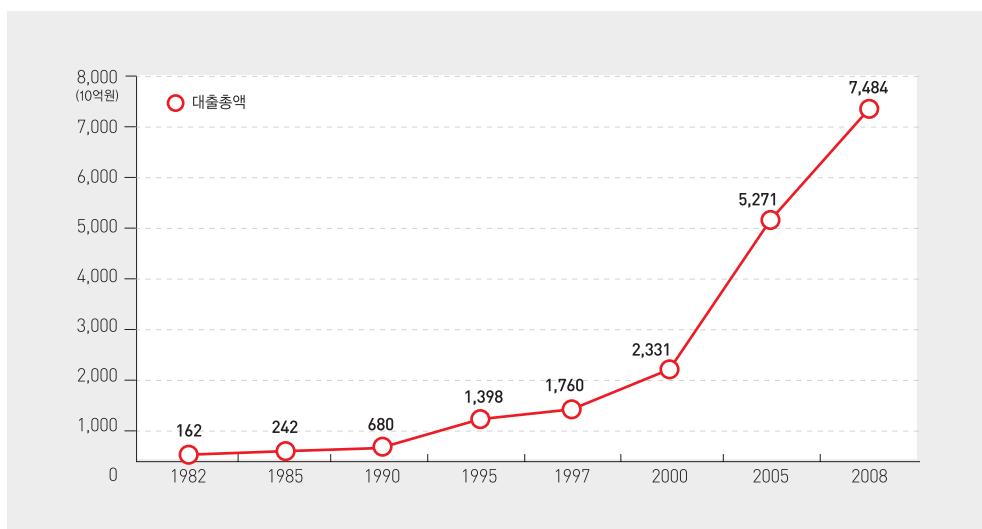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전지점『대전충남지역경제연보』, 대전광역시『성장통계』

중소기업 자금별 대출금

【 중소기업 대출금은 1982년 1,618억원에서 2008년 7조 4,837억원으로 46배 증가 】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1982년 1,618억원에서 2008년 7조 4,837억원으로 46배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대출금 중 비중이 제일 큰 금융자금은 1982년 1,529억원에서 2008년 7조 1,84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재정자금은 1982년 48억원에서 2008년 2,98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연도	대출총액	금융자금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1982	161,812	152,864	4,770	4,178
1985	241,811	229,198	6,283	6,330
1990	680,190	661,296	12,635	6,259
1995	1,398,383	1,372,132	25,600	651
1997	1,759,599	1,741,881	17,624	94
2000	2,330,902	2,235,006	95,896	0
2005	5,271,200	4,975,000	296,200	0
2008	7,483,700	7,184,800	298,900	0

자료 한국은행 대전지점『대전충남지역경제연보』

어음 교환 및 부도

【 어음교환규모는 1981년 3조원에서 2008년 23조원 8천억원으로 7.8배 커져 】

어음교환규모는 1981년 금액기준 3조원, 장수기준은 130만장에서 2008년 각각 23조원 및 1,342만장으로 7.8배 및 10.3배 규모로 커졌다.

이중 어음부도율은 금액기준으로 1981년 0.33%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0년 0.14%로 가장 낮은 부도율을 기록하였고, 이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IMF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이 무려 1.05%로 최고치를 이루었다. 이후 위기 극복으로 2000년 안정을 되찾아 현재는 0.36%대로 낮아졌다.



(단위 : 백만원, 장, %)

연도	교환		부도		부도율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기준	장수기준
1981	3,056,064	1,292,616	10,215	3,779	0.33	0.29
1985	9,264,561	3,669,850	19,333	5,408	0.21	0.15
1990	28,841,055	13,552,275	39,536	7,162	0.14	0.05
1995	39,939,575	22,475,566	368,896	25,774	0.92	0.11
1997	45,583,030	29,414,863	411,443	26,800	0.90	0.09
1998	41,743,005	25,698,171	439,803	27,206	1.05	0.11
2000	38,018,000	26,607,000	99,600	9,340	0.26	0.04
2005	26,227,000	15,566,000	53,200	3,420	0.20	0.02
2007	23,670,000	14,550,000	75,300	3,220	0.32	0.02
2008	23,797,475	13,417,917	86,244	3,273	0.36	0.02

자료 한국은행 대전지점『대전충남지역경제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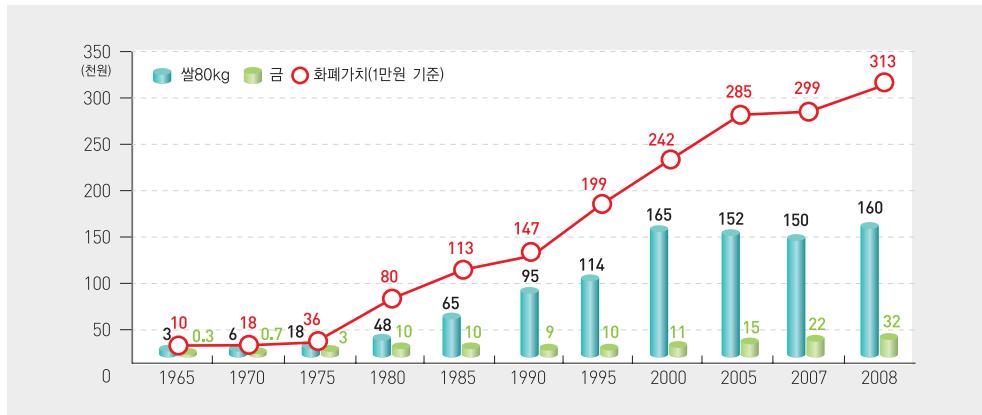
화폐가치

【 1965년 쌀 80Kg 3,324원이 2008년 159,957원으로 화폐가치 하락 】

화폐개혁에 따른 화폐액면가치 변화는 제1차 화폐개혁인 1953년 2월, 100원(圓)에서 1환으로 변경되었고, 제2차 화폐개혁인 1962년 6월 10환이 현재의 1원으로 바뀌었다.

1965년 쌀값을 기준으로 2008년까지 환산하면 상승률이 48배로 1965년 쌀80kg의 가격은 3,324원이었으며, 현재가치는 159,957원이고, 금가격은 1965년 1g당 344원이 2008년에는 32,296원으로 94배가 증가되었다.

물가의 상승으로 1965년 당시 1만원은 2008년 현재 313,000원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였고, 달리 표현하면 1965년 당시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품목을 2008년도에 구입하려면 313,000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단위 : 원, %)

연도	환산기준(1965년)			소비자물가지수(2005=100)	
	쌀(원/80kg) ¹⁾	금(원/g)	화폐가치(1만원)	총지수	상승률 ²⁾
1965	3,324	344	10,000	3.1	-
1970	5,784	746	18,000	5.7	19.3
1975	18,367	2,659	36,000	12.1	25.3
1980	47,663	10,388	80,000	27.6	28.1
1985	64,842	10,012	113,000	38.6	2.2
1990	95,156	9,479	147,000	50.0	7.6
1995	114,430	9,957	199,000	70.6	5.6
2000	165,320	10,705	242,000	85.4	2.3
2005	152,347	15,400	285,000	100.0	2.9
2007	150,368	21,739	299,000	105.1	2.4
2008	159,957	32,296	313,000	110.0	4.7

주1) 1940년기준 쌀 80kg 가격(22.68원)

주2)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문화 · 체육 】



084 문 화

087 체 육

089 관 광

문화



공공도서관

【 1일평균 도서관 이용자수는 1961년 181명에서 2008년 16,751명으로 93배 증가 】

대전관내 최초 도서관은 1923. 7월에 대전문고가 설립한 대전교육회로 당시에는 학생 및 일반인에게 열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용자수가 하루평균 117명이었으며, 이후 1961. 11. 7일에 대전시립도서관이 개관되어 장서수 6,103권 1일평균 이용자수가 181명으로 본격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시립도서관 개관 이후, 1989. 12. 20일 한밭도서관이 준공, 개관됨에 따라 현대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고, 이어 계속적인 도서관 증가로 2008년에는 전체 19개소 도서관과 총 좌석수 11,837석, 총장서 1,609,727권, 연간이용자수 6,114,327명, 1일평균이용자수 16,751명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시민이 편리하고 페적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연도	도서관수(개소)	좌석수(석)	장서수(권)	연간이용자수(명)	1일평균이용자수(명)
1961	1	-	6,103	66,065	181
1964	1	224	9,563	62,196	170
1970	1	696	14,541	134,796	369
1980	1	620	28,406	232,882	641
1990	3	7,058	235,676	1,381,010	3,784
2000	10	10,124	1,045,217	2,545,360	6,973
2005	15	10,331	1,492,262	5,690,286	15,589
2008	19	11,837	1,609,727	6,114,327	16,751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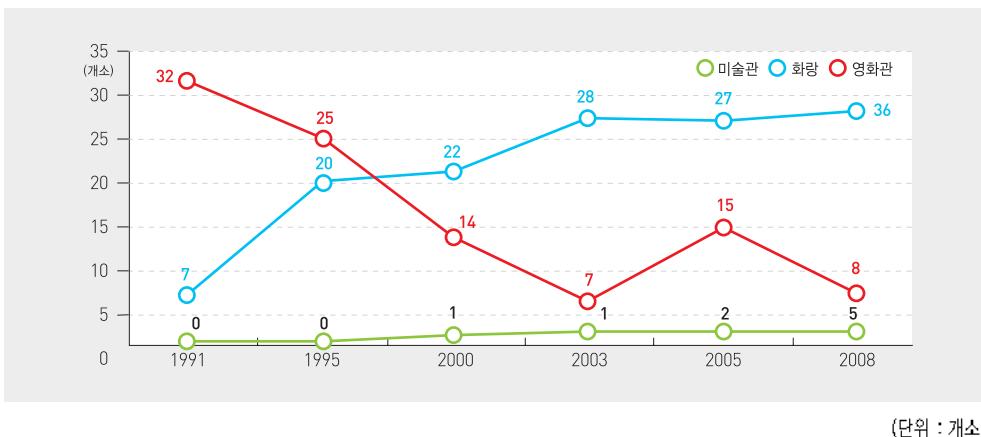
영화관 및 미술관

【 멀티플렉스형 대형 영화관 등장으로 1991년 31개에서 2008년 8개로 감소, 규모는 증가 】

해방이후 대전에 등록된 최초영화관은 1933년 경심관으로 전 대전극장이며, 대전에서 자체적으로 처음 제작된 영화는 30분짜리 '충남만유기'로 대전극장에서 상영하였다. 이처럼 해방 및 전쟁 이후 시민들은 영화 예술을 즐기기 시작하여, 1962년에 충남에는 33개소, 대전에는 9개소 극장이 있었으나, 1991년에는 영화관이 32개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1~2개 상영관으로 운영되던 소형 극장들은 점차 사라지고, 10여개 가량의 상영관을 가지는 멀티플렉스 형태의 영화관이 도입되면서 현재 영화관의 개수는 8개에 이르게 된다.

미술관은 1998. 04. 15일 대전시립미술관이 대지 28,827㎡에 개관한 이래로 대전시 미술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이후 점차 미술관이 증관되어 2008년 현재 5개의 미술관이 시민들의 예술 및 문화수준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1991년도 화랑은 7개소였으나, 시민의 문화적 수준 및 기대치 증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평생교육 활성화 등 활발한 예술활동으로 인한 작품전시회 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총 36개의 화랑에서 대전시의 예술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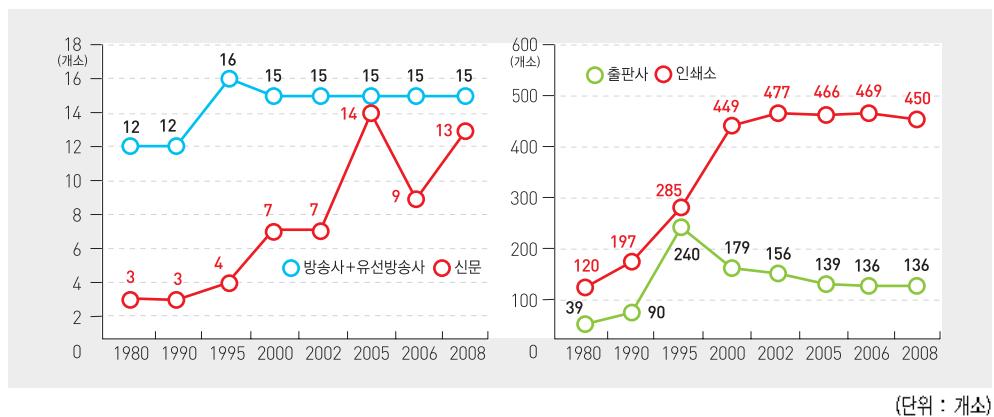
언론 · 출판

【 1980년 대비 신문사 및 출판사 각각 4배, 3배 증가 】

1940년대 조선방송협회 대전출장소가 행정업무만을 담당하다 1942년 조선방송협회 대전방송국으로 승격됨으로써 방송을 시작하였고, 이후 1986년 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총국으로 개칭되었으며, 대전문화방송(주)과 더불어 중부권 최대 방송 서비스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에는 3개 TV, 7개 라디오, 5개 유선방송사가 있다.

대전의 신문사의 경우 1950년 처음 전시속보판을 발행한 대전일보를 시작으로 중도일보와 대전매일 신문이 주축이 되어 대전의 신문역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2008년에는 13개 신문사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판사의 경우 1950. 12. 15일에 설립된 대흥프린트 출판사가 관청납품 프린트물을 취급하면서 대전 출판업이 시작되었고, 1960년대 출판등록 규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판업 및 인쇄업이 주춤하였으나, 1980년대 출판등록이 자유로워져 출판사 및 인쇄소가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동구 중동지역은 예전부터 인쇄 및 출판업이 특화된 골목으로 현재도 꾸준히 출판업 및 인쇄업이 유지되고 있다.



연도	방송사		유선방송사	신문	출판사	인쇄소
	TV	라디오				
1980	2	2	8	3	39	120
1990	2	2	8	3	90	197
1995	3	3	10	4	240	285
2000	3	6	6	7	179	449
2002	3	7	5	7	156	477
2005	3	7	5	14	139	466
2006	3	7	5	9	136	469
2008	3	7	5	13	136	450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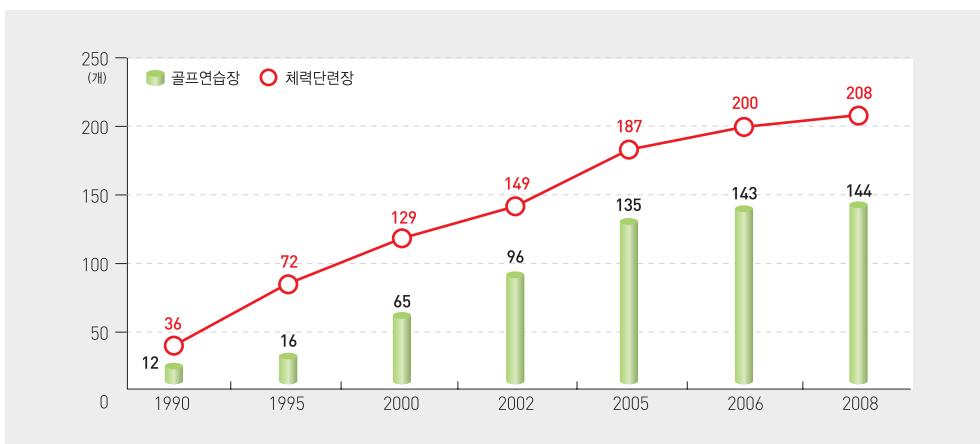


체육시설

【 골프의 인기상승과 더불어 골프연습장은 1990년 12개소에서 2008년 144개소 12배 증가 】

수영장은 수영이 남녀노소 건강관리 유지에 인기있는 스포츠로 꾸준히 각광받고 있어 1990년 6개에서 2008년 27개로 5배 증가하였다.

골프연습장 및 체력단련장은 과거에 특권층만이 누리던 운동이였으나, 최근 웰빙바람이 불면서 대중화가 됨에 따라 골프연습장은 1990년대에 12개소에서 2008년도 144개소로 12배 증가하였고, 체력단련장은 1990년도 36개소에서 2008년 208개소로 5.7배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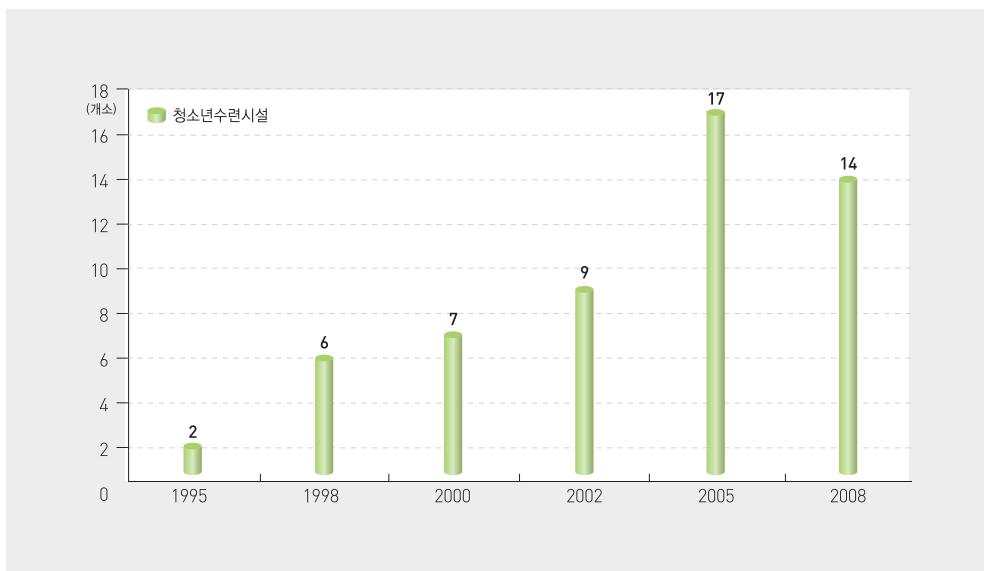
연도	실내체육관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당구장
1990	2	6	12	36	141	478
1995	4	12	16	72	174	797
2000	6	19	65	129	241	698
2002	11	22	96	149	279	424
2005	11	22	135	187	305	429
2006	11	22	143	200	316	426
2008	12	27	144	208	352	503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의 심신수양과 체력단련의 장은 1995년 2개에서 2008년 14개로 7배 증가 】

청소년 수련관은 1998년 3개 기관에서 최근까지 변동이 없으나,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 증대와 관련하여 2000년 1개의 문화의 집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대전 내 8개의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및 수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연도	합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1995	2	-	-	1	-	1
1998	6	3	-	1	-	2
2000	7	3	1	2	-	1
2002	9	3	3	2	-	1
2005	17	3	11	1	1	1
2008	14	3	8	1	1	1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관광



관광사업체

【'93 대전엑스포 개최 등에 따라 최대 3천만명 관광객 방문】

IMF 경제위기 극복 이후 생활수준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국내 및 해외여행객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에 관내 여행사가 1990년 41업체에서 2008년 343개 업체로 8배 증가하였다.

예로부터 '온천수가 영험하다' 하여 온천관광 시대를 열어온 유성은 1967. 12. 30일 유성호텔을 시작으로 호텔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93 대전엑스포 이후 호텔업이 최대 25개까지 증가하여, 대전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일부 호텔업이 폐업되어 23개에 머무르고 있다.

대전은 대전8경과 같은 자연경관 및 남간정사와 같은 유적지의 문화가 살아있는 운치있는 고장으로 교통 환경이 좋아 관광객이 꾸준히 천만명 이상 방문하였고, 1993년에는 '대전엑스포' 개최 등의 영향으로 각지에서 31,694,116명의 관광객들이 대전을 방문하였다. 이후 대전 주변 지역의 지역축제 등의 과열 홍보 등으로 관광객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대전 동물원등 새로운 가족중심 관광지 개발로 인해 2008년 15,747,617명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연도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수
1990	41	21	14,191,654
1993	67	24	31,694,116
1995	121	25	30,901,141
1998	197	25	14,388,279
2000	287	23	13,037,325
2002	285	24	15,713,521
2005	333	22	10,167,483
2007	339	21	10,858,791
2008	343	23	15,747,617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 복 지 】



92 사회복지

97 의료보건

101 기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2000년 1만 7천 가구에서 2008년 2만 4천 가구로 33% 증가 】

일반수급자는 2000년 39,979명에서 2008년 43,024명으로 7.6% 증가되었고, 시설수급자는 2000년 3,278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8년 3,028로 8% 감소하였다. 일정한 조건 미비로 특례수급자 혜택을 보게 된 대상자도 2000년 377명에서 2008년 489명으로 30% 증가되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 혜택의 대부분이 구빈구호 차원인 양적인 복지정책을 펼쳤으나, 최근 들어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등 근로구호로써 스스로 일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사회복지정책으로 변화되어, 빈부격차를 줄이고 노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단위 : 가구, 명)

연도	합계		일반수급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00	17,751	43,634	17,520	39,979	36	3,278	231	377
2002	16,718	37,721	16,387	33,814	39	3,479	331	428
2005	21,200	44,099	20,706	40,267	40	3,151	494	681
2006	22,162	45,138	21,716	41,342	42	3,151	446	645
2007	23,193	46,490	22,796	42,700	47	3,172	397	618
2008	23,553	46,541	23,267	43,024	47	3,028	286	489

자료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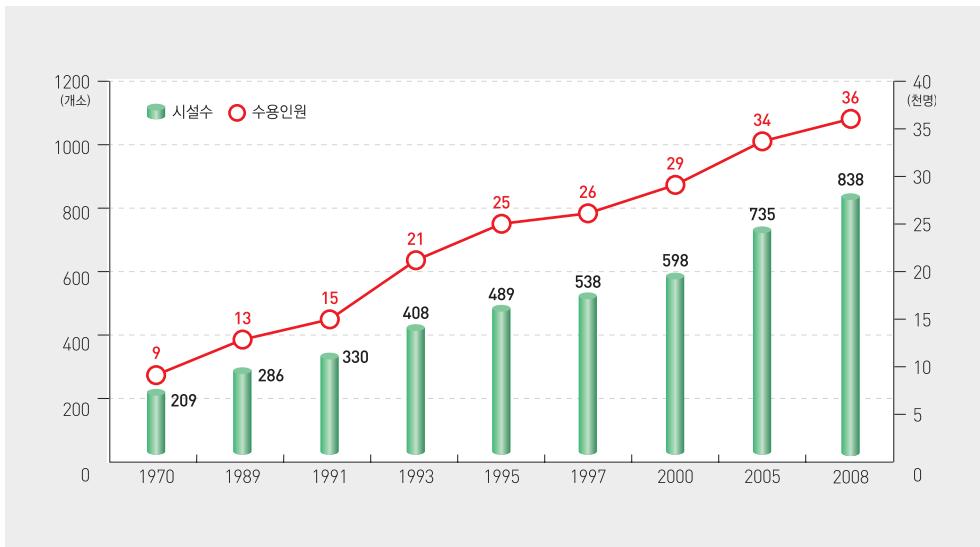
2000년 이후 기준 변경(거액, 자활, 시설보호 ▶ 일반, 특례, 시설수급자)

노인복지시설

【 노인들의 정신적 위안처 및 안정된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 1970년에 비해 4배 증가 】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수는 1970년 1개소, 수용인원 10명에서 2008년에는 108개소, 수용인원 3,422명으로 증가 되었다.

경로당의 경우에는 1970년 208개소 8,815명의 수용인원에서 2008년 730개소 35,547명의 수용인원으로 노인여가시설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연도	합계		경로당(노인정)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1970	209	8,825	208	8,815	1	10
1989	286	12,720	284	12,593	2	127
1991	330	15,101	328	14,980	2	121
1993	408	21,057	404	20,868	4	189
1995	489	25,276	485	25,067	4	209
1997	538	26,068	534	25,869	4	199
2000	598	28,911	592	28,694	6	217
2005	735	33,519	675	30,897	60	2,622
2008	838	35,969	730	35,547	108	3,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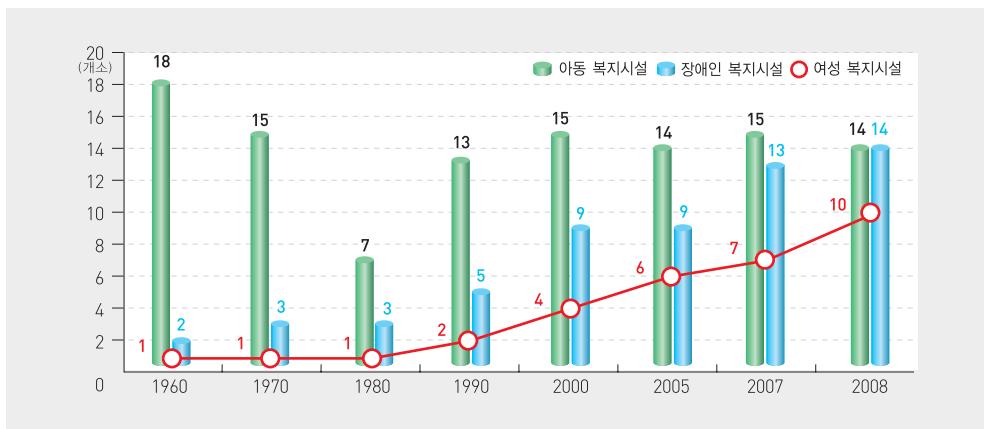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아동 · 여성 · 장애인 복지시설

【 2006년 21개소에서 2008년 38개소로 2배 규모 증가 】

사회의 취약계층에 있는 요보호성 대상자를 방치하게 되면, 범죄나 비행으로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아동 · 여성 · 장애인 복지시설수가 증가함에따라 1960년 총 21개소에서 2008년 총 38개소로 복지시설 규모가 2배 증가하였다. 반면 수용인원은 시설수 증가에 비해 점차 감소하여 1960년 2,023명에서 2008년 1,711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 시설당 수용인원이 1960년 96명에서 2008년 45명으로 감소된 바, 시설수용여건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최근의 출생률 감소 등과 같은 아동인구 감소와 경제 및 생활수준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용인원이 점차 줄고 있어, 1960년대 1,789명에서 2008년 685명으로 62% 감소하였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문제를 관심 갖지 않았던 1960년에 비해 미혼모 증가 및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증가에 따라 여성인권보호에 관심이 증가하여 1960년대 1개소였던 여성복지시설이 최근에는 10개소로 증가하였다.



(단위 : 개소, 명)

연도	합계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1960	21	2,023	18	1,789	1	111	2	123
1970	19	2,085	15	1,698	1	69	3	318
1980	11	932	7	530	1	61	3	341
1990	20	2,026	13	1,219	2	120	5	687
2000	28	1562	15	736	4	114	9	712
2005	29	1480	14	635	6	169	9	676
2007	35	1484	15	590	7	156	13	738
2008	38	1,711	14	685	10	236	14	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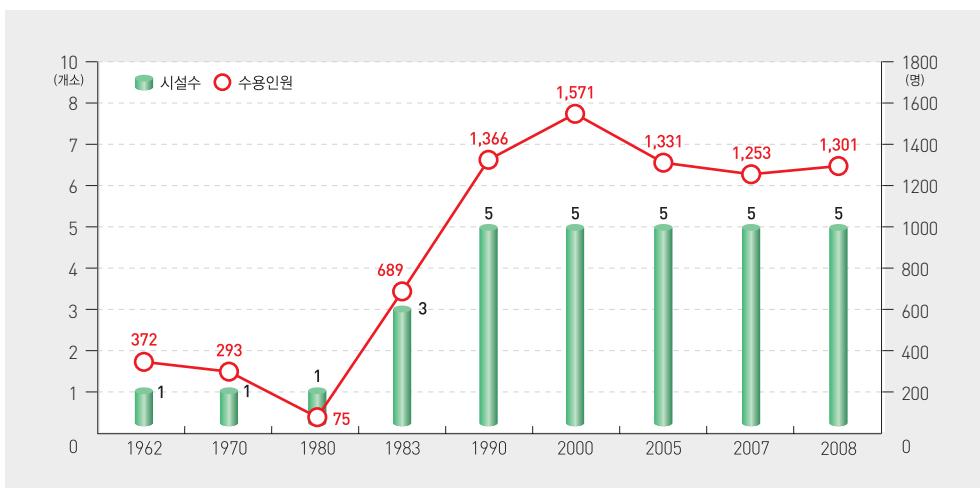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정신질환자 및 부랑인시설

【 1989년 직할시 승격이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부랑인 시설이 총 5개소로 증가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1983년 2개의 시설에서 543명을 수용하였으나, 차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 시설이 증대되어 2008년 4개소에서 총 1,070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시기였던 1962년 대전의 부랑인 시설은 1개소로 당시 수용되었던 부랑인 수는 372명이었고, 점차 감소하였으나, 이후 IMF 경제위기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빈부갈등 요인으로 부랑인 시설 수용인원은 2008년 231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수용된 부랑인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에 대한 의욕증진 및 사회 적응 훈련으로 새로운 삶을 얻고 있다.



(단위 : 개소, 명)

연도	합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1962	1	372	-	-	1	372
1970	1	293	-	-	1	293
1980	1	75	-	-	1	75
1983	3	689	2	543	1	146
1990	5	1,366	4	1,124	1	242
2000	5	1,571	4	1,337	1	234
2005	5	1,331	4	1,137	1	194
2007	5	1,253	4	1,077	1	176
2008	5	1,301	4	1,070	1	231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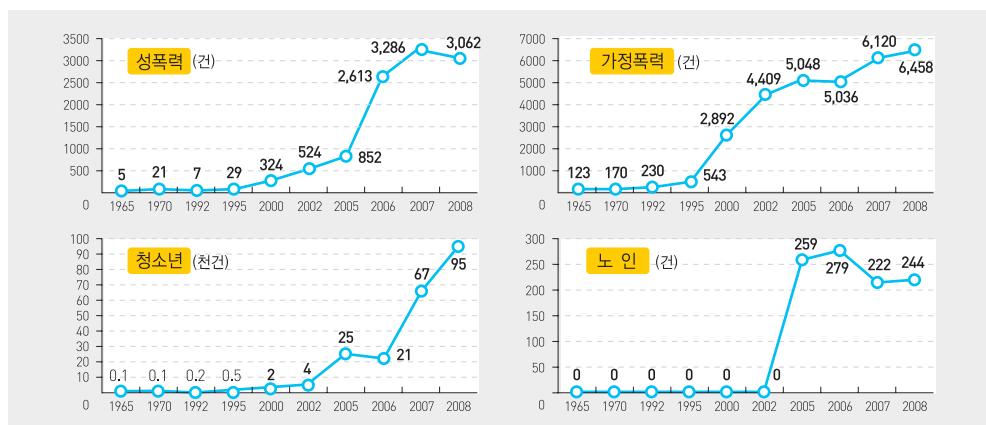
상담실적

【 1965년 총 상담실적 237건에서 2008년 104,612건으로 441배 증가 】

대전의 상담소는 1965년 1개소에서 상담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2008년 13개소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2005년에는 노인상담소가 설치되어 노인 학대등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였다.

대전시에서는 1972. 11. 10일 부녀아동상담소를 설치하여 관 주도의 각종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부녀자의 신상, 가정사, 직업알선, 윤락행위 방지와 청소년들의 진로, 선도, 가정환경 등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1965년 총 237건 상담에서 2005년 30,81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8년 현재는 1965년 대비 441배가 증가한 104,612건에 다다른다. 전체 상담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청소년 상담은 2008년 94,848건이며 이는 1965년에 비해 870배 증가한 건 수이다.



(단위 : 건)

연도	상담소					상담실적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	노인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	노인
1965	1	1	-	-	-	237	5	123	109	-
1970	1	1	-	-	-	325	21	170	134	-
1992	1	1	-	-	-	457	7	230	220	-
1995	1	1	-	-	-	1,047	29	543	475	-
2000	6	2	3	1	-	5,283	324	2,892	2,067	-
2002	7	2	4	1	-	8,667	524	4,409	3,734	-
2005	10	4	4	1	1	30,816	852	5,048	24,657	259
2006	11	5	4	1	1	29,283	2,613	5,036	21,355	279
2007	12	5	4	2	1	76,450	3,286	6,120	66,822	222
2008	13	5	5	2	1	104,612	3,062	6,458	94,848	244

자료 대전광역시 각 상담소 / 1995년 이전은 성폭력 상담소에서 전체상담

의료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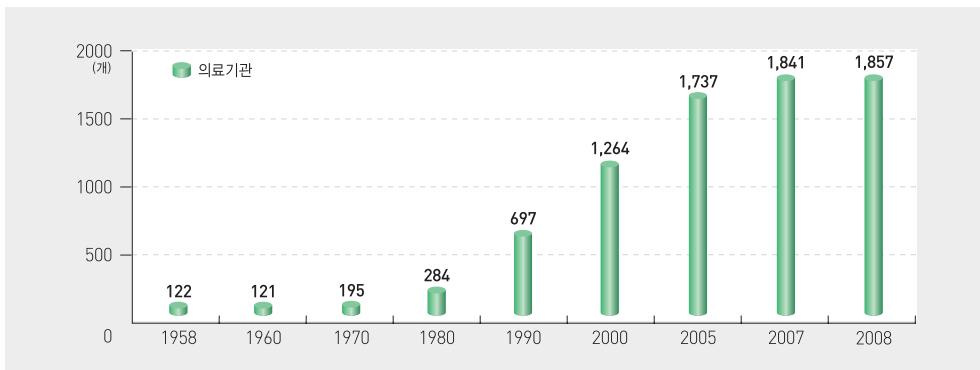


의료기관

【 의료기관은 1958년 122개에서 2008년 1,857개로 15배 증가되어 의료서비스 확대화 】

1922년 11월 대전 자혜병원을 시작으로 1958년 전체 의료기관이 122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2008년은 1,857로 15배 증가하였다.

종합병원은 1958년 1개였으나 2008년에는 9개로 증가했고, 의료기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은 1958년 83개에서 2008년 984개로 증가하였다. 한방병(의)원과 치과병(의)원도 1958년 각각 24개, 14개에서 2008년 413개, 430개로 늘어 대민의료서비스 폭이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인구의 노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의료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단위 : 개)

연도	합계	종합병원	병(의)원	한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조산소	보건소	기타
1958	122	1	83	24	14	-	-	-
1960	121	1	79	24	17	-	1	-
1970	195	1	99	51	28	16	4	-
1980	284	2	151	64	42	15	2	10
1990	697	6	365	153	156	8	18	9
2000	1,264	8	642	271	323	4	5	11
2005	1,737	8	963	364	379	2	5	11
2007	1,841	9	977	396	406	3	5	13
2008	1,857	9	984	413	430	3	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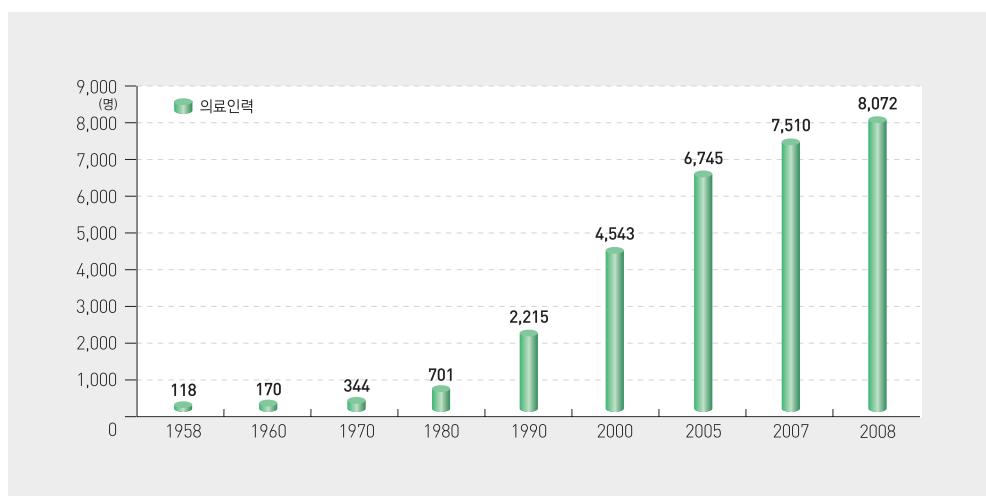
주 기타는 특수병원과 부설의원을 말하며, 보건소는 총 계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의료인력

【 의료인력은 1958년 118명에서 2008년 8,072명으로 63배 증가 】

1958년 의료인력은 118명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을 면치 못했으나, 2008년에는 8,072명으로 63배나 증가하여 풍부한 의료인력을 갖추게 되었다(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등을 제외한 숫자임).

일반의사는 1958년 80명에서 2008년 3,050명으로 증가하였고, 간호사는 1960년 25명에서 2008년 3,874명, 치과의사는 1958년 14명에서 2008년 610명, 한의사는 1958년 24명에서 2008년 52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위 : 명)

연도	합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1958	118	80	14	24	-	-
1960	170	81	17	24	23	25
1970	344	140	28	51	16	109
1980	701	337	50	59	34	221
1990	2,215	929	170	194	11	911
2000	4,543	1,938	359	341	9	1,896
2005	6,745	2,575	471	456	14	3,229
2007	7,510	2,785	532	505	13	3,675
2008	8,072	3,050	610	525	13	3,874

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약사 등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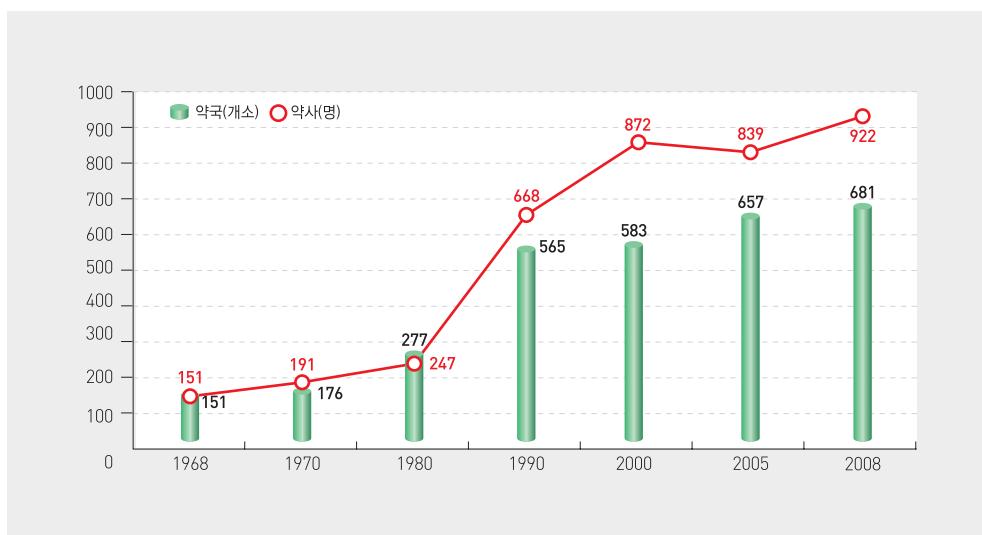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약국 및 약사

【 약국은 1961년 77개소에서 2008년 681개소로 7배 증가 】

간단한 치료나 응급 상황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은 1961년 77개소로 약국당 인구수는 3,041명이었고, 이후 병(의)원 증가 및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약국이 크게 늘어나 현재는 681개로 9 배 증가하여 약국당 인구수가 2,185로 감소하였다.

약사는 1968년 당시 151명으로 약사 1인당 인구수는 2,328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922명으로 늘어나 약사 1인당 인구수가 1,614명으로 감소하였다.



(단위 : 개소, 명)

연도	약판매업소	약국	약국당 인구수	약사	약사 1인당 인구수
				약국(개소)	약사(명)
1961	194	77	3,041	-	-
1968	275	151	2,328	151	2,328
1970	300	176	2,356	191	2,171
1980	336	277	2,352	247	2,638
1990	921	565	1,880	668	1,590
2000	1,152	583	2,385	872	1,594
2005	1,673	657	2,226	839	1,743
2008	794	681	2,185	922	1,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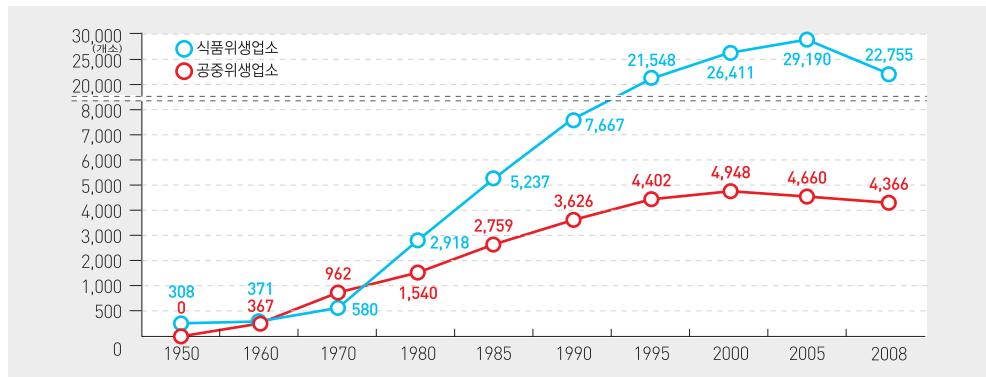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위생업소

【 대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및 소득향상에 따라 다양한 식생활 및 공중위생문화 변화 】

식품위생업소는 1950년 일반음식점이 118개소, 다방과 같은 음료점업이 69개소, 식품제조업이 80개소였으나, 이후 행정구역 확대 및 인구증가 등의 영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 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해 2005년 일반음식점이 최대 19,031개까지 증가하였고, 기타 식품판매업등과 같은 식품위생업소가 2005년 최대 5,649개소로 까지 증가하였다.

공중위생업소는 1960년 총 367개소에서 2008년 4,366개소에 이르기까지 11.9배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미용업이 1960년 158개소에서 2,570개소로 16.3배 증가하여 가장 큰 성장을 보인다. 목욕업의 경우에는 2000년 최대 261개소로 증가하나, 짐질방 등과 같은 대형 목욕업 등장으로 소규모 목욕탕 경기가 어려워져 2008년에는 200개소로 감소하였다.



(단위 : 개소)

연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일반음식점	음료점업 ¹⁾	주점 ²⁾	식품제조업	기타 ³⁾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1950	308	118	69	...	80	41
1960	371	135	90	...	93	53	367	187	158	-	22
1970	580	229	144	...	94	113	962	413	290	223	36
1980	2,918	2,456	345	...	66	1	1,540	385	498	580	77
1985	5,237	3,702	1,044	...	187	6	2,759	574	1,145	875	165
1990	7,667	5,632	1,381	...	279	28	3,626	713	1,712	974	227
1995	21,548	13,863	1,387	820	2,112	3,366	4,402	876	2,274	998	254
2000	26,411	17,859	1,390	1,022	2,050	4,090	4,948	898	2,825	964	261
2005	29,190	19,031	904	916	2,690	5,649	4,660	731	2,640	1,056	233
2008	22,755	18,473	639	890	2,814	4,831	4,366	637	2,570	959	200

주1) 커피숍, 다방 등

주2) 일반주점(호프집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3) 식품판매업 등 포함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 1959년 834명에서 2008년 9,624명으로 12배 증가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에게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과 같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보호, 대부 등을 지원받는데, 이러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년 증가하여, 1959년 834명에서 2008년 9,624명으로 12배 증가하였다.

보훈대상자 중 전상·공상군경은 1964년 378명에서 2008년 3,17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족은 929명에서 2,860명으로 증가되었고, 기타 보훈대상자도 1964년 10명에서 2008년 3,594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전체 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는 188명이다.



(단위 : 명)

연도	합계	전상·공상군경	유족	기타
1959	834	-	-	-
1964	1,317	378	929	10
1971	1,547	539	995	13
1980	1,968	722	1,026	220
1990	4,057	1,102	1,563	1,392
2000	6,027	1,676	2,578	1,773
2005	8,331	2,705	3,751	1,875
2007	9,203	3,082	3,836	2,285
2008	9,624	3,170	2,860	3,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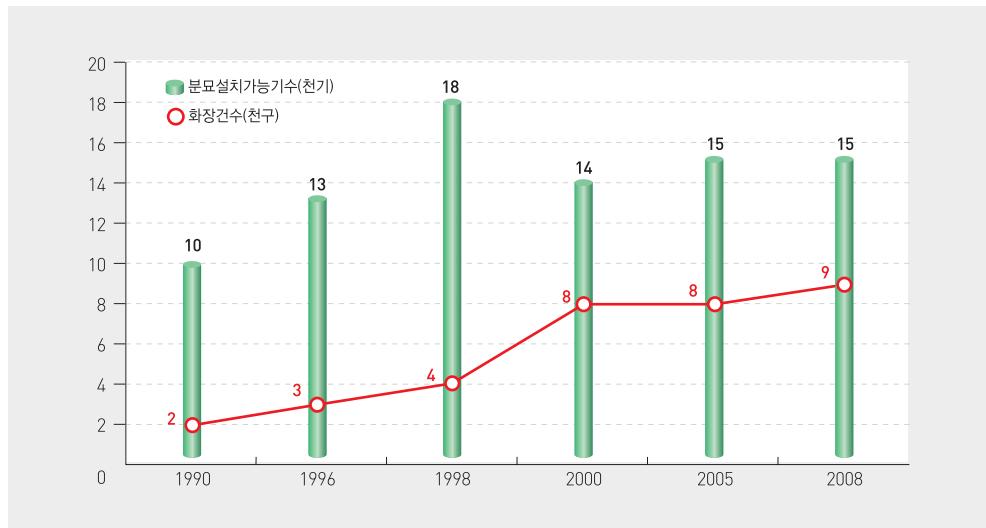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성장통계』, 대전지방보훈청

공설묘지(화장장)

【 전통적인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장례문화 점차 변화 】

매장방식에 따른 분묘조성건수는 1990년 10,258건에서 2008년 15,384건으로 75% 증가되었고, 이중 공설묘지는 1990년 10,258건에서 2008년 10,433건으로 1.7% 증가되고, 사설공동묘지는 1996년 3,503건에서 2008년 4,951건으로 41% 증가되었다.

화장건수를 보면 1990년 1,987건에서 2008년 8,544건으로 4.3배 증가하여, 전통적인 매장문화에서 납골당의 화장문화 방식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다.



(단위 : 개소, 구)

연도	매장						화장장		
	계		공설묘지		사설묘지		화장장		
	개소	분묘설치 가능기수	개소	분묘설치 가능기수	개소	분묘설치 가능기수	개소	화로수	화장건수
1990	1	10,258	1	10,258	-	-	1	4	1,987
1996	2	12,761	1	12,258	1	3,503	1	5	2,740
1998	2	17,903	1	14,400	1	3,503	1	5	4,175
2000	2	13,936	1	10,433	1	3,503	1	5	7,936
2005	2	14,789	1	10,433	1	4,356	1	9	7,794
2008	2	15,384	1	10,433	1	4,951	1	7	8,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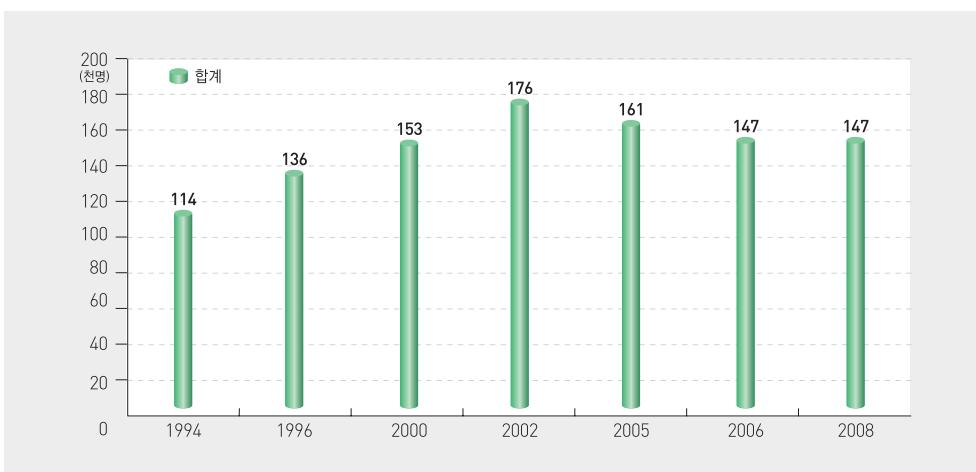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현혈 실적

【 2002년 현혈자수 최대 17만명, 그 중 20~29세 젊은층의 현혈비율이 67%로 가장 높아 】

과거 고등학생 및 군인과 같은 단체 현혈에 의존하던 시기인 1990년대 초반에는 29세 이하의 청장년 층 현혈 건수가 전체 114,072건의 95%를 차지하였으나, 단체현혈이 일회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한 적십자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 전략으로 2002년 대전의 현혈자수가 최대 175,676명에 이르렀다.

최근 늘어나는 혈액 수요에도 불구하고, 혈액관리 부실사건 등 현혈 기피 등으로 2002년 이후로 점차 현혈인구가 감소하여, 2008년 현재 총 현혈건수는 146,597건으로 2002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그러나 특이점으로는 1994년에 40세 이상의 장년층 현혈건수가 전체 2%를 차지하였는데 2008년에는 전체 6%로 점차 장년층 현혈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계	(단위 : 명)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4	114,072	31,838	76,385	3,410	1,931	486	22
1996	136,185	51,589	87,309	4,213	2,398	638	38
2000	152,763	43,038	99,899	6,036	2,824	848	118
2002	175,676	45,770	118,135	7,263	3,282	1,064	162
2005	161,312	61,606	80,329	12,144	5,469	1,573	191
2006	146,852	54,981	70,486	12,953	6,475	1,767	190
2008	146,597	60,268	64,466	13,145	6,758	1,796	164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 ● ● 【 환경 · 녹지 】



106 환경

113 폐기물

116 공원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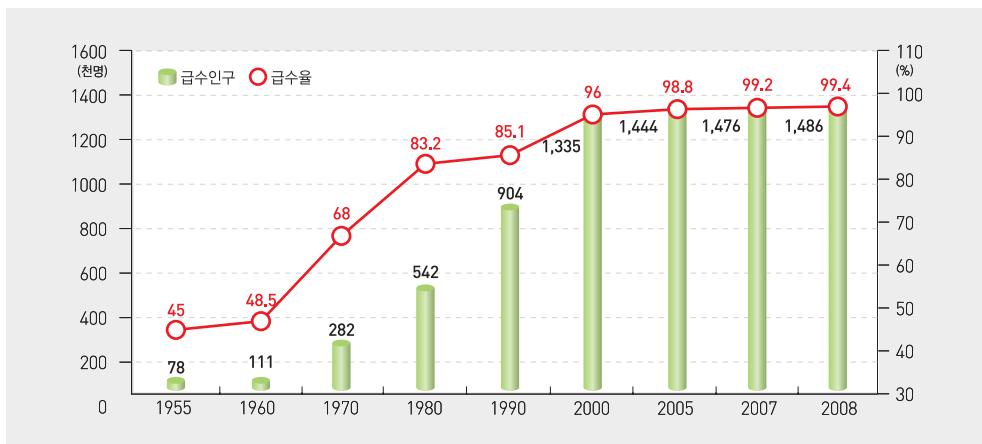


상수도

【 상수도 보급률 1955년 45%에서 2008년 99.4%로 54.4%p 증가 】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및 문화생활 향상,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라 1934년 3월 세천의 식장산 북측계곡을 막아 수원지를 축조하여 급수량 3,500m³ 규모의 판암동 정수장을 시작으로 대전의 상수도 보급률은 1955년 45%에서 2008년 99.4%로 54.4%p 증가하였으며, 상수원은 대청댐이 활용되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상수도 급수인구는 1955년 77,913명에서 2008년 1,485,648명에 이르며, 상수도 시설의 확대로 1일 급수량도 1955년 5,000m³에서 2008년 506,004m³로 101배 이상 증가하였고, 1일 1인 급수량도 1955년 64ℓ에서 341ℓ로 5배 증가하였다.



연도	인구수(명)	급수인구(명)	급수율(%)	1일급수량(m ³ /일)	1일1인급수량(ℓ)
1955	173,143	77,913	45.0	5,000	64
1960	229,393	111,192	48.5	13,500	121
1970	414,598	281,899	68.0	46,500	165
1980	651,642	542,009	83.2	109,214	201
1990	1,062,084	903,833	85.1	302,592	335
2000	1,390,510	1,334,510	96.0	541,869	416
2005	1,462,535	1,444,289	98.8	530,793	368
2007	1,487,836	1,475,974	99.2	512,006	347
2008	1,495,048	1,485,648	99.4	506,004	341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성장통계』

하수처리장 및 처리실적

【 1일 하수처리 용량 1990년 127천 톤에서 2008년 2,466천 톤으로 19배 증가 】

최초 하수처리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가는 영국으로 1859년 테임즈 강의 오염을 슬러지기법을 도입하여 하수처리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대전시는 1986년 표준 활성 슬러지기법을 적용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 150톤, 배수면적 16.7㎢의 1차 처리방식)을 처음 가동하였다.

1일 하수처리 용량은 1990년 127천 톤에서 2,466천 톤으로 19배 증가하였고, 연간처리실적의 경우도 1990년 46,355천 톤에서 2008년 900,000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하수처리처리비용의 경우 1990년 1,122백만 원에서 16,868백만 원으로 15배 증가하였다.

하수처리 보급률은 1990년 72.9%에서 2008년 96.1%로 32%로가 증가되어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도	1일처리용량(천톤)	연간처리실적(천톤)	처리수질(PPM)		오너발생량(㎥)	처리비용(백만원)	보급률(%)
			유입	방류			
1990	127	46,355	91.8	27.1	7,461	1,122	72.9
1992	142	51,830	98.2	13.2	24,461	1,518	73.6
1994	213	79,750	143.3	11.4	41,343	2,933	83.0
1996	302	110,520	79.3	14.1	35,192	4,414	83.0
1998	600	213,194	92.3	12.5	50,624	5,538	90.2
2000	1,689	616,377	98.5	10.3	53,000	6,334	93.0
2005	1,753	639,738	85.0	9.6	74,000	12,609	94.8
2008	2,466	900,000	95.5	8.4	98,000	16,868	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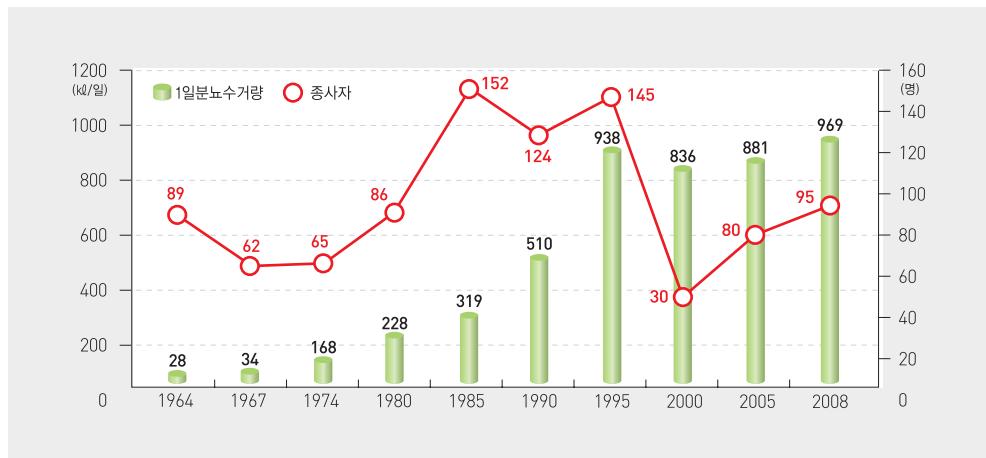
주 2008년은 잠정치임
자료 대전광역시「성장통계」, 맑은물정책과

분뇨 수거

【 1일 분뇨수거량은 1964년 28㎘에서 2008년 969㎘로 34.6배 증가 】

행정구역 확대에 따른 인구증가와 아파트 단지 및 대형건물과 같은 도시 개발 등에 따라 1일 분뇨수거량은 1964년 28㎘에서 2008년 969㎘로 34.6배 증가되었으며, 연간 수거량은 2008년 354㎘에 이른다.

분뇨처리장비는 1967년 차량 3대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53대로 18배 늘어났고, 분뇨 수거 종사자도 1964년 89명에서 1985년 152명으로 최대 2배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95명으로 1985년 대비 절반이상 감소하였다.



연도	수거량		장비		종사자 (명)
	㎘/일	천㎘/년	차량(대)	수하차(대)	
1964	28	10	-	88	89
1967	34	13	3	50	62
1974	168	61	6	12	65
1980	228	83	19	10	86
1985	319	86	50	0	152
1990	510	186	60	0	124
1995	938	344	64	0	145
2000	836	506	15	0	30
2005	881	322	48	0	80
2008	969	354	53	0	95

주 1964, 1967, 1974년 수하차는 우마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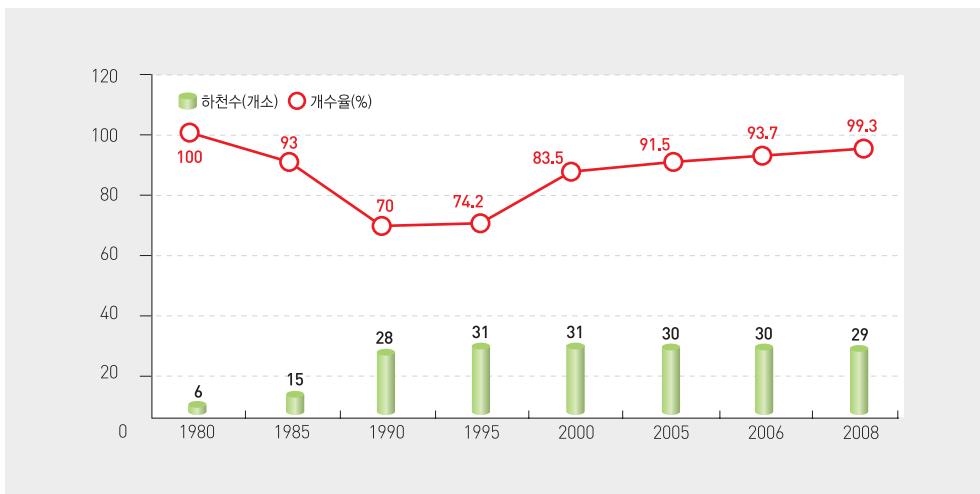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하천

【 전체 29개 하천, 99.3% 개수율 】

대전을 관류하는 하천 중 대표적인 3대 하천은 갑천, 유동천, 대전천으로, 이중 갑천은 대전권역의 북단부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으로 금강 제1류지, 유동천 제2류지, 대전천 제3류지에 해당된다. 하천의 이상적인 개발은 친수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흉수 시에도 유유히 막힌데 없이 잘빠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생태하천 관리의 기본인데, 1980년대 하천수는 6개에서 2008년 29개로 4.8배 증가되어 그 만큼 오염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천개수 현황은 1980년 기개수 38.9km로 100%의 개수율을 보였으나, 추후 요개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요개수 290.1km, 기개수 288.1km로 개수율 99.3%를 보이고 있다.



(단위 : 개소, km)

연도	하천수	총연장	요개수	개수율(%)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1980	6	38.9	38.9	38.9	0	100.0
1985	15	88.1	158.5	142.8	15.8	93.0
1990	28	227.6	330.6	231.5	99.0	70.0
1995	31	203.6	312.9	232.1	80.8	74.2
2000	31	224.7	320.3	267.6	52.7	83.5
2005	30	213.7	311.3	288.3	23.0	91.5
2006	30	213.7	311.3	291.6	19.7	93.7
2008	29	213.2	290.1	288.1	2.0	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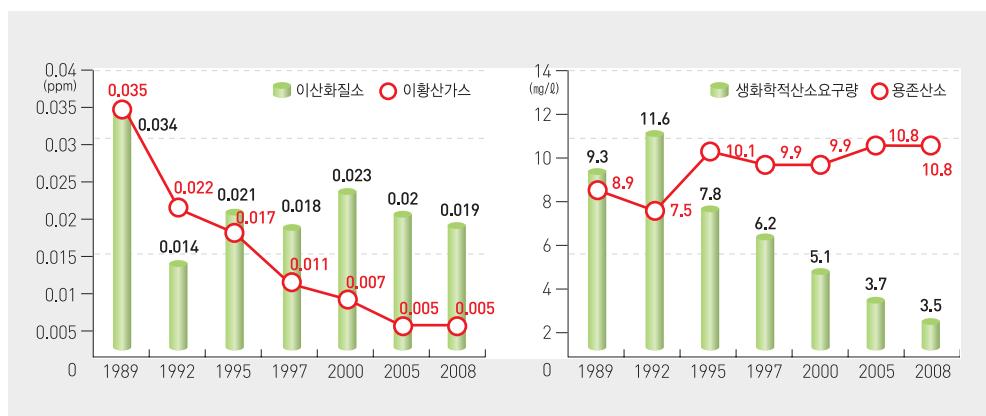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대기 및 수질 오염도

【 1989년 이후 수질이 개선되고, 공기도 맑아져 】

1990년대 들어서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개선에 힘쓴 결과, 대기 중 아황산가스는 1989년 0.035ppm에서 2008년 0.005ppm으로, 이산화질소는 0.034ppm에서 0.019ppm, 먼지는 $119\mu\text{g}/\text{m}^3$ 에서 $49\mu\text{g}/\text{m}^3$ 으로 개선되어 공기가 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질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대하면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1989년 9.3mg/l 에서 2008년 3.5mg/l 로 낮아졌고, 부유물질은 10.2mg/l 에서 6.3mg/l 로 낮아졌으며, 또한 용존산소량이 8.9mg/l 에서 10.8mg/l 로 증가하여,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소, 명)

연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아황산가스 (ppm)	이산화질소 (ppm)	먼지 ($\mu\text{g}/\text{m}^3$)	생물학적산소 요구량 (mg/l)	수소이온 농도 (mg/l)	부유물질 (mg/l)	용존산소 (mg/l)
1989	0.035	0.034	119	9.3	-	10.2	8.9
1992	0.022	0.014	52	11.6	7.3	11.3	7.5
1995	0.017	0.021	69	7.8	8.1	12.6	10.1
1997	0.011	0.018	63	6.2	7.5	10.4	9.9
2000	0.007	0.023	51	5.1	7.8	6.8	9.9
2005	0.005	0.020	48	3.7	7.9	6.6	10.8
2008	0.005	0.019	49	3.5	8.3	6.3	10.8

자료 대기오염 – 대전광역시「성장통계」
수질오염 – 「국가수질측정망」감천 조사치임

대전기준

- 아황산가스 : 0.015ppm 이하
- 이산화질소 : 0.4ppm 이하
- 미세 먼지 : $50\mu\text{g}/\text{m}^3$ 이하
- 오존 : 0.06ppm 이하

2등급수 목표치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 3.0ppm 이하
- 수소이온 농도 : 6.5~8.5 사이
- 부유물질 : 25ppm 이하
- 용존산소 : 5ppm 이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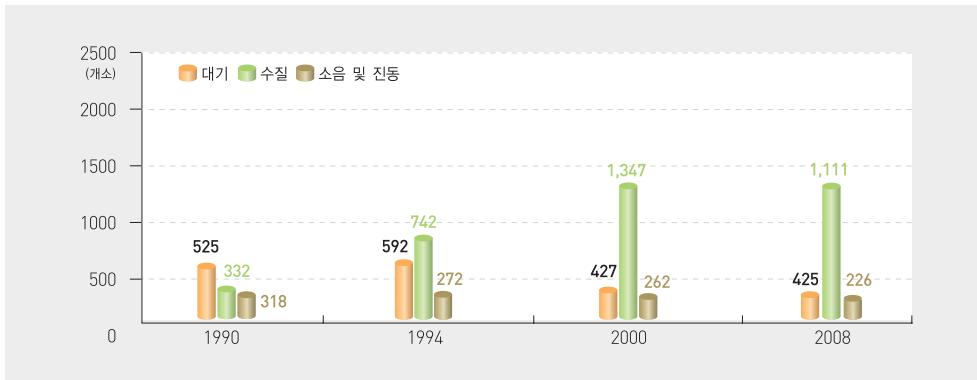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1990년 1,175개소에서 2008년 1,762개소로 증가 】

전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1990년 1,175개소였으나, 산업단지와 같은 공단 조성 등으로 최대 2,036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8년 1,762개소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1990년 대비로는 50%가 증가되었다.

대기오염 관련 배출시설은 1990년 525개소에서 1992년 693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 425개소로 19% 까지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구지역의 신시가지 개발과 동구 지역의 자연스런 폐업 등으로 공장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음의 경우 도시환경 문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로 특히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관련 시설을 설치 사업장은 1990년도 318개 사업장에서 1995년 최소 74개소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2008년 226개로 증가하였다.

수질오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는 1990년 332개소에서 2000년 1,347개소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에는 1,111개소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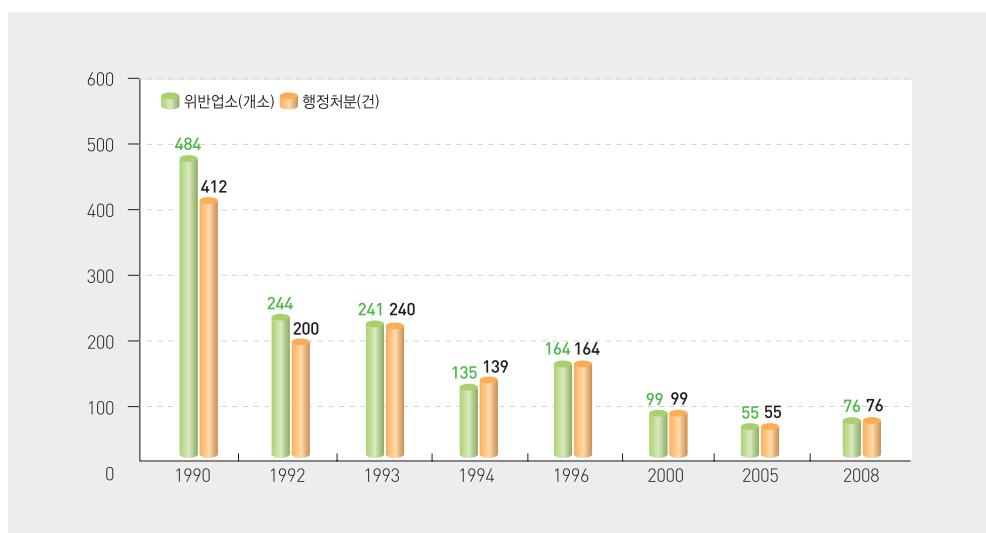
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계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1990	1,175	525	332	318
1992	1,896	693	736	467
1994	1,606	592	742	272
1996	1,352	508	770	74
2000	2,036	427	1,347	262
2005	1,590	374	999	217
2008	1,762	425	1,111	226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는 1990년 484개소에서 2008년 76개소로 84% 감소 】

전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시설물 등의 단속을 실시한 업소는 1990년 2,937개소에서 2008년 1,952개소로 34% 감소하였고, 이중 위반업소의 경우는 1990년 484개소에서 2008년 76개소로 84% 감소하였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속 강화로 위반업소 중 행정처분 비율은 1990년 85%에서 2008년에는 100%에 이른다.



(단위 : 개소, 건)

연도	배출업소	단속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
1990	981	2,937	484	412
1992	1,849	3,062	244	200
1993	1,844	3,669	241	240
1994	1,598	2,914	135	139
1996	1,352	1,918	164	164
2000	2,036	2,281	99	99
2005	1,590	1,921	55	55
2008	1,762	1,952	76	76

주 행정처분은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전명령,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을 말함(고발제외)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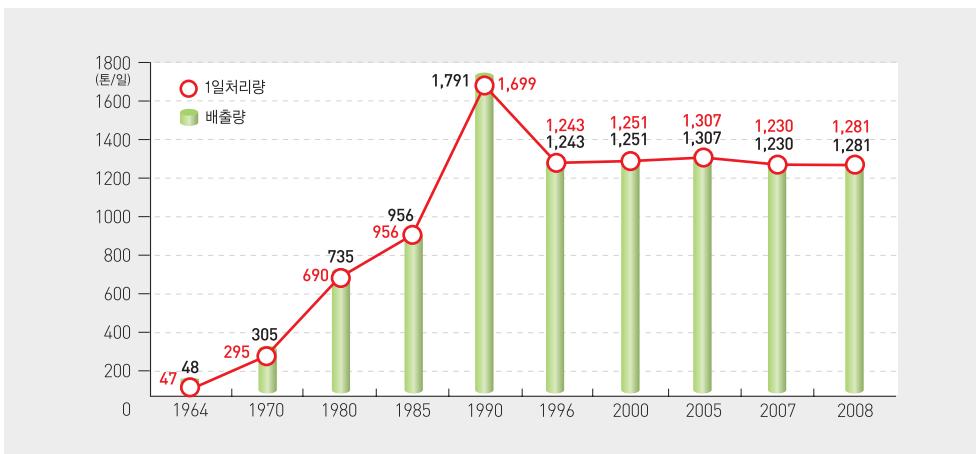
쓰레기 수거

【 쓰레기수거는 100%로 완벽 수거 】

1964년 쓰레기 배출량은 1일 48톤에서 처리량은 1일 47톤으로 수거율 97.9% 이었으나, 1996년부터는 총 쓰레기 배출량 1,243톤 중 처리량 1,243톤으로 쓰레기 처리율 100%를 기록하였고, 이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장비의 경우 차량은 1964년에는 2대에서 2008년 173대로 87배 증가하였으며, 수하차는 1964년 50대에서 2008년 405대로 8배 증가하였다.

종사자의 경우 1964년 60명에서 2008년 835명으로 14배 증가하였다.



연도	배출량 (톤/일)	처리량 (톤/일)	수거율 (%)	장비		종사자 (명)
				차량	수하차	
1964	48	47	97.9	2	50	60
1970	305	295	96.7
1980	735	690	93.9	31	206	378
1985	956	956	100.0	47	108	303
1990	1,791	1,699	94.9	91	386	868
1996	1,243	1,243	100.0	138	567	1,208
2000	1,251	1,251	100.0	138	551	1,014
2005	1,307	1,307	100.0	171	503	1,005
2007	1,230	1,230	100.0	173	405	834
2008	1,281	1,281	100.0	173	405	835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성장통계』

폐기물매립지

【 전체 매립용량 중 69% 기 매립 】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부터 조성하여 1996년 완공되었고, 1996년 당시의 면적은 570,416㎡(173천평)으로, 총 매립가능용량은 8,465천㎥ 이었다. 이후 폐기물 매립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기 매립량은 6,053천㎥이고, 잔여 매립가능량은 2,709천㎥ 이다. 최근에는 가정 쓰레기 중 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률 증가로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점차 줄고 있지만, 매립지의 잔여 매립가능량을 볼 때, 2025년 정도에는 매립이 포화됨에 따라 제2의 매립장 조성이 필요하다.



연도	개 소	면적(㎡)	총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여매립가능량(㎥)
1996	1	570,416	8,465,000	-	8,465,000
2000	1	570,416	8,465,000	2,674,850	5,790,150
2005	1	608,256	8,762,000	5,231,000	3,531,000
2007	1	608,256	8,762,000	5,959,115	2,802,885
2008	1	608,256	8,762,000	6,053,000	2,709,000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생활폐기물 처리

【 초기 매립방식에서 점차 소각 및 재활용 방식으로 변화 】

초창기 매립방법은 원시적이면서 매립 후 2차 오염 발생에 대한 추적연구도 전무한 상태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는 폐기물이 많았으나, 최근의 경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률이 63%로 증가되고 있고, 소각로 건설에 따른 소각율도 18%로 증가되어 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점차 감소 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1일 매립량의 경우 1995년 1,020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의 80.1%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소각 및 재활용에 의한 처리 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에는 1일 매립량이 229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의 19.3%로 1995년 대비 60.8%p 감소하였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수용연장에 따른 관리대책으로 소각로가 건설되어 점차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되어 소각처리량은 1995년 16(1.3%)톤에서 2008년도 251(18.0%)톤으로 16.7%p 증가하였다.

재활용률은 분리수거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시민들의 재활용 인식이 정착화 되어 1995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238(18.6%)톤이 재활용 되었으나, 이후 2008년에는 총 800(62.7%)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반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톤/일)

연도	계	매립		소각		재활용	
		%	%	%	%	%	%
1995	1,274	100	80.1	1.3	16	18.6	238
2000	1,251	100	50.3	13.8	173	35.9	449
2002	1,641	100	51.3	9.9	162	38.8	637
2004	1,349	100	46.6	9.0	122	44.4	598
2005	1,308	100	20.7	17.6	230	61.7	807
2006	1,331	100	19.2	19.3	257	61.5	820
2007	1,230	100	18.4	19.8	243	61.8	760
2008	1,280	100	19.3	18.0	251	62.7	800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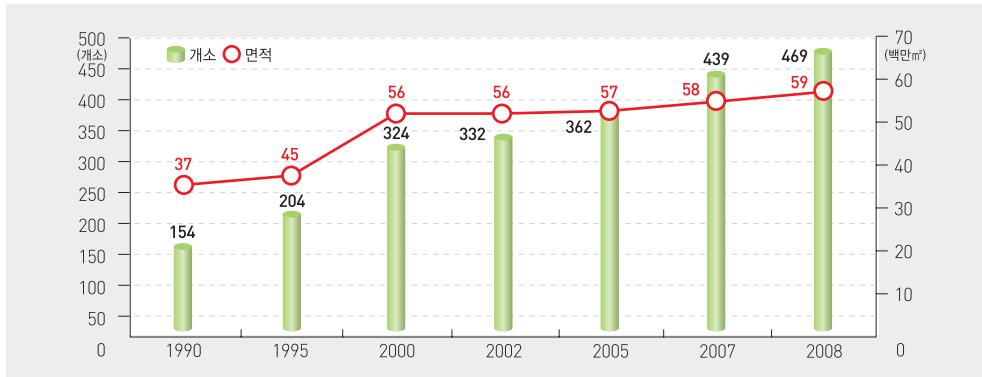


공원

【 도심속 균린공원등의 증가로 대전 공원은 1990년 총 154개소에서 2008년 469개소 3배 증가 】

타 도시에 비해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대전은 자연환경 본래의 공원녹지 개발 여지는 많은 편으로, 생태 환경적 보존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속 공원조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1990년 총 154개소에서 2008년 469개소로 3배 증가하였고, 면적으로는 1990년 36,590m²에서 2008년 58,599m²로 2배 증가하였다.

어린이 공원은 1990년 118개소, 256m²에서 3배 증가한 2008년 305개소, 710m²로 증가하였으며, 균린공원의 경우는 1990년 30개소, 7,490m²에서 2008년 89개소, 11,390m²로 각각 3배, 2배 증가하였고, 보문산 자연공원과 같은 도시자연공원은 2008년 현재 7개소, 35,893m²에 이르고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공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원 조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위 : 개소, 천m²)

연도	총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기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990	154	36,590	118	256	30	7,490	5	25,620	1	3,220
1995	204	44,770	160	344	37	8,901	5	25,513	2	10,012
2000	324	56,311	258	580	55	9,721	7	35,864	4	10,146
2002	332	56,408	263	589	59	9,867	7	35,863	3	10,089
2005	362	56,955	270	635	77	10,697	7	35,864	8	9,759
2007	439	58,213	296	681	82	11,254	7	35,892	54	10,386
2008	469	58,599	305	710	89	11,390	7	35,893	68	10,606

자료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 교 통 】



118 교통수단

125 친환경수단

교통수단



자동차등록 대수

【 1953년 100가구당 1대에서 2008년 1가구당 1.4대 차량보유 】

국내자동차산업의 발달과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자동차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53년 427대에서 1980년 10,794대로 25배 증가하였다. 이후 행정구역 확대 및 인구 증가와 더불어 1990년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9만대를 돌파하였으며, 2008년에는 총 539,233대로 가구당 차량보유대수가 1 대 이상인 1.38대를 소유하게 되었다.

초기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는 승용차와 나머지 승합, 화물, 특수차의 경우가 절반정도 이었으나, 최근에는 승용차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2008년 승용차가 전체 등록 자동차의 78.5%를 차지하고 있다.

1953년 차량 1대당 인구수는 865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차량 1대당 인구수가 4명으로 평균 4인 가족이 1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후 2008년에는 차량1대당 인구수가 2.7명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연도	등록대수	승용차	구성비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및 기타	차량당 인구수	가구당 차량보유 ¹⁾
1953	427	177	41.5	865.3	0.01
1958	644	207	32.1	69	363	5	285.8	0.02
1960	659	181	27.5	84	381	13	348.1	0.02
1969	2,092	971	46.4	376.1	0.03
1970	2,500	1,134	45.4	346	1,003	17	165.8	0.03
1980	10,794	4,623	42.8	856	5,238	77	60.4	0.08
1990	90,096	54,669	60.7	10,149	25,001	247	11.8	0.34
2000	382,682	270,830	70.8	42,155	68,978	719	3.6	0.87
2005	506,961	387,264	76.4	32,822	85,760	1,115	2.9	1.36
2007	535,697	417,475	77.9	32,197	84,839	1,186	2.8	1.02
2008	539,233	423,267	78.5	31,753	83,018	1,195	2.7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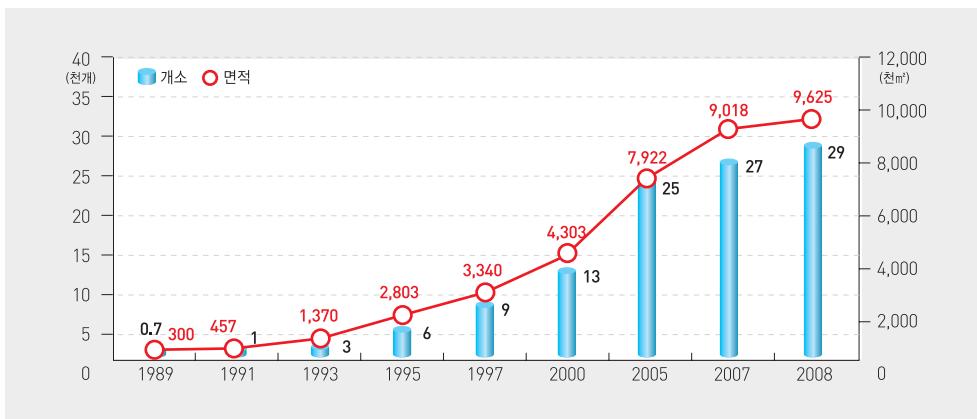
주1) 1953년 가구당 차량보유대수는 1955년 가구수(32,205)를 적용,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주차장

【 1989년 대비 전체 주차장 개소 41배, 주차장 면적 32배 증가 】

대전은 1970년경부터 자동차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심 교통혼잡과 함께 주차장 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는데, 심각한 주차문제는 도심지역의 교통소통은 물론 도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에 대전은 1979. 4. 17일 주차장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주차장을 관리하였고, 이후 1989년 노상 166개소, 노외 13개소, 건출물부설 525 개소로 총 704개소, 300천m²의 주차장을 확보하였다.

노상주차장은 1989년 166개소 37,357m²에서 2008년 303개소 210,084m²로 각각 1.8배, 5.6배 증가하였고, 노외주차장은 1989년 13개소 22,781m²에서 2008년 515개소 674,479m²로 각각 40배, 30배 증가하였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 것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 1989년 525개소, 240,166m²에서 2008년 28,109개소, 8,740,731m²로 각각 54배, 36배 증가하였다.



연도	합계		노상		노외		건축물부설	
	개소	면적(m²)	개소	면적(m²)	개소	면적(m²)	개소	면적(m²)
1989	704	300,304	166	37,357	13	22,781	525	240,166
1991	1,111	456,833	142	55,070	60	82,958	909	318,805
1993	3,025	1,369,917	195	80,370	134	271,651	2,696	1,017,896
1995	6,205	2,802,952	172	120,814	154	401,850	5,879	2,280,288
1997	9,395	3,340,147	183	123,665	212	415,796	9,000	2,800,686
2000	13,232	4,302,927	163	8,318	456	486,009	12,613	3,808,600
2005	24,882	7,922,456	219	10,991	460	575,731	24,205	7,335,734
2007	27,071	9,018,175	271	14,253	486	635,251	26,314	8,368,671
2008	28,927	9,625,294	303	210,084	515	674,479	28,109	8,74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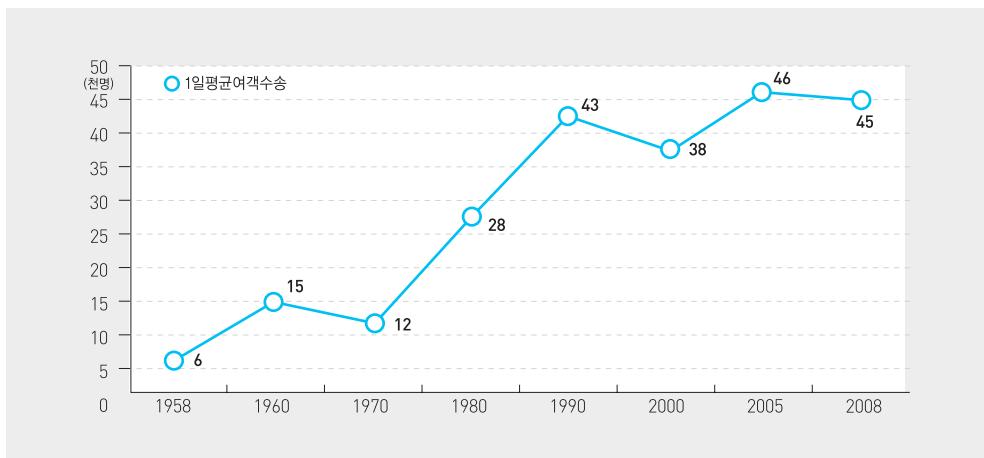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성장통계』

철도여객 수송 및 수입

【 영 · 호남을 잇는 교통환승지 대전역, 대전발 0시 50분 목포행 완행열차 인기 】

대전철도국은 1958. 12. 28일 청사를 준공하였으며, 1963. 9. 1일에 철도청이 발족된 후 1974. 8. 22일 대전지방철도청으로 개칭하였다. 1958년 당시 대전철도국의 관할구역은 충북선(조치원~충주), 옥구선(군산~옥구), 문경선(점촌~가은), 강경선(강경~연무대)를 관할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철도이용자 수는 연간 총 2,363,143명, 즉 하루 6,474명이 이용하였다.

지방분권화로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철도이용여객은 1958년 236만명에서 2008년 1,652만명으로, 1일평균이용여객은 6,474명에서 45,259명으로 7배 증가하였다. 여객수입에 있어서도 1970년 4억 9천만원에서 2008년 997억원으로, 1일평균 여객수입은 1970년 134만원에서 2008년 2억 7,322만원으로 204배 증가하였다.



(단위 : 명, 천원)

연도	총이용자수	1일평균여객수송	여객수입	
			여객수입	1일평균여객수입
1958	2,363,143	6,474	-	-
1960	5,329,613	14,602	14,858	-
1970	4,213,300	11,543	487,909	1,337
1980	10,040,148	27,507	5,514,238	15,108
1990	15,730,954	43,099	19,680,542	53,919
2000	13,911,108	38,113	45,911,858	125,786
2005	16,643,636	45,599	83,246,789	228,073
2008	16,519,474	45,259	99,726,072	273,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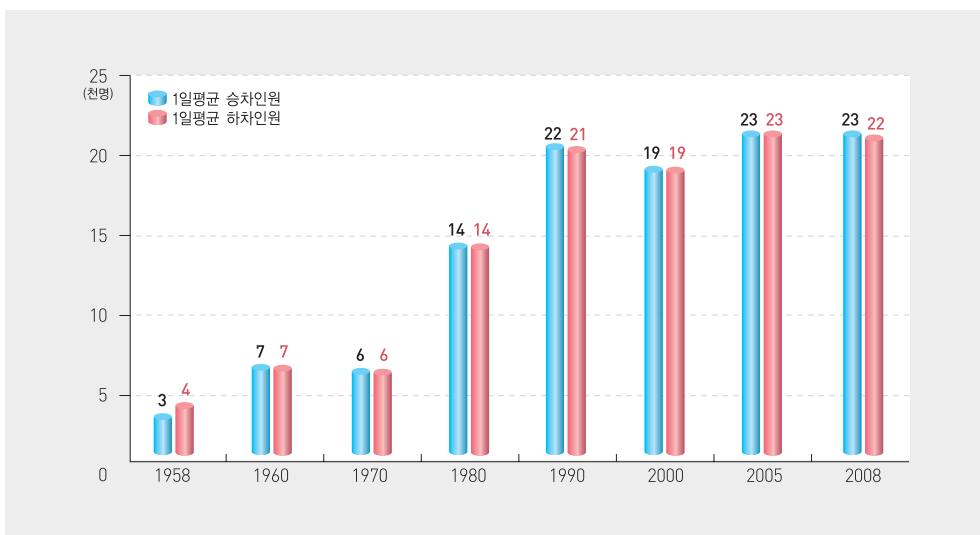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철도여객 승차 및 하차

【 철도여객 1일평균 승차 및 하차인원은 1958년에 비해 각각 8.7배, 5.8배 증가 】

철도이용여객 중 연간 승차인원은 1958년 96만명에서 2008년 833만명으로 증가하였고, 1일평균 승차인원은 2,618명에서 22,809명으로 8.7배 증가하였다.

또한 연간 하차인원은 1958년 141만명에서 819만명으로 증가하였고, 1일평균 하차인원은 3,856명에서 22,450명으로 5.8배 증가하였다.



연도	승차인원	하차인원	
		1일평균 승차	1일평균 하차
1958	955,699	2,618	1,407,444
1960	2,685,499	7,358	2,664,114
1970	2,079,700	5,698	2,133,600
1980	4,942,746	13,542	5,097,402
1990	7,892,229	21,623	7,838,725
2000	6,967,411	19,089	6,943,697
2005	8,388,985	22,984	8,254,651
2008	8,325,335	22,809	8,194,139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성장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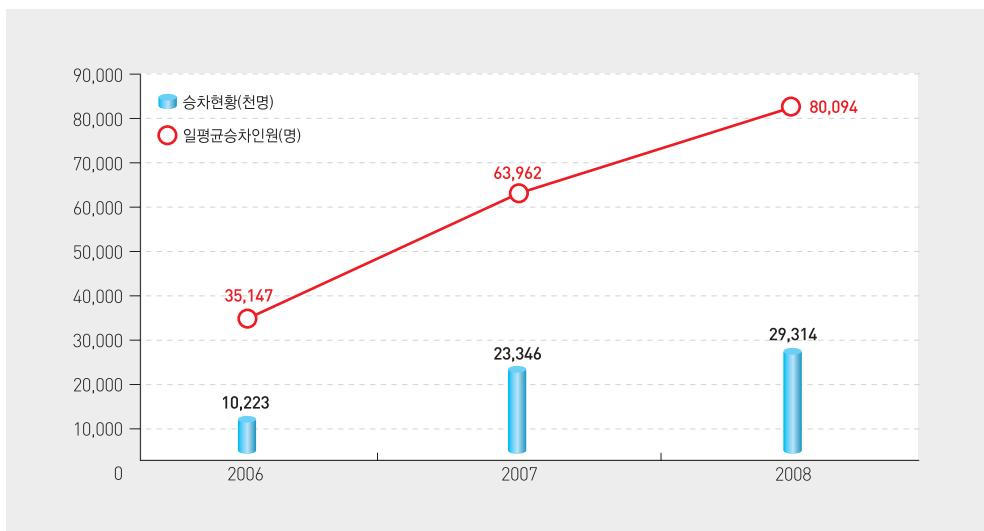
08 교통수단

도시철도

【 2006년 3월 16일 대전도시철도 개통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도심 교통 환경 제공 】

대전도시철도는 1996년 10월 30일 착공하여, 10년만인 2006년 3월 16일 도시철도 1호선 1단계(판암역~정부청사역)를 개통 하였는데, 2006년 당시 총 승차인원은 10,222,894명이었으며, 이후 2007년 1호선이 완전 개통되고 버스 환승등과 같이 이용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2008년 승차인원은 총 29,314,338명으로 2006년 대비 187% 증가하였다.

일평균 도시철도 이용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5,147명에서 2008년 80,094명으로 이용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도	승차현황	일평균
2006	10,222,894	35,147
2007	23,346,020	63,962
2008	29,314,338	80,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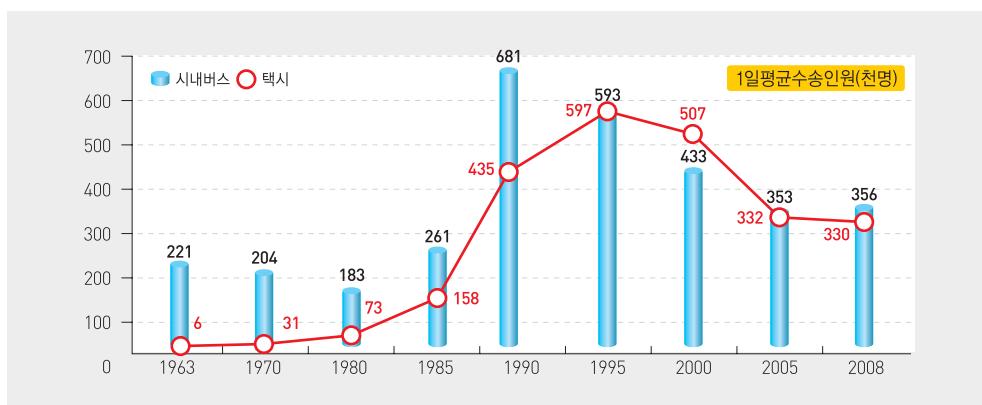
주) 2008년 총구간 20.5km로 운행구간은 판암 ~ 반석 방향으로 22개 역을 거쳐 운행 하고 있음
자료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버스·택시 수송

【 1963년에 비해 시내버스 하루 수송인원 2배, 택시 하루 수송인원 52배 증가 】

대전내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부터이며, 버스회사로는 충남여객(1944. 4. 5.), 남부여객(1961년 이후), 대전~유성간을 맡은 계룡버스(1952. 3. 17), 대전여객 그리고 관광버스로는 대한여행사가 있었다. 이후 대전교통주식회사가 1962. 6. 22일에 설립되어 시내노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1963년 총 버스등록대수는 96대로 당시 하루수송인원은 221,166명 가량이었다. 시 승격이후 1990년 총 버스등록대수는 775대로 전체 수송인원은 248,491,757명이었으며, 하루 수송인원은 680,799명으로 최고를 이루었다. 이후 개인 승용차의 증가와 함께 버스 수송인원은 점차 감소하여 2008년 현재 하루 수송인원은 356,311명으로 감소하였다.

택시의 경우도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는데, 1963년 당시 등록대수는 100대로 수송인원은 연간 1,463,935명, 1일 평균 수송인원은 6,382명이었으나, 이후 택시 등록대수 및 수송인원은 점차 증가하여 2008년 총 8,807대 등록, 수송인원 120,466,192명, 1일 평균 수송인원 330,044명으로 82배 증가하였다.



(단위 : 대, 명)

연도	시내버스			택시		
	등록대수	수송인원	1일평균 수송인원	등록대수	수송인원	1일평균 수송인원
1963	96	21,231,935	221,166	100	1,463,935	6,382
1970	383	84,706,577	204,310	879	12,867,994	31,037
1980	492	66,745,725	182,865	1,827	26,746,105	73,277
1985	596	95,282,520	261,048	3,340	57,846,295	158,483
1990	775	248,491,757	680,799	4,946	158,724,039	434,860
1995	933	216,366,614	592,785	7,601	217,786,261	596,674
2000	957	157,898,312	432,598	8,514	184,876,020	506,510
2005	965	128,683,919	352,586	8,772	121,233,073	332,145
2008	965	130,053,354	356,311	8,807	120,466,192	33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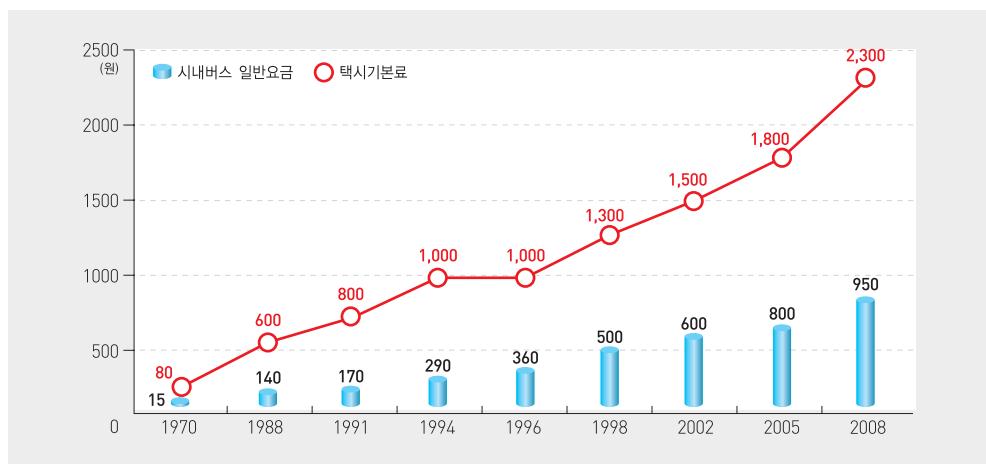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대중교통요금(버스, 택시)

【 물가상승에 따라 1970년 시내버스 일반요금 63배, 택시요금 29배 증가 】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일반인은 15원, 중·고생은 10원에서 2008년에는 일반인은 950원, 중·고생은 650원으로 63배정도 증가하였고, 초등생 요금의 경우는 1970년 10원에서 2008년 300원으로 30배 증가하였다. 좌석버스요금의 경우는 일반인과 학생 구분없이 1988년 25원에서 2008년 1,400원으로 56배 증가하였다.

택시기본료도 1970년 80원에서 2008년 2,300원으로 29배 증가되어 물가상승률에 맞춰 기본요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	시내버스요금			좌석버스요금	택시기본료
	일반	중·고생	초등생		
1970	15	10	10	25	80
1988	140	100	70	400	600
1991	170	120	80	470	800
1994	290	200	140	600	1,000
1996	360	270	170	800	1,000
1998	500	350	200	1,000	1,300
2002	600	420	200	1,300	1,500
2005	800	550	250	1,300	1,800
2008	950	650	300	1,400	2,300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대중교통과, 운송주차과

친환경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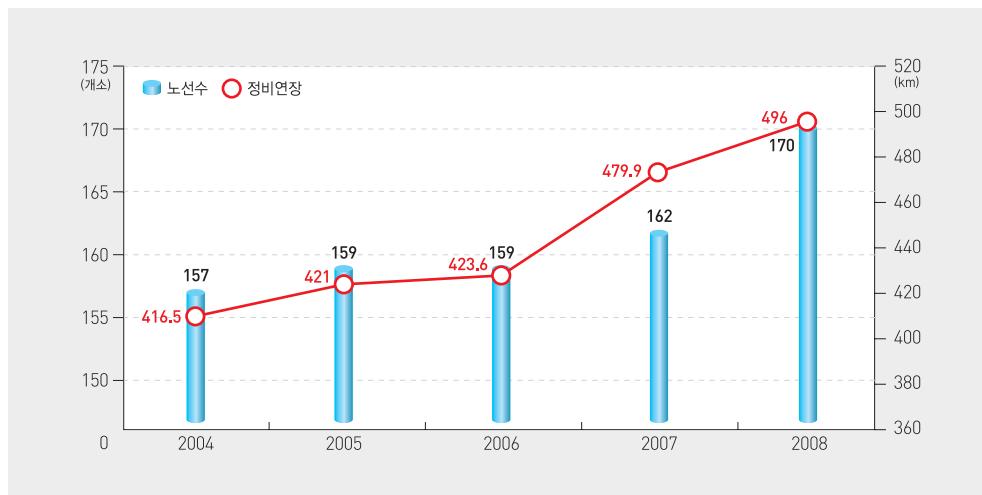


자전거 도로

【 녹색교통도시 건설을 위해 2004년 노선수 157개에서 2008년 170개로 8% 증가 】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는 녹색 대중교통 실현의 일환으로 2004년 자전거도로 총 노선수 157개에서 2008년 170개로 13(8%) 개 증가 하였으며, 노선연장도 2004년 641km에서 2008년 655.75km로 14.75(2.2%)km 연장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자전거도로 정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자전거 보유실태 : 1965년 5,016대, 1970년 10,232대, 1907년 481,344대



(단위 : 개소, km)

연도	노선수	전체연장	정비연장	미정비연장
2004	157	641.00	416.50	224.50
2005	159	641.00	421.00	220.00
2006	159	641.00	423.60	217.40
2007	162	655.40	479.90	175.50
2008	170	655.75	496.00	159.75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건설도로과(자전거도로담당)

도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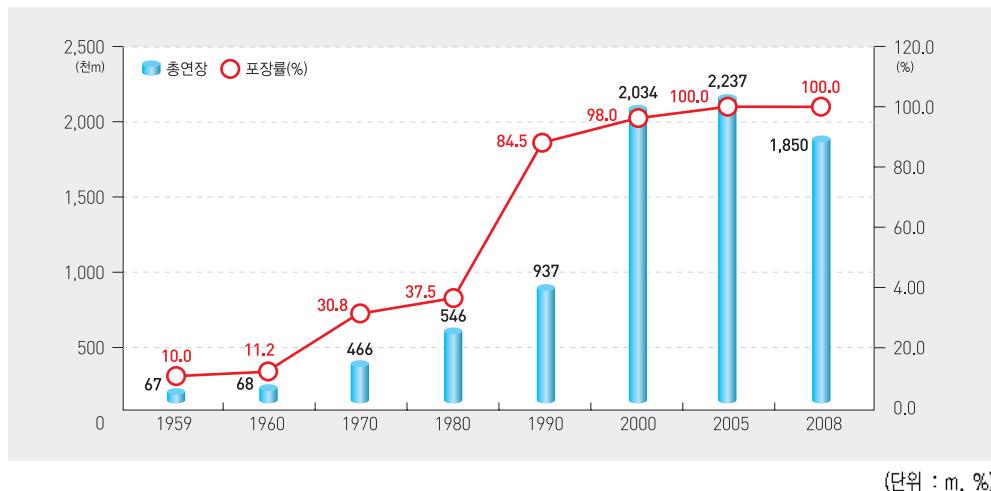


도로

【 도로포장률 1959년 10%에서 2008년 100%로 교통 환경 개선 】

도로율, 포장률 등의 도로건설지표가 매년 향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도시교통시설이 발전되었으며, 특히 '93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도로율과 포장률이 급격히 증가되어, 현재 포장률은 1959년 10%에서 2008년 100%로 증가되었다.

도로의 총연장은 1959년 67,260m에서 2008년은 27.5배 증가한 1,849,507m이다. 그 중 포장도로는 1959년 6,136m로 도로포장률이 10%에 불과해 대부분이 미포장도로였으나, 2008년에는 포장도로가 1,849,507m로 1959년에 비해 301배 증가하였으며, 포장률도 100%로 높아져 취약지역의 도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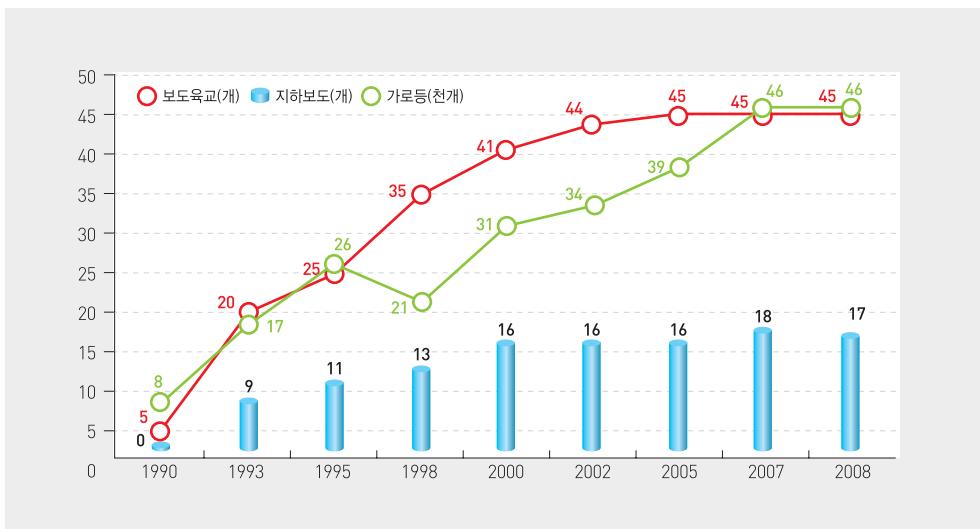
도로시설물

【 운전자와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시설물 증가로 교통환경 개선 】

보도육교는 1990년 5개에서 2008년 45개로 9배 증가하였으며, 지하보도의 경우 1993년 9개에서 2008년 17개로, 지하차도의 경우 8개에서 18개로 각각 2배 증가하였다.

지하보도의 경우 1982년 중앙로에 1차 지하도(지하상가)가 시공되었고, 이후 1990년 2차 지하도가 시공되었으며, 터널의 경우는 1993년 1개에서 2008년 11개까지 증가하였다.

가로등은 신도심 개발 등과 함께 1990년도 7,794개에서 2008년 46,471개로 2배로 증가하여, 야간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연도	(단위 : 개)						
	보도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차도육교	지하상가	터널	가로등
1990	5	-	-	9	2	-	7,794
1993	20	9	8	14	2	1	16,811
1995	25	11	8	14	2	1	25,831
1998	35	13	10	17	3	2	21,345
2000	41	16	13	21	3	2	31,244
2002	44	16	14	26	3	5	34,381
2005	45	16	17	28	3	6	39,098
2007	45	18	18	33	3	7	45,896
2008	45	17	18	35	3	11	46,471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08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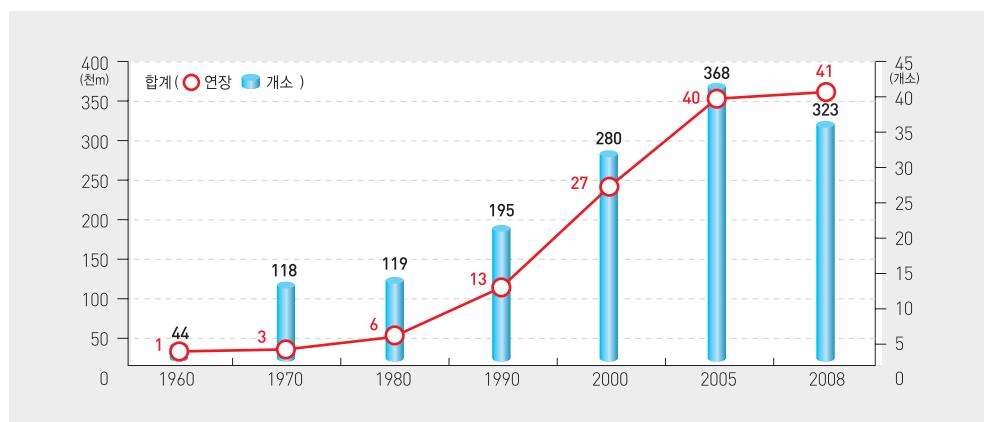
교 량

【 교량은 1960년 44개에서 2008년 323개로 증가하여 도심주행속도가 한층 빨라져 】

교량의 역사물로는 1912년 당시 공사비 4,600원을 투입하여 목교(木橋)로 폭 5.45m, 길이 70m를 가설하였는데, 가설당시 교량명칭이 "대전교" 였으나 착공 후 나무로 되었다고 해서 "목척교"로 변경되었다. 이후 6.25사변으로 파손된 것을 71년 현대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개척하였으나, 1973년 대전천복개공사시 상부의 상판을 해체하여 지금의 목척교 형태로 만들어져 더 이상의 교량 기능은 끝났으나, 현재는 이러한 목척교의 복원 노력을 통해 목척교 명품 르네상스를 열어가려 하고 있다.

1960년대 교량은 44개소에서 연장길이는 1,244m에 불과하였으나, 행정구역 확대 및 도시발달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로 2008년 교량은 7.3배 증가한 323개소, 연장길이는 32배 증가한 40,680m로 늘어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고속도로내의 교량도 1990년 24개소, 1,451m에서 2008년 158개소 19,390m로 각각 7배, 13배 증가하였고, 시내권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광역시도의 교량과 연장길이도 1980년 99개소, 4,040m에서 129개소 17,664m로 1.3배, 4.4배 증가하였다.



연도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광역시도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1960	44	1,244	-	-	11	-	33	-
1970	118	3,136	-	-	16	-	102	-
1980	119	5,806	-	-	20	1,766	99	4,040
1990	195	13,218	24	1,451	41	3,201	130	8,566
2000	280	27,013	92	10,874	34	3,091	154	13,046
2005	368	39,509	161	18,592	34	2,871	173	18,045
2008	323	40,680	158	19,390	36	3,626	129	17,664

주 고속도로상의 교량은 1981년까지 광역시도에 포함했음
자료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 도시건설 】



130 도시개발

131 주택관리

133 토지관리

도시개발



도시계획

【 1973년에 비해 주거지역 56.4%, 일반상업지역 69.4%, 일반공업지역 102% 증가 】

대전은 6.25사변이후 주택이 전쟁으로 불타고 피난민들이 몰려 주택난이 심각하였으며, 심지어 1955년 가구수 증가율이 200% 이상이 된 적도 있어, 주거 해결을 위해 판자집과 같은 임시 주거가 많이 지어졌다. 이후 주거환경정비 및 택지개발이 활성화 되어, 1965년 대전의 도시계획구역은 215.21㎢였다.

또한, 이후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자 했던 1971년 도시계획법등에 따라 대전은 개발제한구역을 합쳐 1973. 6. 28일에 530.4㎢로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었고, 연구단지 유치 및 호남고속도로 건설완료, 개발제한구역 등의 여건변화로 동년 11월 30일에 556.72㎢로 26.32㎢ 증가하였다.

주거지역은 1973년도 44.7㎢에서 2008년 69.9㎢로 56.4% 증가되었고, 일반상업지역은 1973년도 3.4㎢에서 2008년 5.7㎢로 69.4%, 일반공업지역은 1973년 5.5㎢에서 2008년 11.1㎢로 102% 증가하였다. 대전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 7개 생활권으로 대별하고, 동부, 남부, 중부, 서부 등 4개 대생활권 신단진, 대덕연구단지, 특수생활권 등 3개의 특수생활권, 23개의 중생활권 등 생활권 체계를 구성하여, 기능적이고 편리하고,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하여 왔다.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주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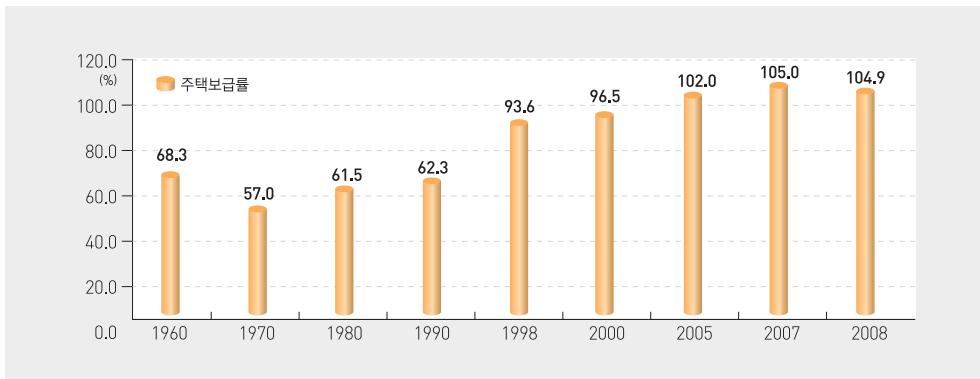


주택보급률

【 1963년 주택보급률 68.3%에서 2008년 주택보급률 104.9%로 53.6% 증가 】

1960년 39,824가구에 주택수는 27,217동으로 주택보급률이 68.3%에 그쳐 무주택가구가 32%정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서구의 둔산지구 및 유성구의 대규모 주택(아파트)단지 형성으로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최근 대전시의 주택보급률 상승은 각종 주택개발 사업 등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함에 따라 100%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보급률의 산정방식은 독신(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로 주택수를 나누는 산정방식이기에, 최근 가구의 형태가 3차 산업 위주의 도시발전으로 핵가족화와 같이 가구당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독신가구가 증가하므로), 보급률과는 다르게 주택수요는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명, 가구, 동, %)

연도	인구수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1960	229,393	39,824	27,217	68.3
1970	406,488	73,315	41,755	57.0
1980	651,642	127,431	78,373	61.5
1990	1,062,084	262,224	163,495	62.3
1998	1,345,684	338,554	316,976	93.6
2000	1,390,510	358,833	346,188	96.5
2005	1,462,535	372,544	379,897	102.0
2007	1,487,836	385,295	404,691	105.0
2008	1,495,048	391,300	416,000	104.9

※ 2008년도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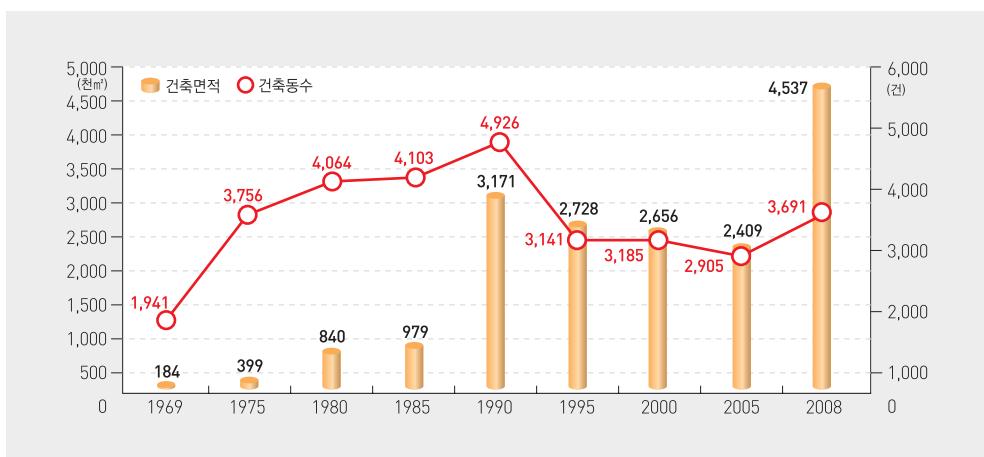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건축허가

【 건축허가면적은 1969년 184천m²에서 2008년 4,537천m²으로 24.6배 증가 】

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축허가면적은 1969년 184,275m²에서 2008년 4,537,106m²으로 24.6배 증가하였으며, 건축허가동수는 1969년 1,941건에서 1990년 최대 4,926건까지 증가하였으나, 2008년 3,691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건축허가는 1969년 당시 조적조가 전체 건축허가 면적의 59%로 철근철골조 39%보다 많았으나, 1980년대부터는 철근철골조 건축허가 비율이 증가하여, 2008년 철근철골조 건축이 전체 면적의 99%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철근철골조 건축이 공사기간이 짧고 건축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으며, 건물의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점차 건축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m², 건)

연도	건축면적					건축동수
	합계	철근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1969	184,275	72,599	109,097	2,496	83	1,941
1975	399,395	62,616	335,907	872	-	3,756
1980	839,672	447,308	387,247	5,117	-	4,064
1985	978,786	535,052	443,397	298	39	4,103
1990	3,170,793	2,497,251	627,172	0	46,370	4,926
1995	2,727,536	2,392,224	243,347	1,047	90,918	3,141
2000	2,656,367	2,572,940	27,676	2,146	53,605	3,185
2005	2,408,539	2,385,507	18,349	4,683	-	2,905
2008	4,537,106	4,489,175	41,465	5,326	1,140	3,691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토지관리



토지거래현황

【 토지거래는 IMF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 2005년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급격히 증가 】

전체 토지거래 필지수는 1991년 41,891건에서 2008년 46,803건으로 11.2% 증가되었으며, 면적에서 1991년 10,814천㎡에서 2008년 13,623천㎡으로 26.0%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IMF 구제금융 경제위기 이후 1998년 토지거래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나, 2005년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여파와 대전 서남부 개발의 본격시행에 따라 대전의 토지거래필지 수가 2004년 대비 26.5% 증가한 61,716건, 면적이 45.3% 증가한 25,717천㎡로 증가하였다. 2008년도에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거래 증감폭이 2007년에 비해 필지수, 면적 각각 7.4%, 3.3%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단위 : 건, 천㎡, %)

연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각		
	필지수	증감률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1991	41,891	-	10,814	-	38,456	5,782	672	178	127	112	2,319	4,023	317	719
1995	39,163	7.6	7,176	4.1	37,854	3,542	290	66	28	40	918	3,439	73	89
1998	29,792	-18.9	12,391	14.0	24,649	2,868	767	129	138	441	3,995	7,378	243	1,575
2000	40,705	-6.4	10,912	-16.5	36,383	3,558	998	209	229	244	2,951	6,478	144	422
2005	61,716	26.5	25,717	45.3	46,084	4,826	4,737	813	1,098	1,563	6,842	7,981	2,955	10,534
2008	46,803	7.4	13,623	3.3	38,834	4,811	3,890	544	1,286	923	1,929	4,522	864	2,823

주1) 전년대비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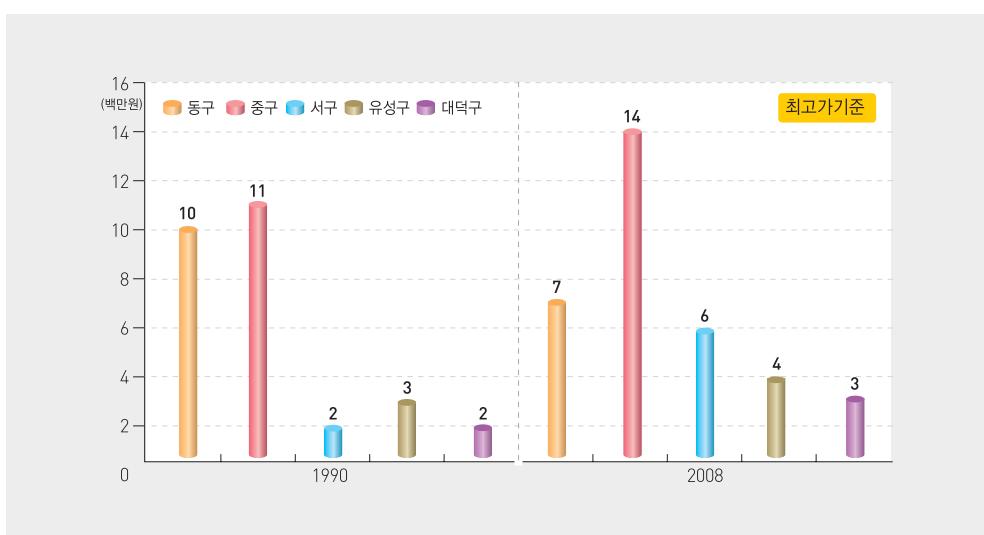
주2)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미지정구역 포함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은행동 48-17번지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m²)인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대전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원도심인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 있는 48-17번지로 제곱미터당 1,400만원이며, 1990년 대비 27.3% 상승한 가격이다. 또한 지가가 최고 낮은 지역은 대덕구 황호동 57-4번지로 1990년 대비 79.2% 하락한 165원으로 기록되었다.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1990년대 처음 조사된 이후 약간의 시행착오와 오류로 혼란이 있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정착화 되어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과기준과 토지거래 기준이 되어 부동산 투기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지역(위치)	중동 27-1	모동 산 9-3	은행동 48-17	금동 산31-4	둔산 1391	장안동 산48-4	봉명동 468-1	추북동 산-1	신단진 144-1	황호동 57-4
1990	10,000,000	1,400	11,000,000	450	2,270,000	2,500	3,000,000	2,400	1,500,000	792
1995	12,000,000	1,040	13,000,000	800	2,270,000	1,500	3,700,000	872	2,250,000	792
2000	8,000,000	330	11,300,000	1,150	2,280,000	1,240	2,580,000	1,060	2,020,000	792
2005	5,900,000	346	13,000,000	1,340	4,450,000	3,110	3,600,000	1,160	2,600,000	165
2008	7,000,000	445	14,000,000	1,970	5,580,000	957	4,210,000	1,550	3,350,000	165

자료 대전광역시 지적과



【 재난 · 안전 】



136 재난안전

139 교통안전

142 사회안전

10 재난 · 안전

재난안전



화재발생건수

【 1일평균 화재발생건수는 1958년 0.2건에서 2008년 4.2건으로 하루평균 4건 증가 】

1946. 11. 1일 대전소방서가 대흥동에 창설되어 소방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55년 청사를 선화동으로 이전하였고, 1985년 대전서부지역에 서대전소방서를 신설하여 2개의 소방서를 운영해 왔다. 이후, 1989년 직할시 승격과 함께 인구증가와 비례하여 늘어나는 화재발생건수에 대비하고자 대전직할시 소속의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화재 발생 총 건수를 살펴보면, 1958년 60건에서 2008년 1,550건으로 26배 증가하였고, 1일평균화재발생건수는 1958년 0.2건에서 2008년 4.2건으로 증가하였다.

화재발생 중 구성비가 가장 높은 실화는 1958년 54건에서 2008년 364건으로 화재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화의 경우에는 1958년에는 없으나, 2008년 200건으로 증가하여 사회가 복잡해지고, 빈부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가정불화 및 자살 등의 방화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화재발생				1일평균 발생건수
	총건수	방화	실화	기타	
1958	60	0	54	6	0.2
1960	24	1	10	13	0.1
1970	94	4	90	0	0.3
1980	121	3	83	35	0.3
1990	328	25	204	99	0.9
2000	1,060	114	682	264	2.9
2005	890	101	713	76	2.4
2007	1,510	221	1,248	41	4.1
2008	1,550	200	364	986	4.2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소방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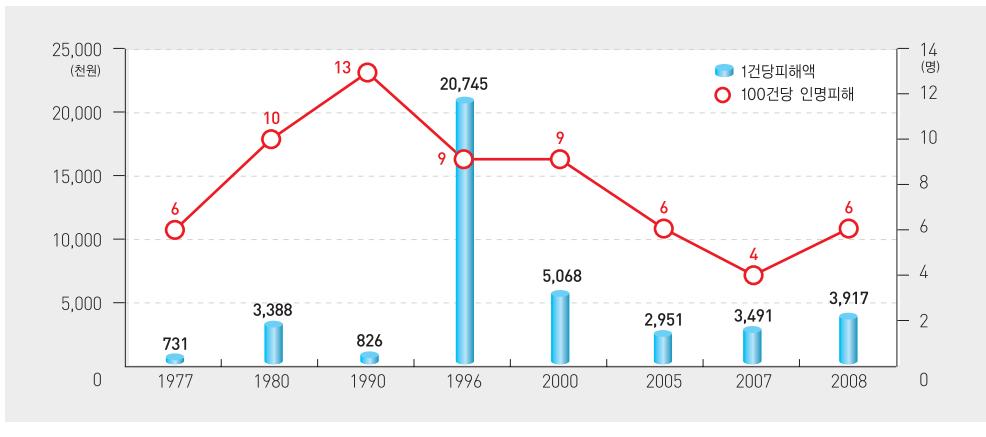
화재 피해

【 시 승격이후 최대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는 1996년 충남방적 화재 】

화재는 엄청난 재산 및 인명피해를 가져와 1958년 재산피해는 4,908만원이었으나 2008년은 107배인 60억 7,184만원을 기록하였고, 화재 1건당 피해액도 1958년 82만원에서 2008년 392만원으로 증가하였다.

1996년도 화재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충남방적의 2차 화재로 1차 화재 당시 피해액은 47억원 가량이었으며, 이후 2차 화재가 1996년 발생하였는데, 당시 재산 피해액은 122억 2천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하였다.

인명피해는 1977년 8명에서 2008년은 91명으로 11배 증가하였는데, 그 중 부상자가 1977년 7명에서 2008년 81명으로 인명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도 1977년 1명에서 2008년에는 10명으로 증가되었다.



(단위 : 천원, 명)

연도	재산피해	1 건당 피해액	인명피해			
			합계	사망	부상	100 건당 인명피해
1958	49,077	818
1960	23,169	965
1970	7,193	77
1977	96,446	731	8	1	7	6
1980	409,924	3,388	12	1	11	10
1990	270,935	826	42	12	30	13
1996	14,583,448	20,745	61	17	44	9
2000	5,372,593	5,068	96	24	72	9
2005	2,626,056	2,951	53	15	38	6
2007	5,270,837	3,491	64	5	59	4
2008	6,071,840	3,917	91	10	81	6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소방본부

주 1976년까지는 연간 인명피해자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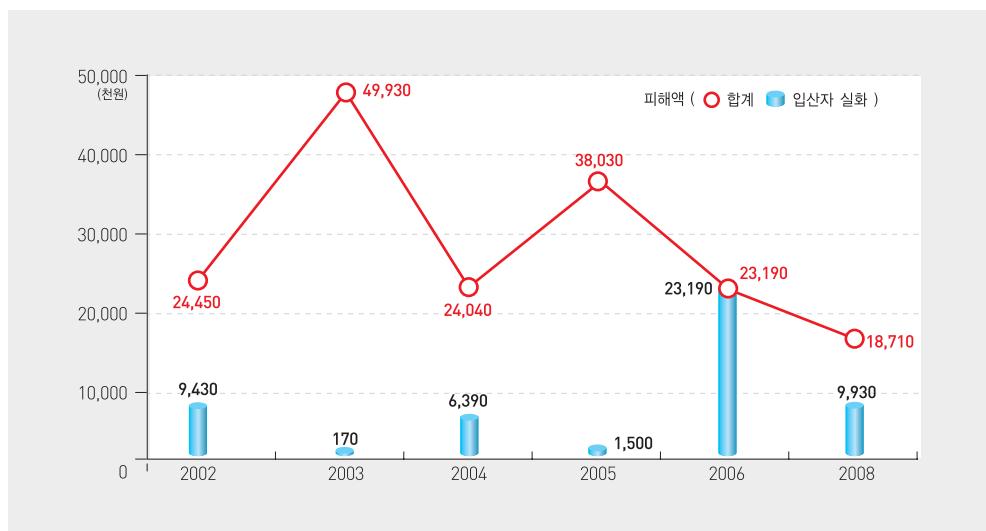
10 재난 · 안전

산불 발생

【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환절기 산불피해 급증 】

가을단풍과 함께 시작되는 산불은 그 이듬해 봄철에 이르기까지 많이 발생하는데,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및 방화자에 의한 실화, 담배꽁초 투기, 논 · 밭두렁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거의 주된 원인이다.

산불발생은 산림자원 훼손과 더불어 피해액이 발생하는데, 2002년 산불피해액은 2천 445만원에서 2008년 1천 871만원으로 23% 감소하였고, 피해액 중 입산자 실화로 인한 피해액은 2006년이 2천 319만원으로 가장 컸고, 논 · 밭두렁 소각에 의한 피해액은 2003년이 3천 426만원으로 가장 컸다.



(단위 : ha, 천원)

연도	합계		입산자 실화		논 · 밭두렁 소각		기타	
	면적	피해액	면적	피해액	면적	피해액	면적	피해액
2002	12.9	24,450	4.7	9,430	1.4	550	6.9	14,470
2003	19.7	49,930	0.1	170	6.5	34,260	13.1	15,500
2004	12.5	24,040	6.1	6,390	1.3	3,300	5.1	14,350
2005	13.1	38,030	1.3	1,500	2.6	16,750	9.3	19,780
2006	17.8	23,190	16.8	23,190	0.7	-	0.3	-
2007	5.5	24,820	3.1	13,900	1.6	7,200	0.9	3,720
2008	6.2	18,710	3.2	9,930	2.7	8,110	0.3	680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푸른도시과

교통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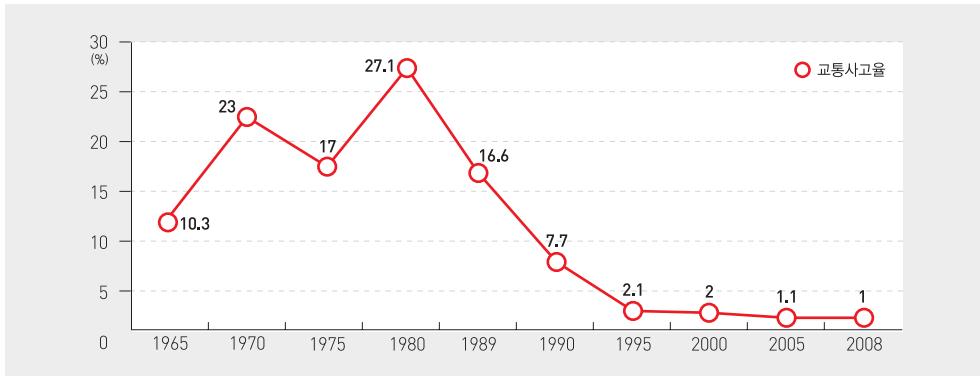


교통사고

【 1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1965년 0.3건에서 2008년 15건으로 50배 증가 】

교통사고는 1965년 96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직할시로 승격되던 해인 1989년에는 123배 증가한 총 11,796건으로 최고 건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점차 교통 환경이 나아지고 교통안전 캠페인이 강조되면서 2008년에서는 교통사고 수가 1989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하여 총 5,484건으로 기록되었다.

차량등록대수에 따른 교통사고율을 살펴보면, 1965년 10.3%에서 1980년 최대 27.1% 까지 증가하였으나, 직할시 이후 전체 차량등록대수 증가 및 교통체계가 안정화 되면서 1990년 7.7%로 교통사고율이 감소하였고, 이어 2008년에는 1.0% 까지 감소하였다.



(단위 : 건, %)

연도	교통사고건수	인구10만명당	1일평균	교통사고율	차량등록대수
1965	96	31	0.3	10.3	932
1970	576	139	1.6	23.0	2,500
1975	905	179	2.5	17.0	5,313
1980	2,928	449	8	27.1	10,794
1989	11,796	1,122	32	16.6	71,127
1990	6,902	650	19	7.7	90,096
1995	5,309	419	15	2.1	256,363
2000	7,749	557	21	2.0	382,682
2005	5,342	365	15	1.1	506,961
2008	5,484	367	15	1.0	539,233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대전지방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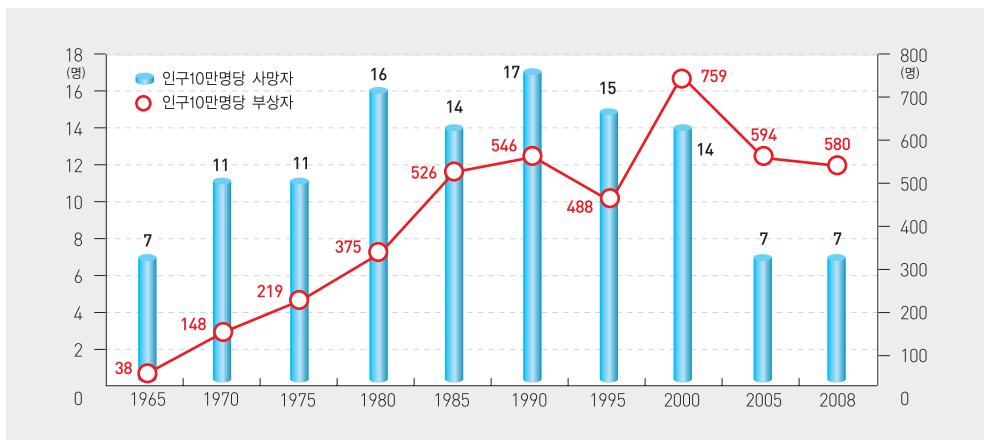
10 재난·안전

교통사고 인명피해

【 교통사고에 의한 1일평균 사상자수는 1965년 0.4명에서 2008년 24.1명으로 64배 증가 】

교통사고 사망자는 1965년 21명에서 인구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되어 2000년 사망자수가 198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점차 감소하긴 하였으나, 2008년에는 106명으로 1965년에 비해 5배 증가되었다. 1일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62년 0.1명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엔 0.3명으로 늘어났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1965년 7명에서 점차 증가추세를 이루었으나, 다시 2008년 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국최저를 기록하였다.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자수도 1965년 연간 117명, 1일평균 0.3명에서, 2008년 연간 8,673명, 1일 평균 23.8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인구 10만명당 부상자는 2000년 759명 이후로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는 580명으로 감소하였다.



(단위 : 명)

연도	합계	사망자	인구10만명당		부상자	인구10만명당	
			1일평균	1일평균		인구10만명당	1일평균
1965	138	21	7	0.1	117	38	0.3
1970	661	47	11	0.1	614	148	1.7
1975	1,176	55	11	0.2	1,110	219	3.0
1980	2,544	102	16	0.3	2,442	375	6.7
1985	4,677	120	14	0.3	4,557	526	12.5
1990	5,980	184	17	0.5	5,796	546	15.9
1995	6,390	184	15	0.5	6,191	488	17.0
2000	10,753	198	14	0.5	10,555	759	28.9
2005	8,798	104	7	0.3	8,694	594	23.8
2008	8,779	106	7	0.3	8,673	580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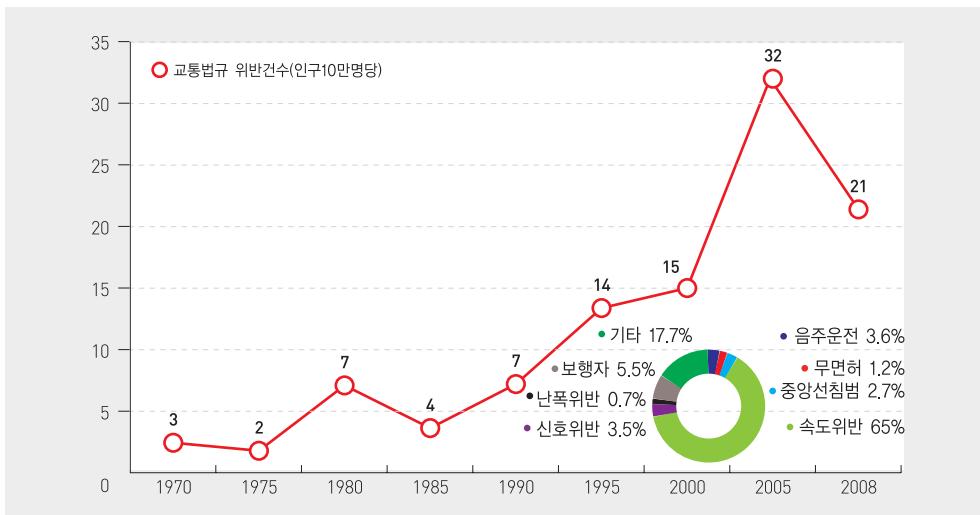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교통법규위반 현황

【 차량증가와 더불어 교통법규위반 건수가 2008년 총 31만 건으로 그 중 속도위반이 65% 】

1970년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총 12,982건으로 이후 행정구역 확대 및 인구증가로 1990년 79,143건으로 6배 증가하였으며, 마이카 시대로의 도래와 함께 2005년에는 최대 461,921건을 기록하였다. 이후 음주운전 및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등과 같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 및 각종 홍보 캠페인을 통해 2008년에는 308,592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단속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속도위반이 전체 단속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08년에는 무려 65%에 이르며 다음으로는 보행자 위반이 5.5%를 이룬다.



단위 : 건수, %

연도	교통법규 위반건수	최근 3년간 유형별 단속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계	416,392(100)		342,438(100)	308,592(100)
1970	12,982	음 주 운 전	11,660(2.8)	14,672(4.3)
1975	11,193	무 면 허	3,274(0.8)	4,715(1.4)
1980	44,634	중앙선침범	3,340(0.8)	5,044(1.5)
1985	36,364	속 도 위 반	220,492(53.0)	179,190(52.3)
1990	79,143	신 호 위 반	56,921(13.7)	6,842(2.0)
1995	180,214	난 폭 운 전	2,263(0.5)	2,076(0.6)
2000	212,870	보 行 자	21,681(5.2)	18,634(5.4)
2005	461,921	기 타	96,761(23.2)	111,265(32.5)
2008	308,592			54,618(17.7)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대전지방경찰청

사회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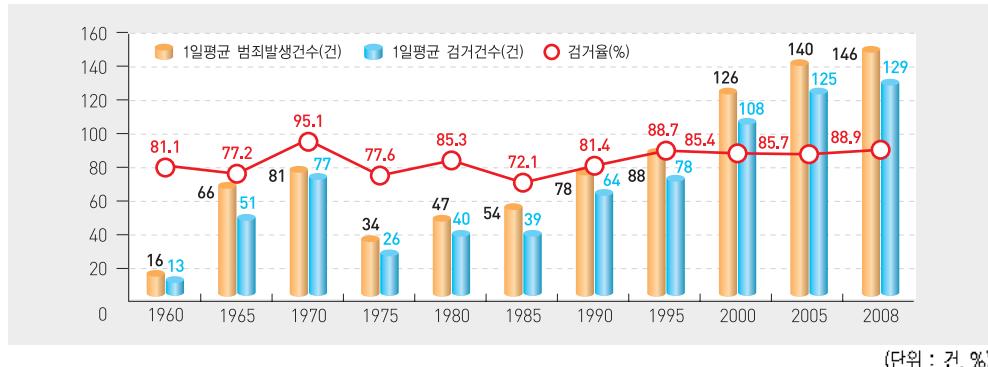
범죄발생 및 검거

【 범죄 발생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검거율은 10여년간 80% 이상 】

1945. 10. 21일 광복이후 미군정하에서 대전에도 국립경찰로서의 대전경찰서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대전의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중부, 동부, 서부, 대덕, 둔산 5개의 경찰서 및 1개의 청사경비대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의 범죄 현황은 유입인구 증가 및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범죄발생건수는 1960년 5,676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총 범죄건수가 53,128건으로 9.4배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범죄발생건수는 1960년 당시 하루 16건에서 2008년에는 하루 146건으로 증가하였다.

범죄검거건수도 1960년 4,603건, 1일 평균 13건에서 2008년 47,208건, 1일 평균 12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검거율은 1960년 81.1%에서 2008년 88.9%로 7.8%p 증가하였다.



연도	발생	검거		검거율
		1일평균	1일평균	
1960	5,676	16	4,603	81.1
1965	24,254	66	18,713	77.2
1970	29,687	81	28,238	95.1
1975	12,357	34	9,585	77.6
1980	17,276	47	14,743	85.3
1985	19,528	54	14,085	72.1
1990	28,613	78	23,278	81.4
1995	32,084	88	28,449	88.7
2000	46,011	126	39,321	85.4
2005	51,152	140	43,850	85.7
2008	53,128	146	47,208	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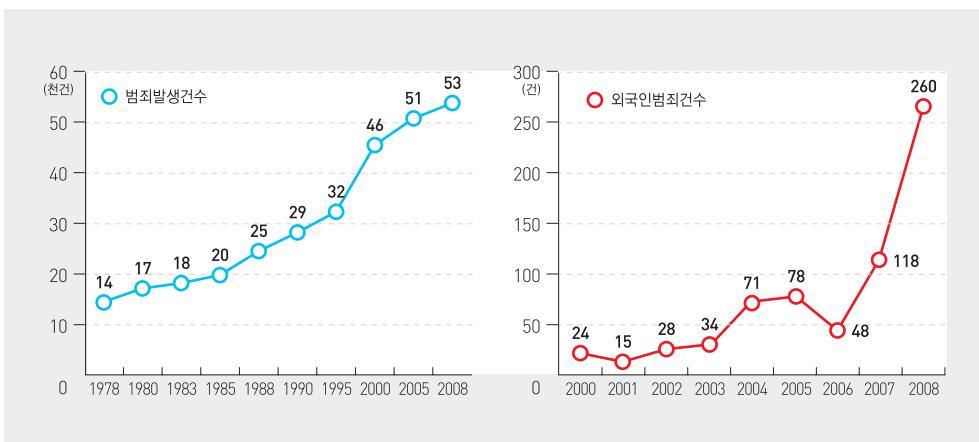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성장통계」, 대전지방경찰청

범죄발생 유형

【 1978년 대비 강력범 9배, 특별범 7배, 지능범 6배, 폭력·절도 각각 3배, 2배 증가 】

범죄건수는 사회가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978년 13,851건에서 2008년 53,128건으로 3.8배 증가하였고, 이중 강력범의 경우 1978년 100건에서 2008년 878건으로 8.8배 증가하였다. 특별범은 1978년 4,077건에서 28,361건으로 7배 증가하였고, 지능범의 경우 1978년 1,080건에서 2008년 6,683건으로 6.2배 증가하였다. 나머지 절도범과 폭력범은 3배 이하의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최근 외국인 범죄를 살펴보면, 외국인 인구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여 2000년 총 24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범죄가 2008년에는 무려 11배 증가한 260건에 다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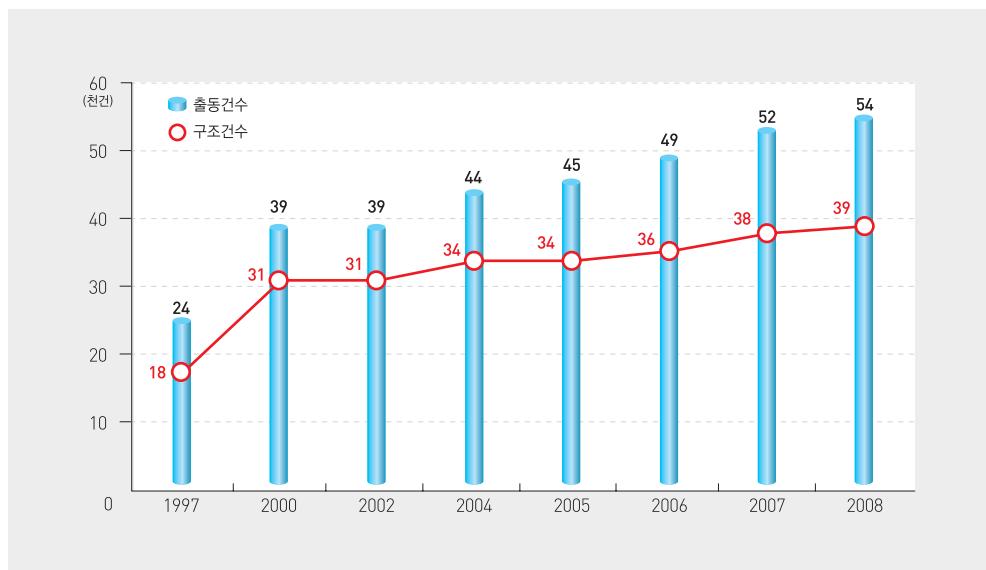
연도	합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특별범	기타	외국인범죄			
								연별	강력·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1978	13,851	100	3,900	2,249	1,080	4,077	2,425	2000	7	17	24
1980	17,276	190	4,718	2,845	1,498	5,277	2,748	2001	3	12	15
1983	18,479	230	4,972	2,951	1,895	4,708	3,723	2002	13	15	28
1985	19,528	185	5,028	2,969	1,513	4,929	4,904	2003	16	18	34
1988	24,916	204	5,078	3,053	2,503	10,153	3,925	2004	28	43	71
1990	28,613	404	3,805	3,192	1,686	15,854	2,672	2005	11	67	78
1995	32,084	274	2,647	3,604	5,416	21,422	1,025	2006	12	36	48
2000	46,011	619	7,530	3,512	5,364	24,818	1,168	2007	20	98	118
2005	51,152	512	4,954	4,867	6,387	33,221	1,211	2008	57	203	260
2008	53,128	878	9,349	6,261	6,683	28,361	1,597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대전지방경찰청

119구급활동실적

【 다원화된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119구급활동도 해마다 증가 】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식생활 개선 및 승용차 급증, 각종산업재해 등과 같이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질병 및 사건사고로 119구급활동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긴급후송환자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건수가 1997년 24,123건에서 2008년 53,925건으로 2.2배 증가 하였고, 구조건수 및 구조인원은 1997년 18,328건과 19,257명 구조에서 2008년 38,905건과 39,941명 구조로 각각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단위 : 건, 명)

연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1997	24,123	18,328	19,257
2000	38,811	30,943	32,101
2002	39,260	30,619	31,615
2004	44,322	33,841	34,857
2005	45,098	33,847	34,874
2006	49,058	36,019	37,198
2007	52,057	37,750	38,923
2008	53,925	38,905	39,941

자료 대전광역시『대전통계연보』, 소방본부(대응구조과)



【 부 록 】



146 전국통계

165 우리나라
발전과정

172 용어해설

11 부록

전국통계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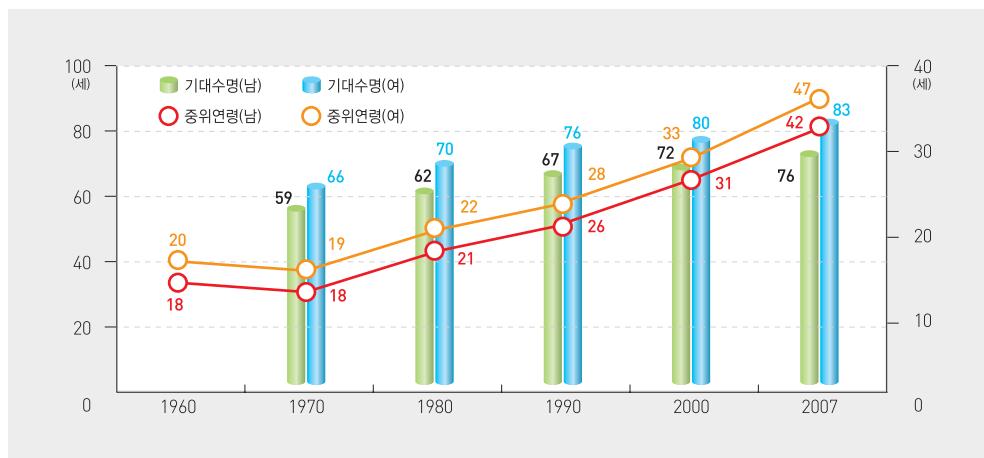
【 기대수명 1970년대 61.9세에서 2007년 79.5세로 17.6세 증가 】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07년 79.5세로 17.6세가 늘어났음

* 남자는 58.7세에서 76.1세로 17.4세가 늘어났고, 여자는 65.6세에서 82.7세로 17.1세가 늘어났음

우리국민 전체의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서 2007년 44.7세로 25.7세가 높아졌음

* 남자는 18.2세에서 42.3세로 24.1세가 높아졌고, 여자는 19.8세에서 46.7세로 26.9세가 높아졌음



기대수명 및 중위연령

(단위 : 세)

연도	기대수명			중위연령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60	-	-	-	19.0	18.2	19.8
1970	61.9	58.7	65.6	18.5	17.9	19.2
1980	65.7	61.8	70.0	21.8	21.2	22.4
1990	71.3	67.3	75.5	27.0	26.3	27.7
2000	76.0	72.3	79.6	31.8	30.8	32.7
2007	79.5	76.1	82.7	44.7	42.3	46.7

중위연령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울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 전체 36.1(남35.1, 여 37.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11)」, 「2006 생명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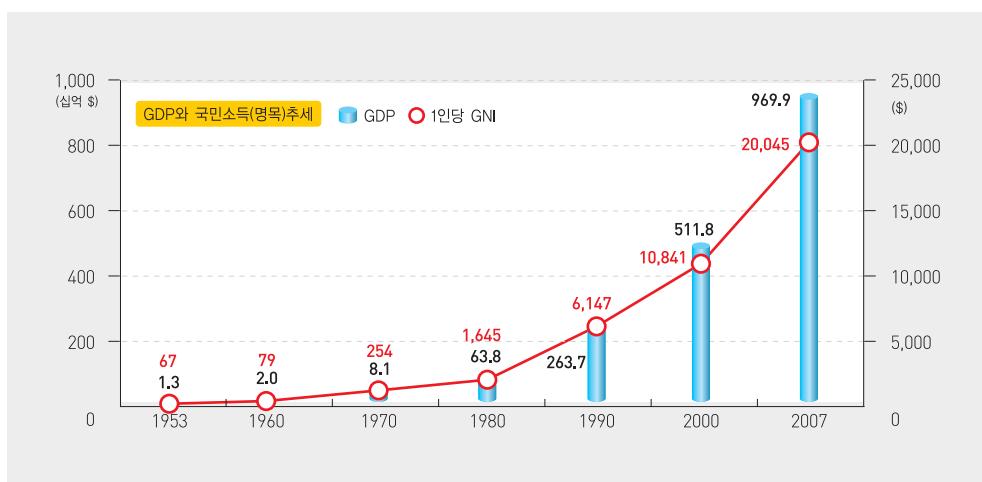
전국통계 출처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와 경제·사회상 변화」

국민계정·산업구조

【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67달러에서 2007년 2만 달러를 돌파 】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 13억달러에서 1972년에 100억달러대, 1986년에 1,000억 달러대, 1995년에 5,000억달러를 넘어 2007년 현재 9,699억달러로 1953년에 비해 746배 증가하였음

1인당 국민소득(GNI)은 1953년 67달러에서 1977년에 1천달러대, 1989년에 5천달러대, 1995년에 1만 달러대를 넘어 2007년 20,045달러로 2만달러 시대로 진입



국내총생산과 국민소득(명목)¹⁾

연도	GDP		GNI ¹⁾		국민처분 가능소득 (10억원)	요소비용 국민소득 (10억원)	1인당GNI ²⁾	
	10억원	10억 \$	10억원	10억 \$			만원	\$
1953	47.3	1.3	47.9	1.4	47.9	43.9	0.2	67
1960	243.1	2.0	244.9	1.9	254.7	214.2	1	79
1970	2,763.9	8.1	2,800.4	8.2	2,619.5	2,329.0	9	254
1980	38,774.9	63.8	38,117.7	62.7	35,257.9	30,102.2	100	1,645
1990	186,690.9	263.7	186,559.8	263.5	166,552.9	145,056.7	435	6,147
2000	578,664.5	511.8	576,160.0	509.6	493,388.0	422,316.0	1,226	10,841
2007	901,188.6	969.9	902,541.3	971.3	776,813.8	667,269.8	1,863	20,045

주 1) 1960년 이전은 1975년 기준, 1970년 이후는 2000년 기준, 2007년은 잠정치임

2) 1960년 이전은 GNP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국민계정」

11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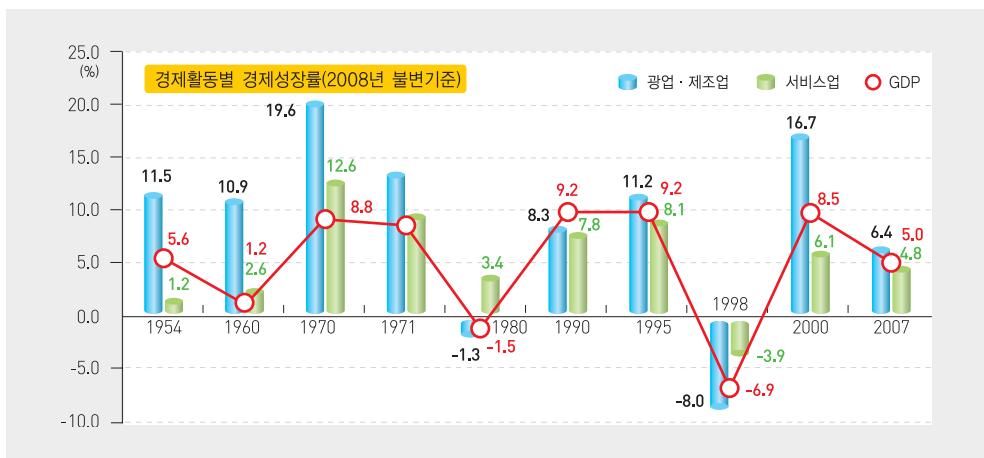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54년 이후 연평균 6.8% 기록 】

국내총생산(GDP)은 지금까지 1956년(-1.3%), 1980년(-1.5%, 제2차 석유파동), 1998년(-6.9%, 외환위기) 세 차례의マイ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그동안 연평균 6.8% 성장하였음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 농림어업은 1960년이후 감소세를 보여오다 2000년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서비스업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00년불변기준)¹⁾

(단위 : %)

연도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ガス 수도사업 ²⁾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			
1954	5.1	5.6	8.0	11.5	18.1	22.7	-	1.2
1960	1.1	1.2	-2.1	10.9	8.2	0.0	-	2.6
1970	7.6	8.8	-1.4	19.6	19.9	6.8	-	12.6
1980	-4.2	-1.5	-19.4	-1.3	-1.2	23.2	-3.6	3.4
1990	8.9	9.2	-6.5	8.3	9.1	17.0	25.5	7.8
1995	9.5	9.2	5.3	11.2	11.7	6.1	7.7	8.1
1998	-8.3	-6.9	-6.4	-8.0	-7.9	-0.3	-10.0	-3.9
2000	5.5	8.5	1.2	16.7	17.0	12.8	-3.4	6.1
2007	3.9	5.0	1.1	6.4	6.5	4.0	1.8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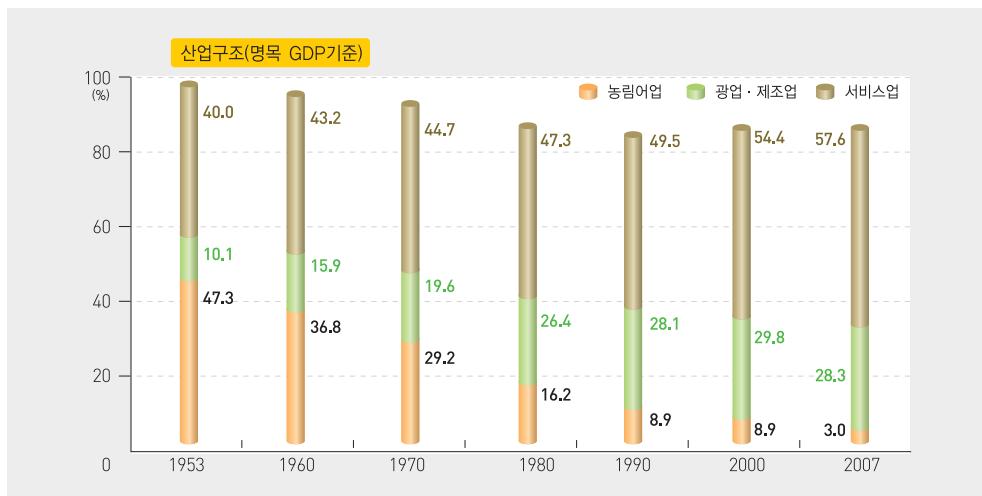
주 1) 1970년이전은 1975년기준, 2007년도자료는 잠정치임 2) 1970년도 이전은 건설업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1953년 40.0%에서, 2007년 57.6%로 17.6%p 증가 】

산업구조는 1953년에는 농림어업 47.3%, 광업·제조업 10.1%, 서비스업 40.0%로 농립어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분야가 성장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져 2007년에는 서비스업 57.6%, 광업·제조업 28.3%, 농림어업 3.0%로 변하였음

* 1953년에 비해 2007년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17.6%p, 광공업은 18.2%p 높아진 반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44.3%p 감소하였음

제조업구조도 1953년 경공업 중심(78.9%)에서 2007년에는 중공업 중심(83.1%)으로 변화하였음



산업구조(명목GDP)
(단위 : %)

연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제조업구조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②	건설업	서비스업	경공업	중공업
1953	47.3	10.1	9.0	2.6	-	40.0	78.9	21.1
1960	36.8	15.9	13.8	4.1	-	43.2	76.6	23.4
1970	29.2	19.6	17.8	1.4	5.1	44.7	58.4	41.6
1980	16.2	26.4	24.4	2.2	8.0	47.3	42.5	57.5
1990	8.9	28.1	27.3	2.1	11.3	49.5	30.7	69.3
2000	4.9	29.8	29.4	2.6	8.4	54.4	22.4	77.6
2007	3.0	28.3	27.9	2.3	8.9	57.6	16.9	83.1

주 1) 1960년 이전은 1975년 기준이고, 1970년 이후는 2000년 기준, 총부가가치액 기준

2) 1960년 이전은 건설업 포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1 부록

【 철강 및 자동차 생산은 1962년에 비해 396배, 2,270배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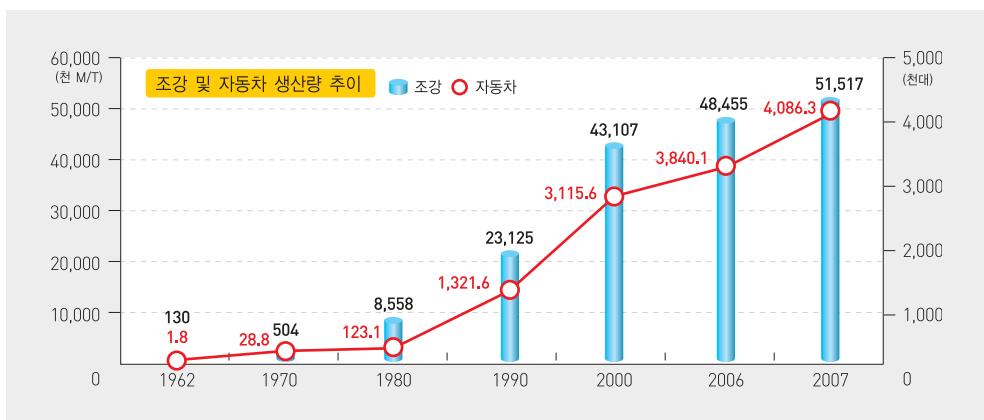
【 선박은 1970년에 비해 1,482배, 반도체는 1980년에 비해 181배 증가 】

철강생산은 1962년 13만M/T이었으나 1968년 포항제철소의 탄생과 1986년 광양제철소의 준공 및 설비투자로 2007년 5,152만M/T으로 396배 증가하였음

자동차는 1962년 1,800대 생산에서 2007년에는 2,270배가 증가한 408만6천여대를 생산하여 이중 69.7%인 285만여대를 수출하였음

선박은 1973년 1만2천GT 생산에서 2006년 1,482배 증가한 1,778만3천GT을 생산하였고, 그중 1,777만4천GT을 수출하였음

반도체완제품 생산은 1980년 1억7천만달러에서 2007년에는 306억8천6백만달러로 181배 증가하였고, 반도체 완제품 및 반제품 수출도 1980년 9억6천5백만달러에서 2007년에는 390억4천5백만달러로 40배 증가하였음



제조업 주요제품 생산

연도	조강(천 M/T)		자동차(천대)		선박(천GT)		반도체(백만불) ³⁾	
	생산	생산	수출	건조량	수출	생산	수출	
1962	130	1.8	-	-	-	
1970	504	28.8	-	121 ¹⁾	21 ¹⁾	
1980	8,558	123.1	25.3	655	464	170 ²⁾	965 ²⁾	
1990	23,125	1,321.6	347.1	3,573	3,210	1,719	4,541	
2000	43,107	3,115.0	1,676.4	11,499	11,484	17,375	26,006	
2006	48,455	3,840.1	2,648.2	17,783	17,774	29,229	37,360	
2007	51,517	4,086.3	2,847.1	30,686	39,045	

주 1) 1973년 자료, 2) 1985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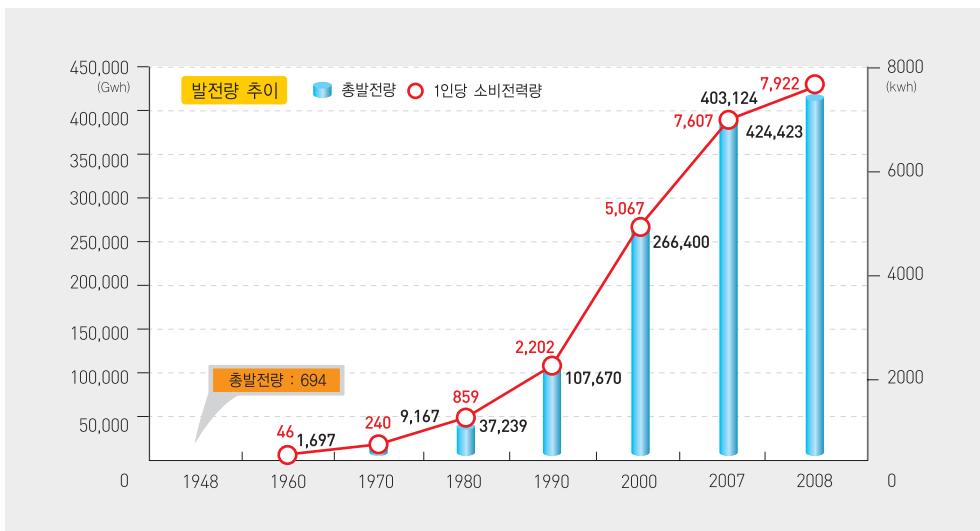
3) 반도체 생산 : 완제품 IC 생산기준, Gartner, 수출 : 완제품 IC 및 반제품 포함 통관기준, 무역협회
자료 한국철강협회「철강통계연보」,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의자동차산업」, 「자동차통계연보」
한국조선공업협회「조선자료집」, 지식경제부

【 총발전량은 1948년 694GWh에서 2008년 42만4,423GWh로 612배 증가 】

총발전량은 1948년 694GWh에서 2008년 현재 42만4,423GWh로 612배 증가했으며 1인당 전력소비량도 2008년 7,922KWh로 1960년 46KWh에 비해 172배 증가하였음

발전 종류별로 보면 1948년에는 수력이 34.9%, 화력이 23.8%였으나, 2008년에는 화력 63.1%, 원자력 35.6%, 수력 1.3% 순으로 화력과 원자력의 비중이 높아졌음

* 1970년에는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인 울산화력발전소가 준공되었으며, 1978년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총 20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음



발전량

(단위 : GWh, %)

연도	총발전량 ¹⁾	수력	구성비	화력	구성비	원자력	구성비	판매전력량	1인당 전력소비량(KWh)
1948	694	242	34.9	165	23.8	-	-
1960	1,697	580	34.2	1,117	65.8	-	-	1,154	46
1970	9,167	1,221	13.3	7,947	86.7	-	-	7,740	240
1980	37,239	1,984	5.3	31,778	85.3	3,477	9.3	32,734	859
1990	107,670	6,361	5.9	48,422	45.0	52,887	49.1	94,383	2,202
2000	266,400	5,610	2.1	151,826	57.0	108,964	40.9	239,535	5,067
2007	403,124	5,042	1.3	255,144	63.3	142,937	35.5	368,605	7,607
2008	424,423	5,567	1.31	262,416	63.1	150,958	35.6	385,070	7,922

주 1) 55년이전은 발전선에 의한 발전량이 포함됨

자료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통계」

노동 · 가계 · 물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에 비해 4.9%p 증가, 실업률은 4.9%p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 56.6%에서 2008년에는 61.5%로 4.9%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8.4%에서 73.5%로 4.9%p 감소한 반면, 여성은 37.0%에서 50.0%로 13.0%p로 증가하였음

실업률은 1963년 8.1%에서 2008년 3.2%로 4.9%p 감소한 반면, 고용률은 1963년 52.0%에서 2008년 59.5%로 7.5%p 증가하였음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남성	여성		
1963	14,551	8,230	7,563	667	56.6	78.4	37.0
1970	17,468	10,062	9,617	445	57.6	77.9	39.3
1980	24,463	14,431	13,683	748	59.0	76.4	42.8
1990	30,887	18,539	18,085	454	60.0	74.0	47.0
2000	36,186	22,069	21,156	913	61.0	74.2	48.6
2008	39,598	24,347	23,577	769	61.5	73.5	50.0

* 실업자 및 실업률에 대해 과거 자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 산출

*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고용률은 만15세이상 인구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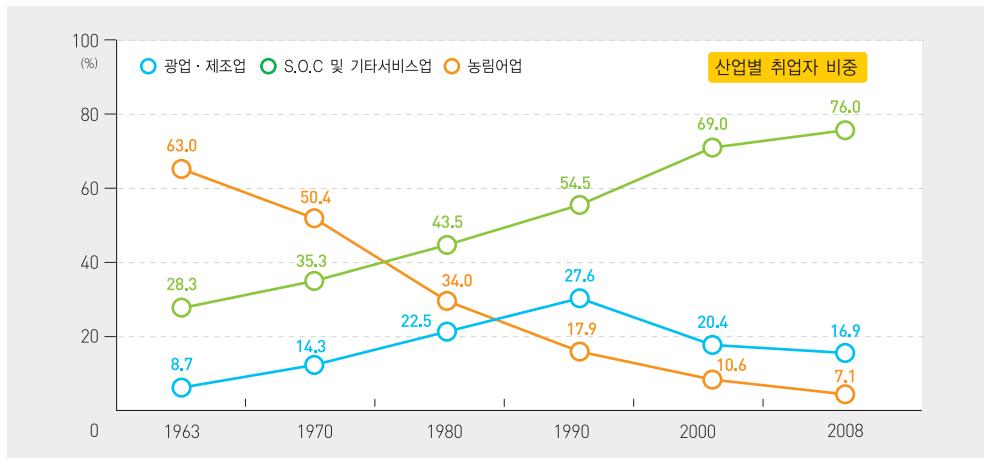
【 여성의 취업 비중은 1963년 34.8%에서 2008년 41.9%로 7.1%p 증가 】

취업자수는 1963년 756만3천명에서 2008년 2,357만7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93만명에서 1,370만3천명으로 2.7배 증가, 여성은 263만3천명에서 987만4천명으로 3.7배가 증가하였음. 여성의 취업비중도 1963년 34.8%에서 2008년 41.9%로 7.1%p 증가하였음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도 농림어업은 크게 감소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1963년 28.3%에서 2008년 76.0%로 크게 증가하였음

	1963년	2008년	(%P)
농림어업	63.0%	7.1%	△55.9
광업·제조업	8.7%	16.9%	8.2
S.O.C 및 기타	28.3%	76.0%	47.7



성별·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연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남		여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구성비		구성비					
1963	7,563	4,930	65.2	2,633	34.8	63.0	8.7	7.9	28.3
1970	9,617	6,104	63.5	3,513	36.5	50.4	14.3	13.2	35.3
1980	13,683	8,462	61.8	5,222	38.2	34.0	22.5	21.6	43.5
1990	18,085	10,709	59.2	7,376	40.8	17.9	27.6	27.2	54.5
2000	21,156	12,387	58.6	8,769	41.4	10.6	20.4	20.3	69.0
2007	23,433	13,607	58.1	9,826	41.9	7.4	17.7	17.6	75.0
2008	23,577	13,703	58.1	9,874	41.9	7.1	16.9	16.8	76.0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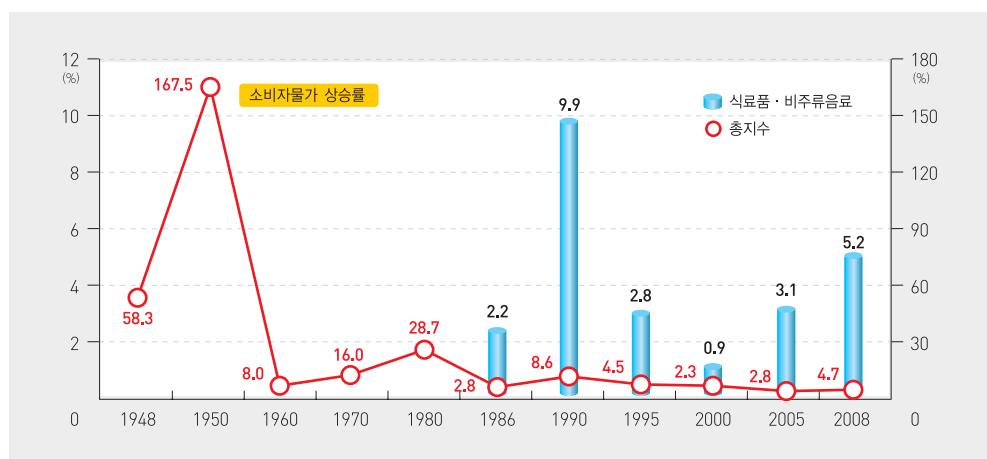
11 부록

【 소비자물가상승률 1948년 58.3%에서 2008년 4.7%로 안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48년 58.3%에서 1950년에는 167.5%까지 치솟았다가 1960년대에는 점차 안정되었으나, 1979년 2차 석유파동에 따른 원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1980년 287%까지 급등하였음

1980년도 이후에는 5%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해 오다 외환위기를 맞아 1998년 7.5%까지 상승하였음

2000년 이후에는 3%내외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금년 들어 유례없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¹⁾

(단위 : %)

연도	총지수 상승률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의복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집기 가사용품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양 오락	교육	외식 숙박	기타 잡비
1948	58.3	-	-	-	-	-	-	-	-	-	-	-	-
1950	167.5	-	-	-	-	-	-	-	-	-	-	-	-
1960	8.0	-	-	-	-	-	-	-	-	-	-	-	-
1970	16.0	-	-	-	-	-	-	-	-	-	-	-	-
1980	28.7	-	-	-	-	-	-	-	-	-	-	-	-
1986	2.8	2.2	2.5	2.3	2.5	2.4	3.8	2.1	6.2	1.8	4.6	4.6	4.5
1990	8.6	9.9	5.3	9.8	7.7	6.0	7.2	2.6	7.0	4.6	13.1	13.8	3.5
1995	4.5	2.8	2.2	1.7	4.3	1.9	6.3	6.3	-2.3	3.5	13.4	5.5	3.4
1998	7.5	10.2	6.4	4.0	7.8	5.5	4.8	16.1	-0.2	3.9	3.3	5.0	9.9
2000	2.3	0.9	0.8	1.5	3.9	-2.3	7.2	4.0	-2.3	-0.7	5.2	0.9	1.3
2005	2.8	3.1	14.9	1.0	1.9	2.1	2.2	5.0	-1.8	0.3	4.3	2.4	0.6
2008	4.7	5.2	0.6	2.7	4.5	5.3	2.0	9.5	-1.4	1.6	6.0	5.0	9.9

주 1) 2005=100 기준

자료 통계청「소비자물가연보」

무역 · 국제수지 · 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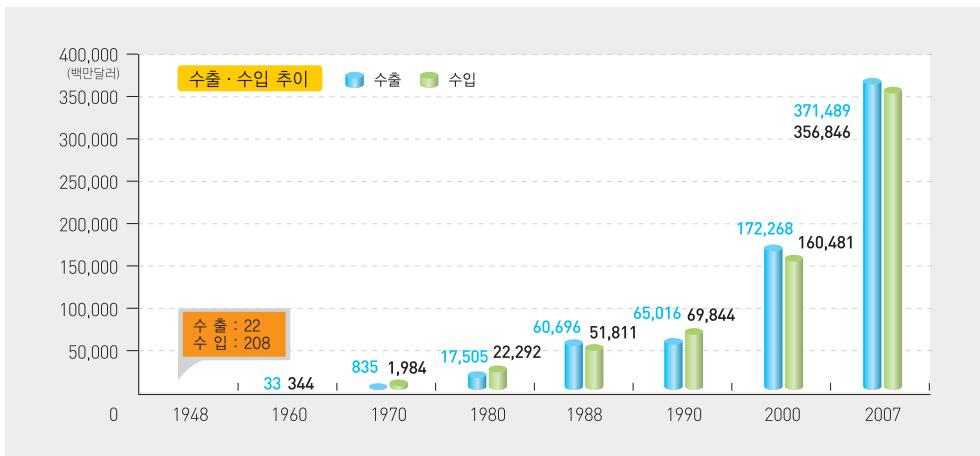
【 무역규모는 1948년 2.3억 달러에서 2007년 7,283억 달러로 3,167배 증가 】

무역규모는 1948년 2억3천만달러에서 2007년에는 7,283억3천5백만달러로 3,167배 증가하였음

* 수출은 1948년 2천2백만달러에서 2007년 3,714억9천만달러로 16,886배 증가,

* 수입은 1948년 2억8백만달러에서 2007년 3,568억5천만달러로 1,716배 증가함

수출상품 구조는 1960년에는 1차산업이 45.4%, 경공업제품이 45.4%로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1980년 이후 자동차, 선박, 반도체, 철강판 등 중화학제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총수출액의 91.5%를 차지하였음



수출 · 수입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무역총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입차	수출상품구조(%)				
					1차 산업	경공업 제품	중화학제품		
							IT제품	기타	
1948	230	22	208	-186			
1960	377	33	344	-311	45.4	45.4	9.2
1970	2,819	835	1,984	-1,149	17.5	67.9	12.8
1980	39,797	17,505	22,292	-4,787	11.7	46.4	41.8
1988	112,507	60,696	51,811	8,886	5.5	39.1	55.4	12.2	87.8
1990	134,859	65,016	69,844	-4,828	4.9	38.5	56.6	25.4	74.6
2000	332,749	172,268	160,481	11,786	2.8	16.2	81.0	39.5	60.5
2007	728,335	371,489	356,846	14,643	1.6	6.9	91.5	28.7	71.3

자료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주요무역동향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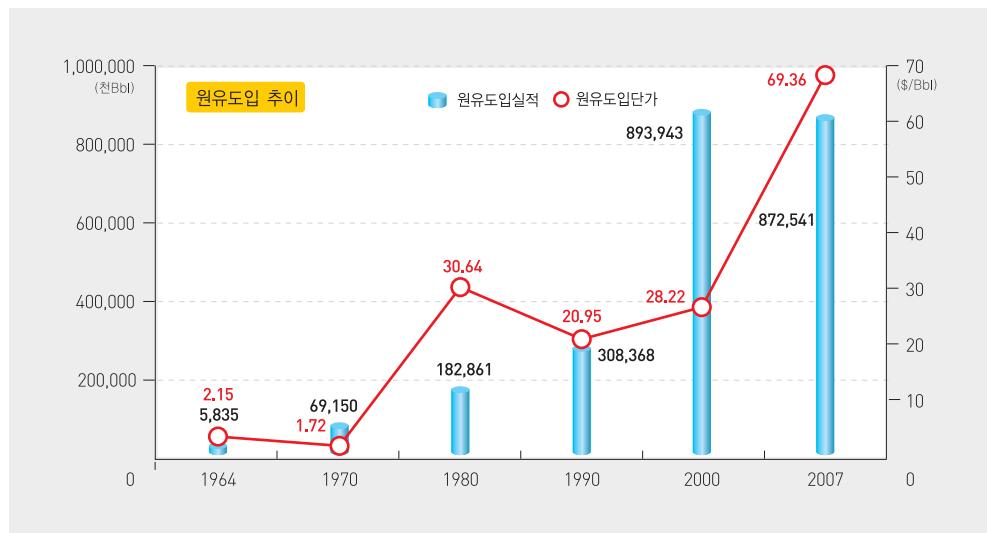
11 부록

【 원유도입량은 1964년에 비해 150배, 원유도입 비용은 4,655배 증가 】

1964년 원유도입량은 약584만Bbl, 원유도입비용은 1,300만달러였으나 2007년에는 8억7,254만Bbl, 도입비용은 605억달러로 각각 150배, 4,655배 증가하였음

원유도입단가는 1964년 베럴당 2.2달러에서 2007년 69달러, 2008년에는 100달러를 넘어섰음

*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급상승하여 1981년 35.51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 후반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함



원유도입

연도	원유도입실적 (천Bbl)	원유도입액 (백만달러)	F·O·B (백만달러)	수송비용 (백만달러)		도입단가 (달러/Bbl)
				비중(%)		
1964	5,835	13	9	3	23.1	2.15
1970	69,150	119	96	23	19.3	1.72
1980	182,861	5,161	4,955	206	4.0	30.64
1990	308,368	6,462	6,164	298	4.6	20.95
2000	893,943	25,227	24,174	1,053	4.2	28.22
2007	872,541	60,517	59,207	1,310	2.2	6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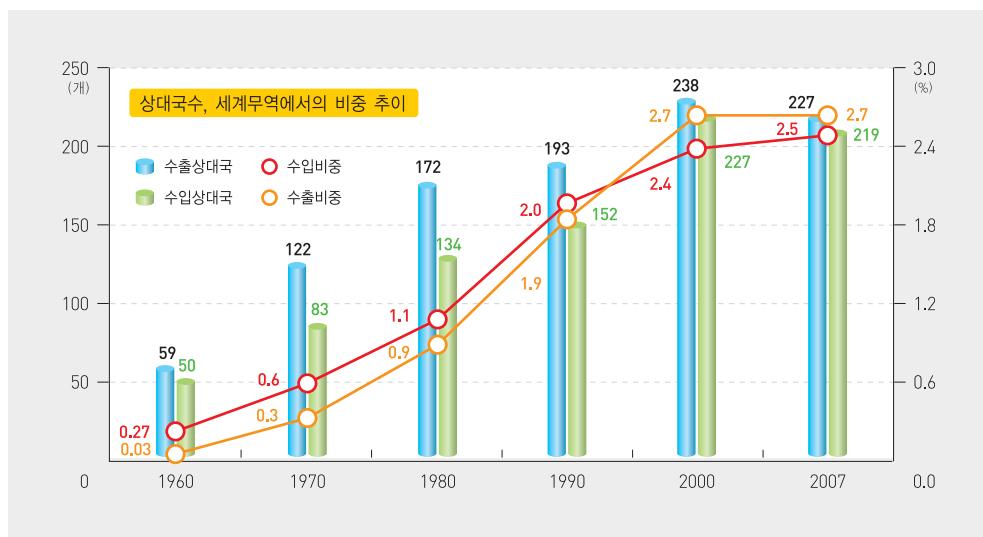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세계무역 점유비중은 1960년에 비해 수출 90배, 수입 9배 증가 】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에 수출 0.03%, 수입 0.27%에서 2007년에는 수출 2.7%, 수입 2.5%로 각각 90배, 9배 높아졌음

무역상대국수는 수출은 1960년 59개국에서 2007년 227개국으로 증가하고, 수입은 1960년 50개국에서 2007년 219개국으로 증가하였음

수출품목수는 1960년 섬유, 합판 등 712개에서 2007년 반도체, 자동차 등 8,641개로 증가하고, 수입품목수는 1960년에 원목 및 원유 등 1,439개에서 2007년 자동차 및 부품 등 10,575개로 증가하였음



교역품목수, 상대국수, 세계무역에서의 비중¹⁾

연도	세계무역에서의 비중(%)		상대국수		물목수(개)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60	0.03	0.27	59	50	712	1,439
1970	0.3	0.6	122	83	1,504	3,334
1980	0.9	1.1	172	134	6,010	7,358
1990	1.9	2.0	193	152	7,062	8,805
2000	2.7	2.4	238	227	8,241	9,904
2007	2.7	2.5	227	219	8,641	10,575

주 1) HS 10단위기준 천달러이상

자료 한국무역협회「주요무역동향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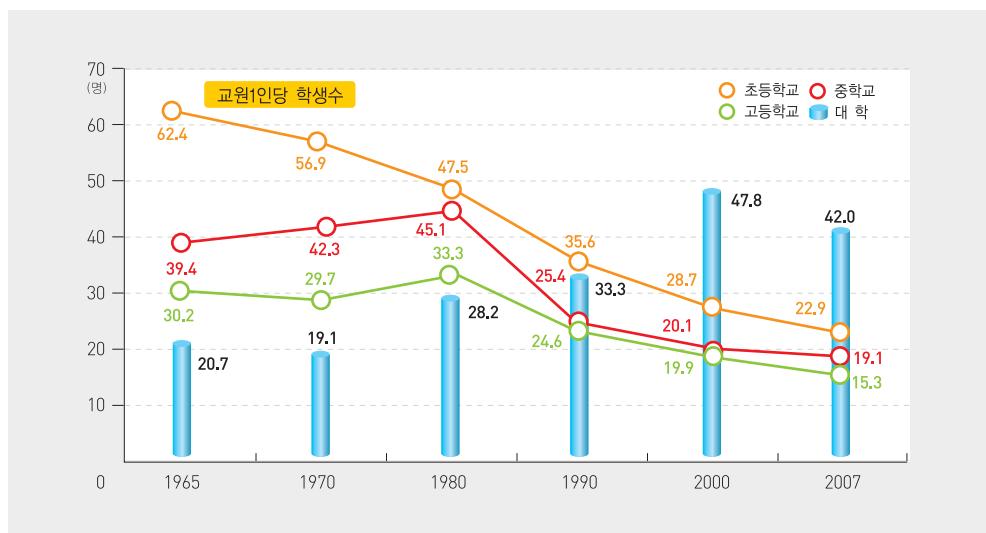
교육 · 사회 · 보건

【 초등학교 교원1인당 학생수는 1952년 60명에서 2007년 22.9명으로 감소 】

초등학교의 교원1인당 학생수는 1952년 60.2명에서 2007년 22.9명으로 감소함

* 중학교, 고등학교도 41.8명, 37.9명에서 각각 19.1명, 15.3명으로 감소하였음

반면, 대학의 경우 교원1인당 학생수가 1965년 전문대학 26.0명, 대학교 19.9명에서 2007년에는 전문대학이 68.1명, 대학교 36.4명으로 크게 늘어났음



교원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¹⁾	전문대학	대학교
1952	60.2	41.8	37.9	25.7
1965	62.4	39.4	30.2	20.7	26.0	19.9
1970	56.9	42.3	29.7	19.1	20.5	18.8
1980	47.5	45.1	33.3	28.2	30.1	27.9
1990	35.6	25.4	24.6	33.3	43.9	31.2
2000	28.7	20.1	19.9	47.8	78.0	39.7
2007	22.9	19.1	15.3	42.0	68.1	36.4

주 1) 대학 = 전문대학 + 교육대학 +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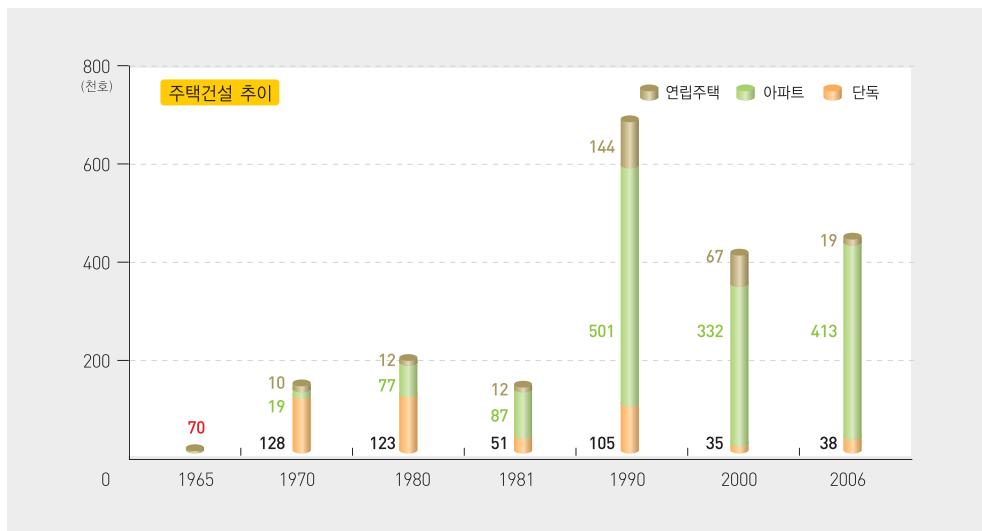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의 교육지표」, 「교육통계연보」각년도

【 주택보급률은 1970년 78.2%에서 2006년 107.1%로 상승 】

주택보급률은 1970년 78.2%에서 1980년 후반까지 하락하다가 2006년 107.1%로 상승하였음

주택유형별로 보면, 1980년까지는 단독주택 건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1년이후부터 아파트 건설이 주를 이루면서 2006년에는 주택건설의 87.9%를 아파트가 차지하였음

GDP대비 주택투자율은 1965년 1.5%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신도시건설로 1990년 8.8%, 1991년 8.9%로 최고 호황을 맞이한 후, 점차 낮아져서 2006년 4.7%를 기록하였음



주택건설 및 보급률

(단위 : %, 호)

연도	주택 보유수 (천호)	주택건설호수(천호)						주택 보급률 ³⁾	주택투자 /GDP ⁴⁾	천명당 주택건설 호수			
		합계	유형별			구성비							
			단독	아파트	연립 ²⁾								
1965	3,912	70	1.50	2.4			
1970	4,360	158 ¹⁾	128	19	12.0	10	78.2	4.24	3.6				
1980	5,319	212	123	77	36.3	12	71.2	5.45	5.6				
1981	5,460	150	51	87	58.0	12	70.5	4.20	3.9				
1990	7,357	750	105	501	66.8	144	72.4	8.75	17.5				
2000	11,472	433	35	332	76.7	67	96.2	4.32	9.2				
2006	13,534	470	38	413	87.9	19	107.1	4.70	9.7				

주 1) 1974년도수치임 2) 다세대 주택포함 3) 1인가구를 제외 4) 1990년이전 자료는 1995년기준 실질 GDP 적용
자료 국토해양부「건설교통통계연보」

11 부록

【 도로연장 1947년 2만4천km에서 2007년 10만3천km로 4.2배 확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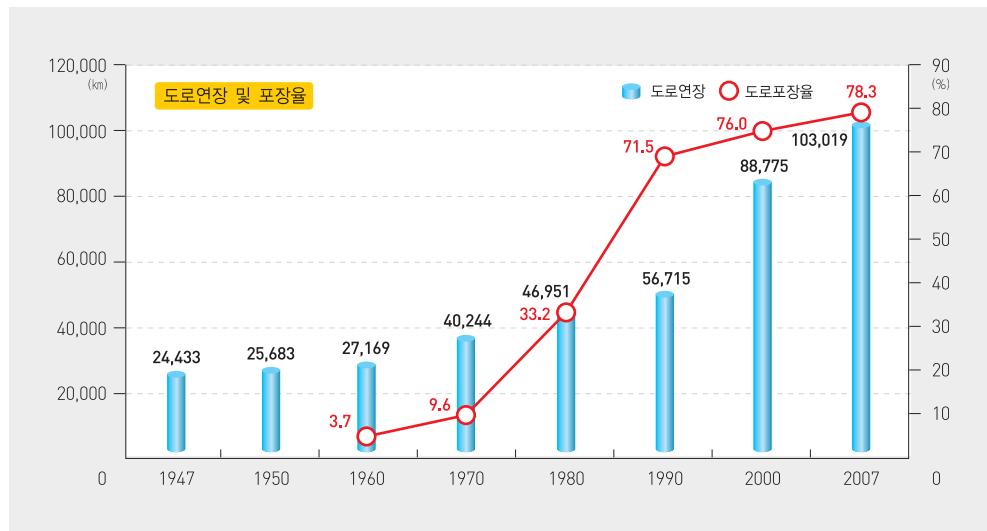
도로연장은 1947년 2만4,433km에서 2007년 10만3,019km로 4.2배(7만8,586 km) 확충됨

* 이는 경부고속도로 총연장(416km)의 189배, 남한 해안선 길이(2,413km)의 32.6배가 늘어난 것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국도가 준공되기 시작한 1968년의 고속국도 연장은 87km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3,368km로 39배(3,281km) 늘어남

*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경우도 1947년 각각 5,213km, 10,124km던 것이 2007년 13,832km, 18,175km로 2.7배(8,619km), 1.8배(8,051km) 증가

도로포장율은 1960년 3.7%였던 것이 1970년대 국도포장 본격화 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에는 78.3%로 비약적 증가



도로현황

(단위 : K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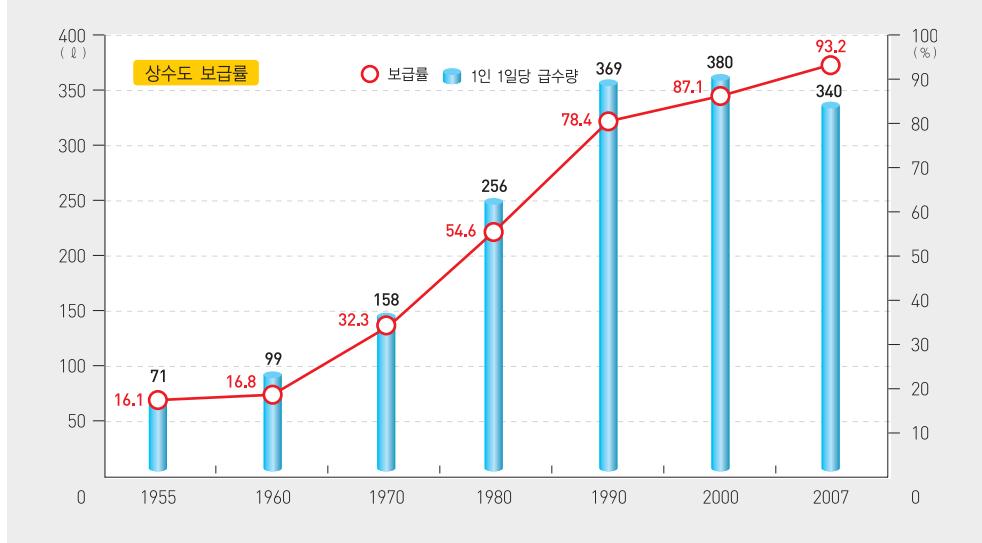
연도	도로연장						도로포장	포장율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1947	24,433	-	5,213		10,124	9,096	-	-
1950	25,683	-	5,213		10,131	10,339	-	-
1960	27,169	-	5,706		10,579	10,884	1,005	3.7
1970	40,244	551	8,122	5,476	10,880	15,216	3,864	9.6
1980	46,951	1,225	8,232	7,939	11,021	18,535	15,599	33.2
1990	56,715	1,551	12,161	12,298	10,672	20,033	40,545	71.5
2000	88,775	2,131	12,413	17,839	17,151	39,240	67,266	76.0
2007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6	80,642	78.3

자료 국토해양부「도로현황조서」

【 상수도보급률 1955년 16.1%에서 2007년 93.2%로 증가 】

상수도 보급률은 1955년 16.1%에서 2007년 93.2%로 증가하였고, 1인 1일 급수량도 1955년 71ℓ에서 2000년도 380ℓ 까지 늘어났다가 2007년에는 340ℓ로 낮아졌지만 1955년에 비하면 4.8배 증가하였음

상수도 생산능력인 시설용량은 1955년 27만톤에서 2006년 3,113만8천톤으로 115배 증가하였으며, 급수량에 대한 시설용량도 1980년 1.3배에서 2006년 2.0배로 증가하였음



상수도 보급률

연도	급수인구(천명)	보급률(%)		급수량(천톤/일)	1인1일당 급수량(l)	시설용량(천톤/일)
		보급률(%)	급수량(천톤/일)			
1955	3,475	16.1	-	71	270	
1960	4,210	16.8	-	99	517	
1970	10,430	32.3	-	158	2,166	
1980	20,809	54.6	5,341	256	6,756	
1990	33,631	78.4	12,421	369	16,274	
2000	41,774	87.1	15,883	380	26,980	
2007	46,057	93.2	10,465	340	19,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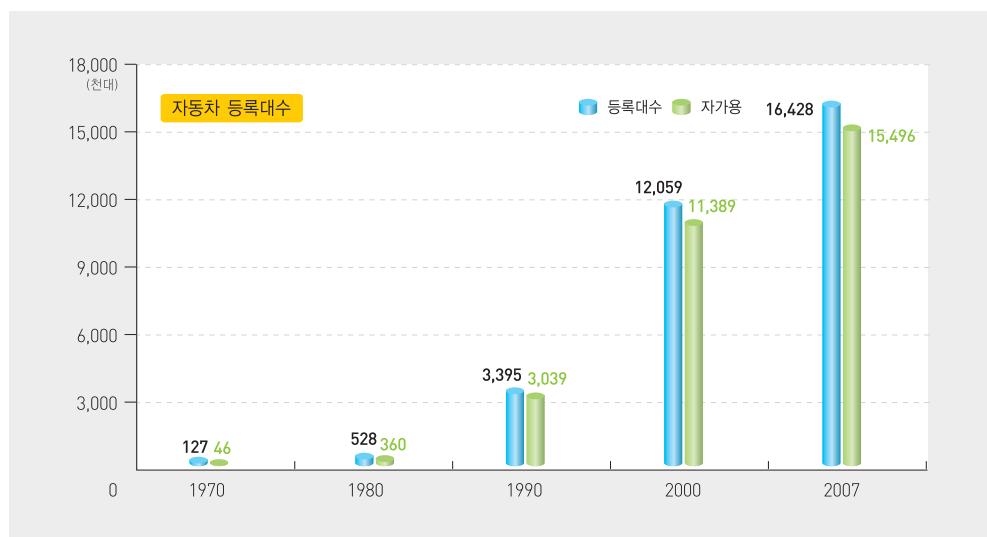
자료 환경부「상수도통계」, 「상수도」

11 부록

【 자동차등록대수는 1955년 1만8천대에서 2007년 1,643만대로 913배 증가 】

자동차등록대수는 1955년 1만8천여대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기에는 1천만대 시대를 열었으며 2007년에는 1,643만대로 증가하였음

자가용은 1970년 4만6천대로 100가구당 1대 가량 정도 보유에 머물렀으나, 2007년에는 1,549만 6천대로 100가구중 94가구 이상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자가용 승용차는 1,167만4천대로 75.3%인 것으로 나타났음



자동차 등록대수 및 가구당 자가용 보유대수

(단위 : 천대, %)

연도	등록대수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자가용	구성비	10가구당(대) ¹⁾		자가용				
1955	18	7	3	3	8	...
1960	31	13	4	4	13	...
1970	127	46	36.2	0.1	61	29	16	49	1
1980	528	360	68.2	0.5	249	179	42	227	9
1990	3,395	3,039	89.5	2.7	2,075	1,902	384	925	11
2000	12,059	11,389	94.4	8.0	8,084	7,798	1,427	2,511	37
2007	16,428	15,496	94.3	9.4	12,100	11,674	1,105	3,171	52

주 1) 10가구당 보유대수 환산시 2000년이전은 통계청각년도「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를, 2007년은 통계청「장래가구 추계」를 각각 참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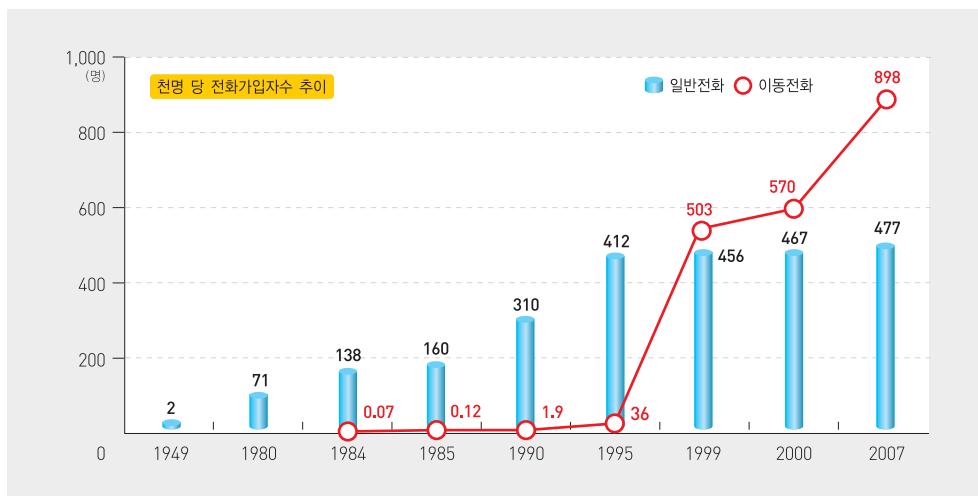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건설교통통계연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1949년 1,000명 중 2명이 일반전화기 보유, 2007년 10명 중 9명이 휴대전화기 보유 】

일반전화 가입자수는 1949년 4만천명에서 2007년 2,313만명으로 564배 증가하여 천명당 2명에서 477명으로 증가하였음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1984년 3천명에서 2007년 4,350만명으로 14,499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구 천명당 898명으로 10명중 9명이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초고속인터넷은 1998년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지 불과 4년 만인 2002년에 가입자 수가 1,000 만명을 넘어서 2007년 1,471만명으로 나타남



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수

연도	일반전화 가입자수 (천명)		이동전화 가입자수 (천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천명)	
	천명당 ¹⁾					
1949	41	2	-	-	-	-
1980	2,705	71	---	---	-	-
1984	5,595	138	3	0.07	-	-
1985	6,517	160	5	0.12	-	-
1990	13,276	310	80	1.87	-	-
1995	18,600	412	1,641	36.40	-	-
1999	21,250	456	23,443	502.90	278	5.96
2000	21,932	467	26,816	570.10	3,870	82.32
2007	23,130	477	43,498	897.67	14,710	303.57

주 1) 연령추계인구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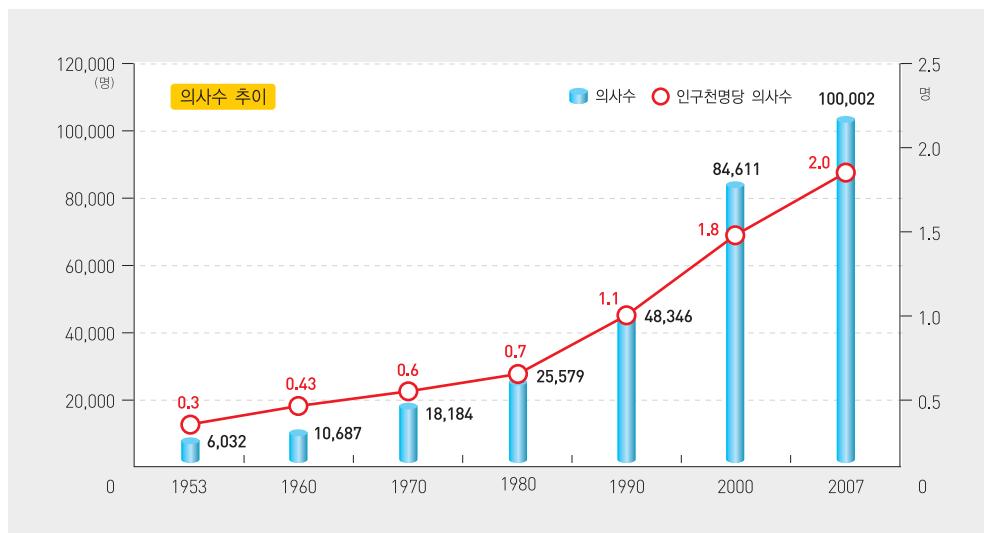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장래추계인구(2006.11)」

11 부록

【 인구천명당 의사수 1953년 0.3명에서 2007년 2.0명으로 증가 】

병·의원수는 1953년 4,306개에서 2007년 52,914개로 12.3배 늘어났으며, 의사수도 1949년 6,032명에서 2007년 100,002명으로 16.6배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인구천명당 의사수도 1949년 0.3명(의사 1인당 인구수 3,343명)에서 2007년에는 2.0명(의사 1인당 인구수 500,333명)으로 증가하였음



병·의원수 및 의사수

(단위 : 개소, 명)

연도	병·의원수						의사수 ²⁾	인구천명당 의사수 ⁵⁾
	합계	종합병원	일반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기타 ³⁾		
1953	4,306	45	2,543	508	863	347 ⁴⁾	6,032 ⁴⁾	0.3 ⁴⁾
1960	7,620	22	3,991	757	1,779	1,071	10,687	0.43
1970	10,301	12	5,625	1,344	2,443	877	18,184	0.6
1980	11,774	82	6,577	2,028	2,328	759	25,579	0.7
1990	21,701	228	11,263	5,292	4,294	624	48,346	1.1
2000	38,665	285	20,053	10,527	7,412	388	84,611	1.8
2007	52,914	302	27,210	13,431	11,033	938	100,002	2.0

주 1) 특수병원+부속의원+조산원 2)의사+한의사

3) 결핵, 나환자, 정신병원, 부속병원, 조산원 포함 4) 1949년도 자료임

5) 장래추계인구로 계산한 수치임, 1949년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수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기획부「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장래추계인구(2007.11)」



우리나라 발전과정

- 전화의 변신 166
- 달라진 직업풍속도 167
-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168
- 더워진 한반도 169
- 오줌에서 반도체까지 170
- 마이카시대 171
- 용어해설 172



전화의 변신

전화, 공중전화, 카폰, 빠삐, 휴대폰까지



1980년대 전자식 교환기 도입으로 아무 때나 전화 가입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전화는 당당히 '재산 목록 1호'였다.

1955년 전화가입자는 3만 9,000명에 불과했다. 인구 1,000명당 2대꼴이었다. 1970년 8월 31일 현재 전화가입자 수는 45만 7,280명(서울 19만 6,599명)이었다.

1986년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로 디지털식 전자교환기(TDX)를 독자기술로 개발하면서 전화는 특권층의 전유물에서 서민의 통신수단으로 거듭 났다. 1988년 가입자 1,000만 명, 1997년 2,000만 명을 넘어 2007년 말 현재 2,313만 명에 이르렀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꼴로 보급된 셈이다.

전화가 귀했던 시절 공중전화는 서민의 애용품이었다. 국내 첫 무인 공중전화기는 1966년 6월 1일 시내 중심가 10곳에 처음 설치됐다. 전화 부스마다 시외전화를 걸기 위해 줄을 선 풍경이 낯익었다.

같은 해 한국통신공사(현 KT)에서 떨어져 나온 한국이동통신서비스(현 SKT)가 무선호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빠삐의 등장은 통신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1982년 235명에 불과했던 빠삐 가입자는 10년 만에 6,178배인 145만 2,000명으로 늘었다.

빠삐의 증가와 더불어 연락을 취할 공중전화는 1997년 42만 3,502대까지 크게 증설되었다. 하지만 무선호출 서비스로 빠삐의 시대는 채 20년을 못 갔다.

그후 1988년 서울올림픽이 모든 걸 바꿔 놓았다. 올림픽 개막에 맞추어 서둘러 서울 및 수도권과 부산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PCS폰의 등장은 빠삐와 공중전화 시대의 퇴조를 불러왔다. 둘 다 PCS 서비스가 상용화한 1997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쇠퇴했다.

출처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달라진 직업풍속도



사회적 흐름에 따라 생성·소멸되는 직업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 우리나라에선 광복 이후 시대별로 발달한 산업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고 또 사라져갔다.

1963년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62.9%에 달했던 반면 사무직 종사자는 3.5%, 전문·기술관련 종사자는 3.3%에 불과했다. 40년이 지난 2007년에는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6.9%로 하락한 반면 사무직 종사자와 전문·기술관련 종사자는 각각 14.1%, 19.8%로 상승하였다.

해방 후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풍미했던 '유망' 직업은 1945년 광복 직후 미 군정(軍政) 시절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타이피스트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직업이었다. 또 자원과 물자가 부족해 이곳저곳을 누비며 고물을 사들이는 고물상이나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일획천금을 노리는 광산개발업자도 주목을 받았었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운전사·전화교환원·라디오 조립원·공장노동자(고무·가발·섬유) 등이 새로운 유망 직종으로 떠올랐다.

1960년대는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엔지니어나 섬유·합판·신발 분야의 기능공이 각광받는 직업으로 등장했다.

1970년대는 소비재 중심의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수출을 위한 중화학공업이 중심산업으로 부상하였다.

1980년대 들어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펀드매니저·외환딜러 등이 선호 직종으로 부상했다.

1990년대에는 IT가 발달하면서 프로그래머·벤처기업가 등이 각광받고 있고, 2000년대는 그야말로 직업 혁명의 시대로 이색직업들이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곤 한다.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3·3·35 운동에 참여합시다'

1966년 공공기관에 일제히 내걸렸던 표어다. 암호 같은 이 숫자는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날자'는 의미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계획 운동은 각자 알아서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면서 가족계획 운동은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남자들도 가족계획 운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피할 수 없는 예비군 훈련이 집중 표적이었다. 예비군 훈련중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에서 빠준다는 유혹에 정관수술 건수는 1974년 9,544건에서 10년 후인 1984년에는 8만여 건으로 늘었다.

1970년대 가족계획이 '2'로 바뀌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날아 잘 기르자는 유명한 표어도 이때 나왔다. 1980년대에는 아예 하나만 날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81년 발표된 '인구증가억제대책'은 가족계획운동의 결정판이었다. 가족계획에 참여하는 집에는 혜택을 주고, 아이가 많은 집에는 불이익을 줬다. 불임시술을 받은 가정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 진료비도 깎아줬다. 불임시술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 특전도 줬다. 반면 셋째부터는 육아휴직도 할 수 없었다.

2005년엔 이른바 '1.08 쇼크'가 찾아왔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대로 두면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걱정이 커졌다.

가족 정책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기까지 했다. 2자녀 이하에게 우선권을 줬던 시절과는 정반대다. 불임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정관복원수술은 보험 대상이 됐다. 하지만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더워진 한반도



한강에서 텁질하던 시절이 있었다. 해마다 겨울이면 서울시민들은 한강에 나가 얼음을 잘라냈다. 서빙고에 저장했다가 무더운 여름철에 가게를 통해 팔려나갔다.

1970년대에는 전국빙상대회가 한강의 얼음 위에서 열렸다.

하지만 근래 들어 한강은 겨울을 잊어버렸다. 강 위를 통탕거리며 걷는 것은 고사하고 얼음 자체를 구경하기 힘들어졌다.

실제 우리나라 기온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최저기온이 20°C 이상인 일수의 경우 1910년대 47.4일에서 2000년대에는 66.2일로 18.8일이 증가했다. 2000년대 1월 평균 기온(영하 1.5°C)은 1910년대에 비해선 3.4°C, 1970년대에 비해선 1.1°C 상승했다. 특히 2000년대 1월 평균 최저기온(영하 4.8°C)은 1910년대 1월에 비해 무려 5.1°C, 1970년대에 비해선 1.3°C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평균기온도 23.2°C로 1910년대에 비해 약 2.4°C 높았고, 최고기온(27.7°C)도 1910년대보다 1.1°C 높아졌다.

이 같은 온도 상승은 한반도의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80년간 봄의 전령인 개나리와 진달래의 개화일은 20일 정도 앞당겨졌다. 사과·재배지역이 대구·경북을 넘어 강원도 영월과 양구로 옮겨간 지는 이미 오래됐다. 제주도 특산물이었던 한라봉은 경남 거제, 전남 고흥 등지에서 해마다 열매가 노랗게 영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1세기 말에는 서울 남산 소나무도 모두 말라죽고 열대림이 그 자리를 메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환경부는 "2080년쯤 한반도의 현존 산림생물이 멸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남한의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게 됐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런 기후 환경 변화를 21세기의 가장 큰 환경문제로 인식해 각종 연구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오줌에서 반도체까지



1970년대 공중화장실마다 붙었던 안내문이다. 사람의 오줌에서 추출하는 유로키나제는 중풍치료제로 수출됐다. 당시 유로키나제 1kg은 2,000달러가 넘는 고가 수출품이었다.

수출이라는 걸 처음 시작한 1960년 초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품은 자연광물이나 수산물이 주종이었다. 1961년 최대 수출품은 철광석이었고 10 대 수출품에 중석·무연탄·흑연을 포함해 광물만 4개가 들어갔다.

1965년을 계기로 본격화한 수출장려 정책은 수출품의 면모도 바꿔놓았다. 10대수출품에서 광물과 수산물은 자취를 감췄고, 공산품이 그 자리를 메웠다. 1970년대 주력 수출품 중 하나는 가발이었다. 당시의 수출 첨병은 리어카를 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부녀자의 머리카락을 수집해온 엿장수였다.

섬유는 1970년대 최대 수출품이었다. 1970년 섬유류 수출은 3억 4,000만 달러가 넘어 수출총액의 41%를 점했다.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수출품도 경공업제품에서 중후장대 중공업제품으로 바뀌었다. 1980년엔 철강판과 선박이 주력 수출품으로 떠올랐다. 반도체도 10대 수출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중동 건설 붐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 것도 이 무렵이다.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한 3년은 우리나라가 처음 맞은 '3저 호황(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시기였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류 제품 수출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지며 수출을 이끈 결과 4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는 1980년 4억 3,400만 달러에서 1990년 45억 4,100만 달러, 1995년 176억 5,900만 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단일품목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것도 1994년 반도체였다.

1980년대는 자동차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으로 등장 1990년에는 자동차가 10대 수출품에 끼게 됐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주력 수출품엔 큰 변화가 없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휴대폰, 철강이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마이카시대



1970년대 가난한 서민의 딸들이 겪어야 했던 애환이 그대로 묻어난다.

버스 안내양은 1961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엔 남자가 차장을 했다. 명칭도 '조수'였다. 하지만 거친 남자 조수는 손님과 다투기 일쑤에다 인건비도 비쌌다. 정부가 여차장을 도입하기로 한 건 이 때문이었다.

1961년 1만 2,560명이었던 안내양은 1971년엔 3만 3,504명에 달했다. 1970년대 중반 5만 명에 육박했던 안내양은 1982년 9월 10일 시민자율버스가 등장하면서 줄기 시작했다.

1955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8천대로 이때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사람보다는 화물 운송에 주로 활용됐다.

1955년 미군 지프를 개조해 만든 '시발(始發)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자가용 승용차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승용차 보급이 재개된 건 1962년 '새나라자동차'가 나오면서부터다. 전차의 보조수단에 불과했던 버스도 6·25 전쟁 후 빠르게 늘었다. 전쟁이 끝나자 쓸모가 없어진 미군 지프를 개조한 승합차(버스) 영업이 본격화했다.

1966년 영업용 승합차의 비중은 21.2%로 자가용 승용차(15.3%)나 택시(16.7%)보다 높았다. 1967년 신진자동차가 국산 버스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버스 보급을 늘렸다.

1974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고 1974년 이후 국산 모델 승용차가 등장하면서 '마이카 봄'이 일기 시작했다. 1974년 4만 4,000대였던 자가용 승용차는 1980년 17만 9,000대로 네 배가 됐다. .

자가용의 보급은 버스와 택시의 비중을 뚝 떨어뜨렸다. 1960년대 20%가 넘었던 영업용 승합차(버스) 비중은 1980년엔 5.3%에 불과했다.

1981년 이후 잠시 주춤했던 자동차 보급은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989년 승용차 비중이 52.8%로 넘어서면서 자가용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1992년엔 자가용 비중이 60%를 넘었고, 2007년 71.1%에 달했다. 2007년 자가용은 승용차와 승합차를 합쳐 1,549만 6,000대로 1가구 1가용 시대가 됐다.

용어해설



총 조 사 인 구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시점 현재의 대한민국 영토의 상주인구
인 구 밀 도	인구를 그와 관련된 면적으로 나눈 수치
노령화 지수	유년층인구(0~14세)에 대한 노령층 인구(65세이상)의 비율
조혼인율·조이혼율	인구 천명당 혼인 및 이혼 건수
국내총생산(GDP)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그 국토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
국민총소득(GNI)	한 나라 국민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사 업 체	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장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곳
소비자 물가지수	일반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 측정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국내시장의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 측정지수
국 제 수 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
경 상 수 지	재화와 용역의 이동 즉 한 국가의 대외거래 상태를 나타낸 지표
경제활동 참가율	생산가능연령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영 겸 계 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통계로 본 「대전 60년사」

2009년 9월 발행

발행인 대전광역시장 박성효

편집인 법무통계담당관 김일토

통계담당사무관 안성순

자료 편집 및 분석 이홍우(6급), 곽신석(7급)

발행처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 Tel 042-600-3392

인쇄 디자인 시티 Tel 042-638-6522

